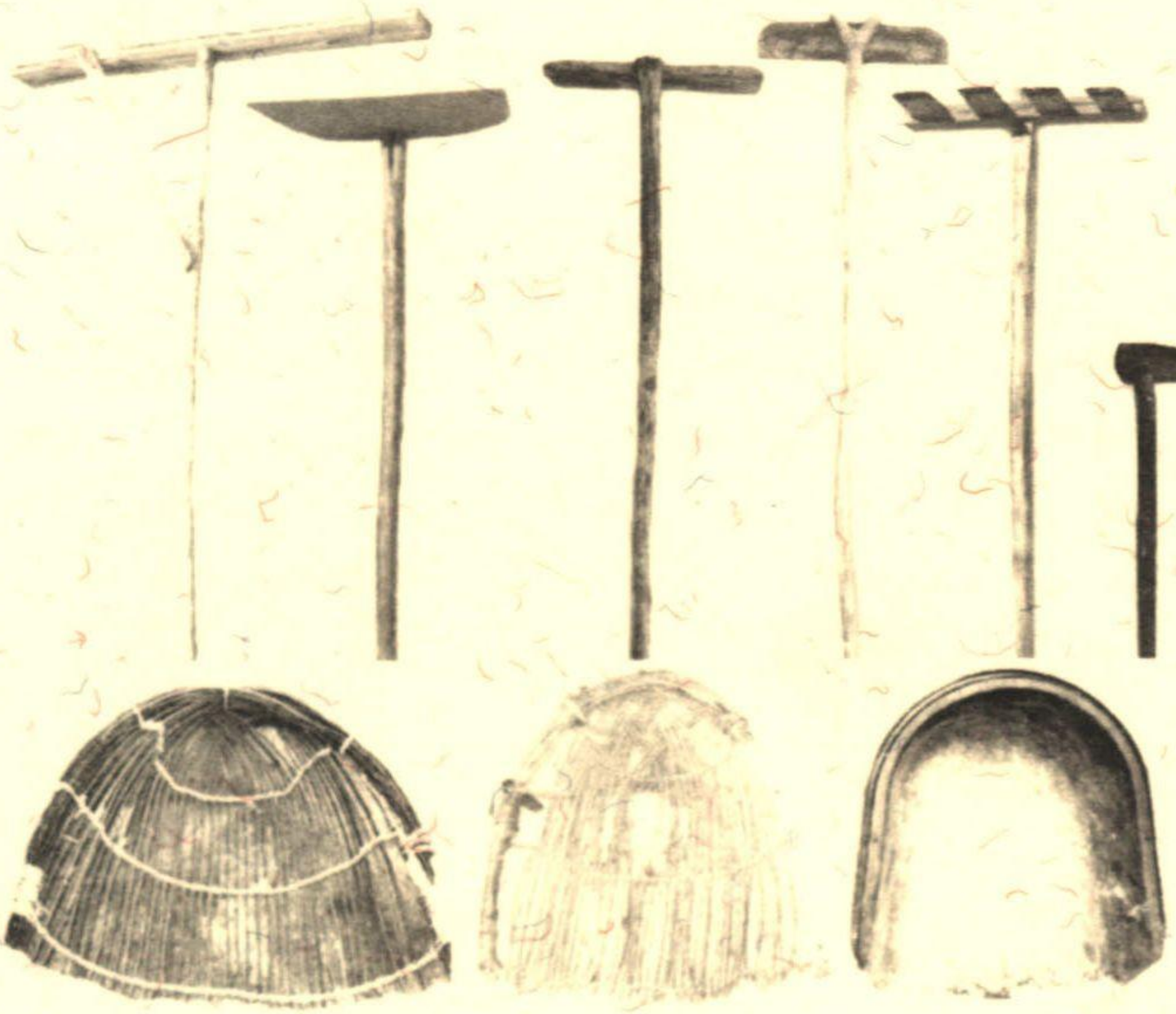
청양의 물질문화

임동권·정형호·임장혁 공편



青陽文化院

■ 편자 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한국세시풍속연구』외 다수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저서『양주별산대놀이』외 다수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저서『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외 다수

청양의 물질문화

임동권·정형호·임장혁 공편

青陽文化院

발 간 사

청양문화원장 정재권

인류의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 전파하여 우리의 사고와 생활에도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문화를 지키는 일은 당연하고 급선무의 일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낳고 기른 문화가 외래문화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상이 남겨놓은 문화 전통을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 줄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는 인간이 창조하고 인간에 의해서 전승 발전하여 계승되기에 그 속에는 조상의 숨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장 청양은 농촌과 산촌을 겸하고 있어 두 문화가 복합되어 있어 산촌과 농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용구와 도구도 다양성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경작업에 필요한 기구가 사용되고 산촌에서는 산촌생활에 알맞은 용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용구는 그들이 생활에 있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집니다.

청양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장승이 아직도 많이 전승되어 있습니다. 장승은 자료로 보면 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니 물질민속이면서 사람들이 마을의 수호신, 길목을 지켜 재앙이나 질병과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제사지내고 있으니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장승은 외형으로 보면 물질이고 내용으로는 신앙성이 강하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장승은 청양만이 아니라 전국적이라 할 수 있으나 타 지역에서는 거의 사라져 그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우리 고장에는 잔존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아끼고 우리 고장의 문화현상으로 보존하여 조상들에 의해서 전승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향토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승마을을 조성했고 장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예년과 같이 중앙대학교 민속학과의 임동권 박사님, 정형호 교수님, 임장혁 교수님과 학생들이 수고해 주셨다. 수고에 고맙고 감사한 인사를 드린다.

서 문

임 동 권

청양문화원은 청양에 전승하는 민속문화를 기록, 보존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물질민속'을 조사하여 기족, 보존하게 되었다.

인간은 생활하는 데 편리하고 힘든 노동일을 덜기 위해서 물질, 즉 도구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 우리는 땅을 파고 곡식을 심고, 물이 내려가도록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베고 다듬기 위해서 도구가 있어야 했고, 집을 짓고 담장을 쌓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많은 종류의 도구가 필요했고, 농사를 지어 거두어 드린 곡식으로 밥을 지어먹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의 과정에도 여러 가지 도두가 있어야 했다. 인간은 그 많은 종류의

도구들을 만들어 사용해서 문명사회를 이루어왔다.

이제까지의 민속학에서는 주로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 즉 민간신앙, 구비전승, 세시풍속, 통과의례 등 주로 문화적인 측면을 주로 대상을 삼았으나 물질민속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경향이 있어 이번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물질민속을 독립시켜 대상으로 삼아 조사하게 되었다.

청양은 들이 있으니 농경기구를 필요로 했고 복판에 칠갑산이 자리하고 있어 목재를 다룰 기구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농경도구와 벌목하고 채취하는 도구를 갖추어야 했다. 따라서 청양에는 농촌사회와 산촌사회에 갖추어야 할 여러 도구, 기구들이 필요했고 그러한

도구들이 이번 조사에서 물질민속으로 부각되었다. 최근에 민속자료를 진열할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되었으니 물질민속의 보존이 가능해져서 반가운 일이다.

이번 조사에도 중앙대학교 교수와 민속학과의 학생들이 담당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조사자	임동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형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임장혁 중앙대학교 부교수
조사보조원	이정은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석사과정
	김진영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석사과정
	강석훈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재학
	김승유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재학
	최보영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재학
	유보영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재학
	김병묵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재학

목 차

1. 민속학과 물질문화

1) 일상생활에서 물질문화 ····· 13

2) 생산활동과 생산도구 ····· 13

3) 청양지방 생산도구의 특성 ····· 16

2. 농업용구

1) 가는 도구 ····· 20

(1) 쟁기 • 20 (2) 극쟁이 • 29 (3) 가래 • 31

(4) 괭이 • 36 (5) 쇠스랑 • 45

2) 삶는 도구 ····· 53

(1) 써레 • 53 (2) 곰방메 • 57 (3) 고무래 • 59

3) 씨 뿌리는 도구 ····· 62

(1) 다래끼 • 62

4) 거름 주는 도구 ····· 64

(1) 삼태기 • 64 (2) 똥바가지 • 68 (3) 거름통 • 70 (4) 호크 • 71

5) 매는 도구 ····· 72

(1) 호미 • 73 (2) 하괭이 • 77 (3) 갈고리 • 79

(4) 흙치는 얼개미 • 80

6) 물대는 도구 ····· 82

(1) 두레 • 83

7) 거두는 도구 ····· 87
(1) 낫 • 87
8) 터는 도구 ····· 90
(1) 홀태 • 90 (2) 도리깨 • 94
9) 말리는 도구 ····· 96
(1) 멍석 • 96 (2) 도래방석 • 97 (3) 왕굴자리 • 99
10) 고르는 도구 ····· 101
(1) 키 • 101 (2) 풍구 • 103 (3) 바람개비 • 105
(4) 체와 쳇다리 • 107
11) 알곡 및 가루내는 도구 ····· 110
(1) 절구 • 110 (2) 맷돌 • 113 (3) 맷방석 • 115
12) 거르는 도구 ····· 117
(1) 용수 • 117 (2) 용발 • 118

3. 축산도구

1) 축산도구 ····· 121
(1) 구수 • 121 (2)작두 • 124 (3)코뚜레 • 128
(4) 소굴개 • 130 (5)소방울 • 131
2) 양봉도구 ····· 133
(1) 벌멍덕 • 133 (2) 벌통 • 134

4. 운반용구

1) 지게 • 137
2) 바소거리 • 143
3) 구루마 • 145
4) 구럭 • 148

5) 봉냥망탱이 • 150　6) 뚱아리 • 152
7) 채반 • 153　8) 소쿠리 • 154

5. 직물용구

1) 직조도구 ····· 157
(1) 전지 • 157　(2) 물레 • 159　(3) 베틀 • 161
(4) 벳솔 • 167　(5) 쫀지 • 168　(6) 다리미 • 169
(7) 인두 • 170

2) 양잠 도구 ····· 171
(1) 뽕바구니 • 171　(2) 뽕칼 • 172　(3) 뉘장 • 172
(4) 깃비 • 172　(5) 잠박대 • 172

6. 어로용구

1) 민물어로도구 ····· 175
(1) 그물 • 175　(2) 통발 • 181　(3) 가리 • 184
(4) 작살 • 185　(5) 게막 • 187

7. 공구

1) 톱 • 188　2) 자귀 • 190　3) 도치 • 193
4) 대패 • 194　5) 먹통 • 196　6) 자새 • 198
7) 저울 • 200　8) 집게 • 201　9) 깔고리 • 202

◈ 청양의 물질문화 전체 제보자 / 204

1. 민속학과 물질문화

1) 일상생활에서 물질문화

문화는 흔히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구분된다. 정신문화는 형태가 없는 문화로 주로 감정에 의해 표출되는 문화이다. 시각이나 청각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행동이나 언어로 의해 표현되곤 한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나 조상을 섬기는 의례 또는 세시에 행하는 놀이 방법은 부모나 마을 어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 익힌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들은 설화 등은 어른이 되어도 기억에 생생하고 마음에 한자리를 차지해 자신의 정서에 한 부문을 차지한다. 이러한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져 문화적으로 정착되는데 이를 정신문화라 한다. 문화재로 구분한다면 정신문화는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에 해당된다.

물질문화는 형태를 지닌 문화로 유형문화재에 해당

된다. 물질문화는 고서, 미술품, 탑, 식지, 호미 등과 같이 일정한 형태가 있다. 고서, 미술품, 탑, 불상 등과 같이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형의 문화재는 고고미술학이나 서지학에서 연구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은 특정의 작가나 창작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호미나 쟁기, 톱, 도리개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도구는 민속학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누구에 의해 처음 고안되어 사용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필요성에 의해 고안하여 생산하였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여 사용하게 되고 보급되면서 생활도구로 정착하게된 것이 대부분이다.

물질문화는 의식주를 비롯해 생산도구, 가구, 운반도구, 가구 등 인간이 생활하면서 필요에 의해 제작한 물품의 모두를 말한다. 이들은 사용자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전문 제작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제작자가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도구는 대부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어패류, 돌, 가죽 등을 얻어 만들기에 생태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나무는 대나무재배의 북한계선인 전라도에서

주로 소재로 하고, 어패류는 해안지역에서 소재로 사용한다.

한편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제작자도 장인이 만들지만 소재도 특산지에서 구입하여 만들어 시장이나 행상을 통해 유통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권을 형성하여 소비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물품을 파는 상인은 시장이나 행상을 하고 이들이 순회하는 지역 간에 물품의 유통이 나아가 문화교류로 이루어진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물품을 파는 사람은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기에 정보를 전해주는 전달자로서 역할도 했다.

물질문화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각종 도구나 물품의 제작에 생산성을 고려하고 대량생산되고 사용자의 능률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작되고 있다. 그러기에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자제도구는 사라지고 구입도구만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목재나 쇠로 제작되던 물품들이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대치되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하고 있다. 물품의 변화는 인류의 지혜가 담긴 기술사의 한 단면이다. 농촌이 기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호미와 낫이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여전히 온돌에서 잠을 잔다. 이처럼 생활양식이 바뀌어도 전통성의 근간은 유지되며 지켜가고 있다.

2) 생산활동과 생산도구

우리민족은 농경민족이다. 일찍이 청동기시대부터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생활을 기반으로 지내왔기에 식생활에서 곡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안가나 강변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기도 하며 산촌에서는 사냥을 하기도 한다. 어촌이라고 해서 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농반어(半農半漁)로 농사와 어로를 겸하여 생활을 영위한다. 따라서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농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는 찾아볼 수가 있다.

농경은 흔히 벼농사와 밭농사(또는 화전농경)로 구분한다. 농경의 생산방식은 벼농사나 밭농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작지를 갈고 종자를 파종하여 수확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동일하다. 따라서 농경에 사용되는 도구는 농경일손에 따라 가는 도구, 삶는 도구, 씨 뿌리는 도구, 거름 주는 도구, 매는 도구, 물대는

도구, 터는 도구, 말리는 도구, 고르는 도구, 도정도구 등으로 분류한다. 논밭을 가는 도구는 쟁기, 괭이, 가래 등으로 갈아서 흙을 뒤엎고 곰방매나 고무래로 파종하기 좋도록 써래로 썰고 나래로 골라 흙을 노글노글하게 만든다. 파종 후에는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김을 맨다. 낫으로 곡식을 거두면 곡물을 털어내어 말려서 도정을 한다. 농산물은 보통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농경민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업이나 소비목적을 위해 양잠을 하거나 직물을 짜기도 하며 어로나 양봉을 하기도 한다. 또한 농사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소를 키우기도 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 돼지를 키우기도 한다. 이러한 농사일이나 생산 활동은 일 년을 주기로 반복되기에 계절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도구가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생산력과 생산도구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3) 청양지방 생산도구의 특성

청양군은 칠갑산 줄기에 따라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대표적인 농산물이 고추와 구기자로 알려져 있듯 산촌에서 밭농사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농기구에 있어서도 평야지대의 논을 경작하는 도구도 찾아볼 수 있지만 밭을 경작하는데 사용되는 농기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밭쟁기는 밭을 갈거나 고랑을 낼 때에 사용하기에 날이 무디고 논쟁기와 달리 보습도 반대방향으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흙을 밀어내거나 고랑을 파는데 용이하다. 극쟁이는 쟁기와 같이 소를 이용해 논밭을 가는 것으로 쟁기와 유사하다. 단지 볏이 없으며 보습도 쟁기에 비해 무딘 편이다. 좁고 험한 곳을 얇게 갈 때나 쟁기로 갈아놓은 논밭에 골을 만들 때에 사용한다.

육철괭이는 보통 괭이보다 길고 날이 두꺼워서 무겁다. 밭을 일구고 딱딱한 흙을 깨뜨리는데 사용한다. 가짓잎괭이는 자루가 120cm로 길고 날이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밭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쇠스랑작업 후에 밭의 골을 내는데 사용한다. 담배괭이는 담배밭둑을

만들거나 밭을 갈고 일구는데 주로 사용하는데 날의 폭이 15cm이고 길이가 30cm정도로 길다. 날 뒷부분에 홈이 파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미는 김매는 도구로서 보습형, 낫형, 세모형으로 구분되는데 낫형은 날 끝이 예리하고 날의 길이가 길고 너비는 좁다. 또한 자루가 짧고 날이 커서 척박한 토양을 밭을 맬 때에 주로 사용한다.

이상과 같이 밭 농기구의 차이는 갈거나 맬 때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논을 갈거나 매는 도구와 기능은 같지만 형태에 차이가 있어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비옥한 논과 척박한 밭의 경지에 따라서 도구도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논과 밭의 농기구도 각기 효율성을 고려하여 점점 분화되어 발달한 것이다. 청양에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밭농사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농업용구

1) 가는 도구

땅을 갈아 일구는 것은 농사의 가장 근본적인 작업이다. 『농사직설』의 기록에 보면 땅은 천천히 갈아야 하고, 가을에는 깊게 봄과 여름에는 얕게 갈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거친 땅을 개간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깊게 갈고, 그 다음에 얕게 갈면 새 땅이 일어나지 않아서 흙이 부드러워진다고 한다. 이처럼 땅을 가는 것은 농사를 시작하는 준비의 과정이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적절한 토양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다. 땅을 가는데 사용하는 도구는 쟁기가 가장 대표적이며, 괭이, 따비, 가래 등이 사용된다.

(1) 쟁기

쟁기는 논이나 밭을 갈아서 뒤엎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뒤지개'에서 비롯되어 따비를 거쳐 완성된 도구

이다. 전통적인 가는 도구 중에서 가장 능률적인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가대기, 보쟁기, 탑조기, 보래, 보거래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청양지역에서는 모두 쟁기라고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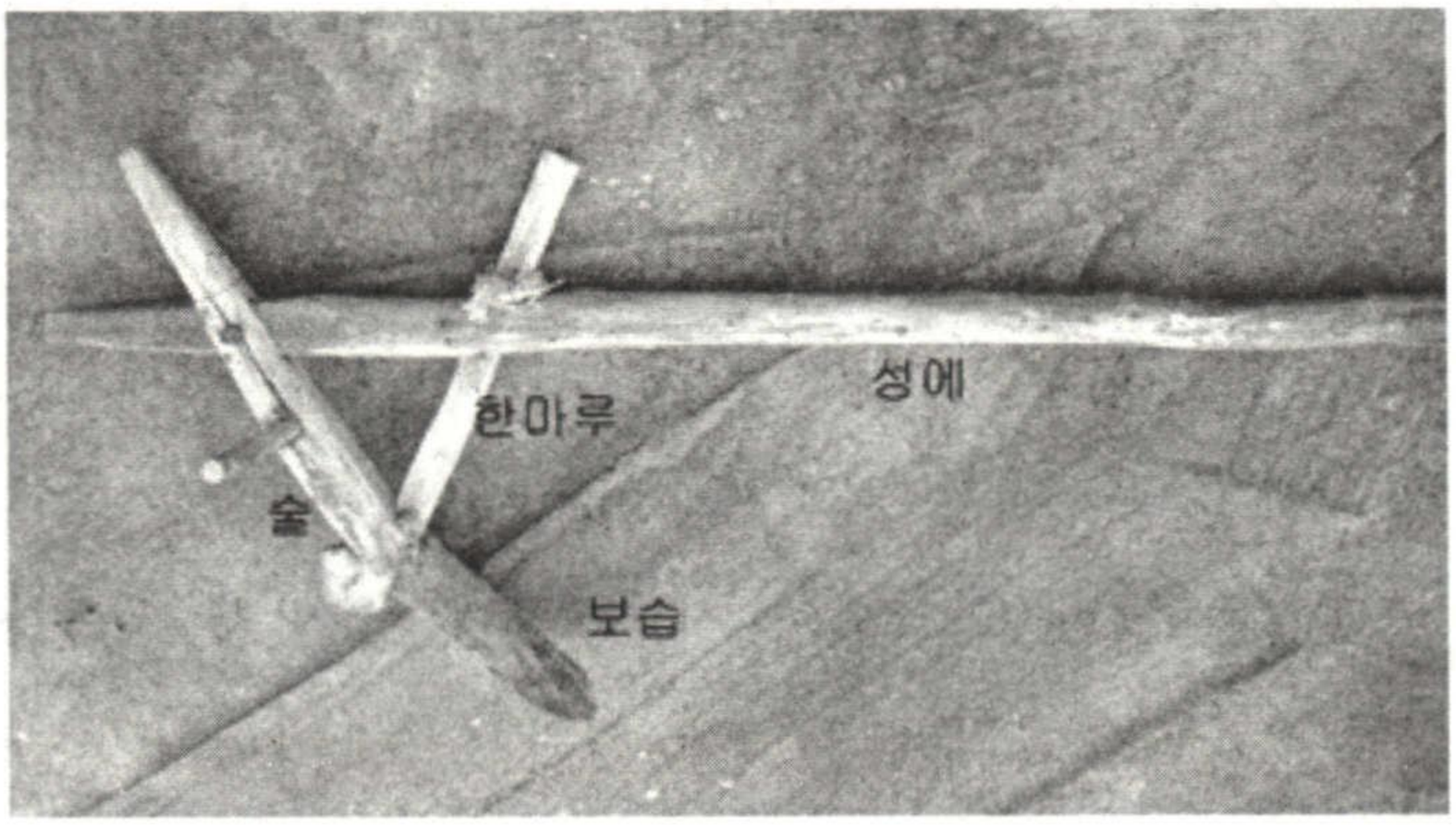
쟁기는 가축을 이용한 도구로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지증왕 3년(502)에 처음으로 우경(牛耕)을 실시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쟁기가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쟁기의 등장으로 도구를 이용한 갈이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소를 이용한 쟁기를 통해 효율적인 농사가 가능해졌고, 생산력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소 대신 경운기 등을 이용해 쟁기를 갈기도 하지만 농사의 기계화로 쟁기의 쓰임새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쟁기는 소에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마리가 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기도 하는데, 한 마리가 끄는 쟁기는 '호리쟁기'라 하고, 두 마리가 끄는 것은 '겨리쟁기'라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집집마다 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서 한, 두 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소를 돌아

가면서 사용해야 했다. 그래서 소가 없거나 빌리지 못했을 경우 사람이 끌기도 했다. 쟁기질을 하는 사람과 소의 능력, 토질에 따라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은 모두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논은 800~1,000평, 밭은 700~800평정도 갈 수 있다.

○ 명칭

청양에서는 모두 쟁기라고 불리고 있으며 각 부분의 명칭은 다음 사진과 같다.



쟁기의 모습과 부분 명칭

각 부분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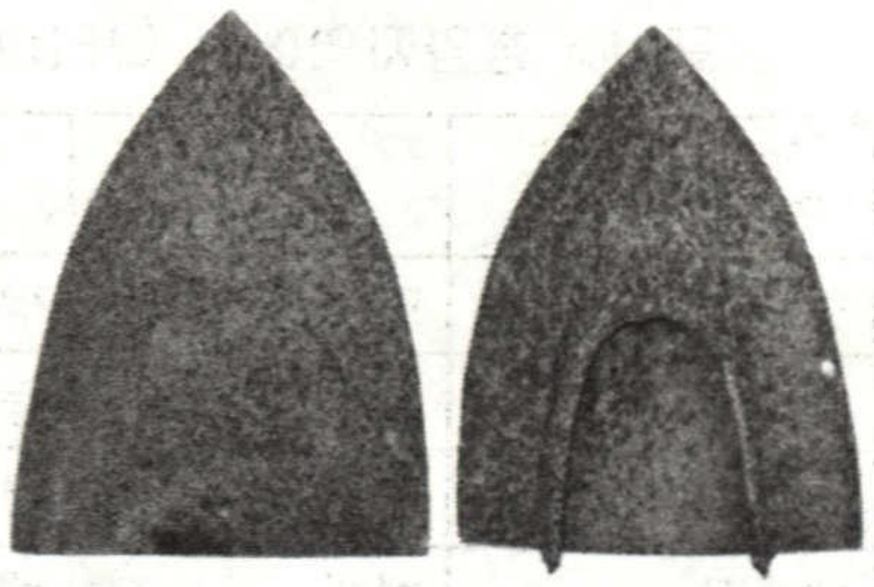
<표 1> 청양지역에서 나타나는 쟁기의 부분명칭

지역 / 명칭	천장리	위라리	정좌 1리
멍에	멍에	멍에	멍에
한태	등태	등태	등태
봇줄	벳줄	벳줄	벳줄
베때끈	벳때	벳때	벳때
물주리막대	방제막대	물뿌레나무	방제
성에	성에	성에	성에
한마루	한마루	한마루	한마루
쟁기줄	쟁기줄	쟁기줄	쟁기줄
볏	벳	베	베
보습	보습	보섭	보습
받침쇠	쇠	받침쇠	쇠
잡좆	잡좆	--	잡좆
손잡이	손잽이	손잡이	손잽이

○ 구조

쟁기의 구조는 소와 연결되는 부분과 땅을 가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와 연결되는 부분을 '성에'라고 하는데, 길고 곧게 뻗은 나무가 사용된다. 땅을 직접 가는 부분을 '술'이라고 하는데, 성에와 삼각형의 각을 이루어 비스듬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에의 길이는 206cm이고 술은 100cm가량이다. 술 끝에

는 땅을 가는 보습이 달려 있고, 보습 위로 흙을 한쪽으로 떠넘기는 '볏'이 달려 있기도 하다.



보습

쟁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직접 가는 부분인 '보습'이다. 보습의 각도와 재질에 따라서 땅을 가는 정도나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돌을 날카롭게 해서 보습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 남아있는 쟁기의 대부분은 철로 만든 보습을 사용한다. 전체적인 무게는 14~15kg정도로 나무의 크기나 보습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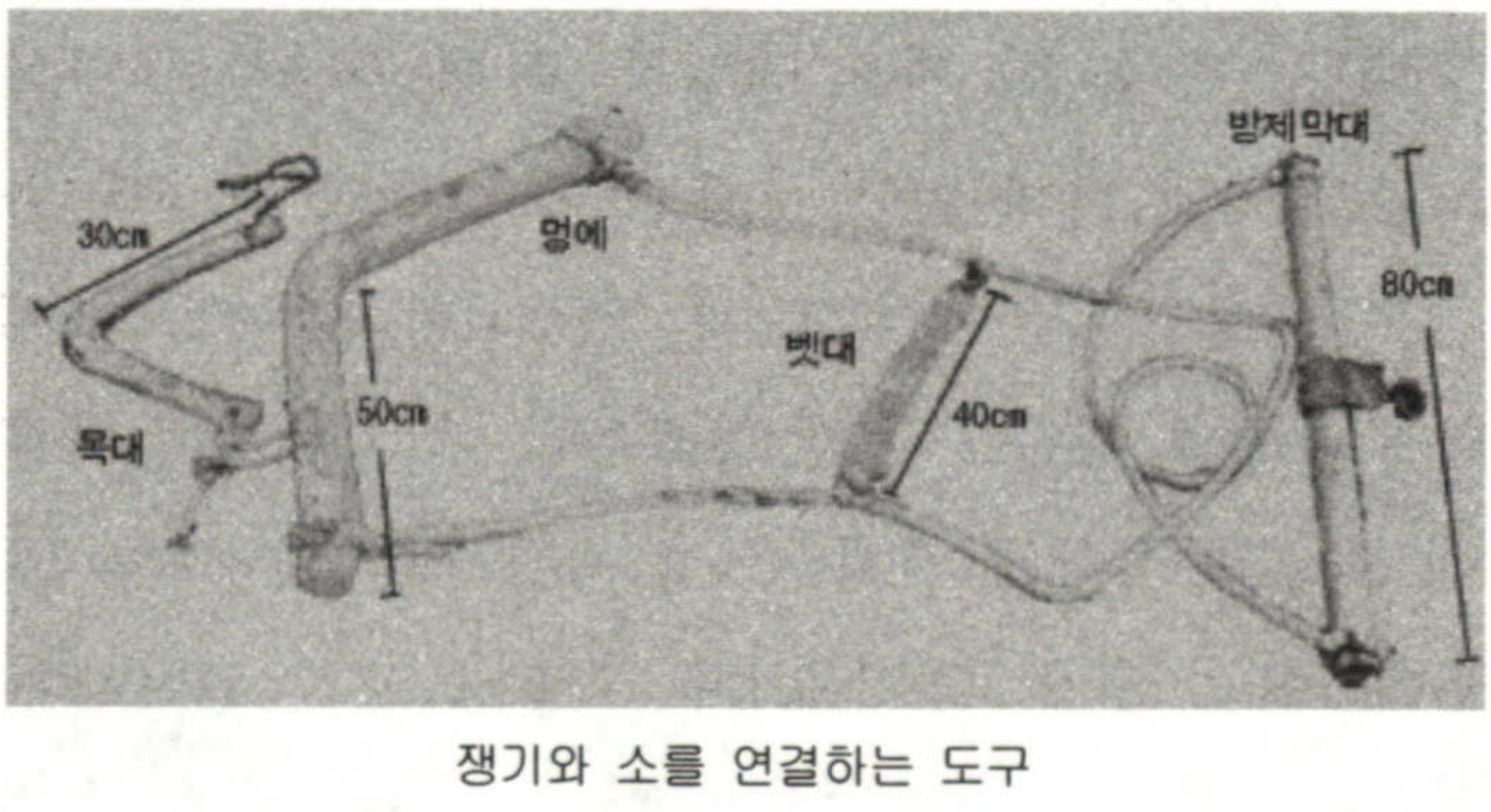
청양에서 나타나는 쟁기는 보습이 술과 연결된 모양에 따라 '논쟁기'와 '밭쟁기'로 나뉜다. 논쟁기는 논갈이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진흙땅을 갈 수 있도록 날이 뾰족하게 서 있다. 또한 보습이 술과 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땅을 퍼 올리는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다. 보습 위에는 볏이 달려 있는데 진흙이 보습에 붙는 것을 막아 쟁기가 잘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반면

밭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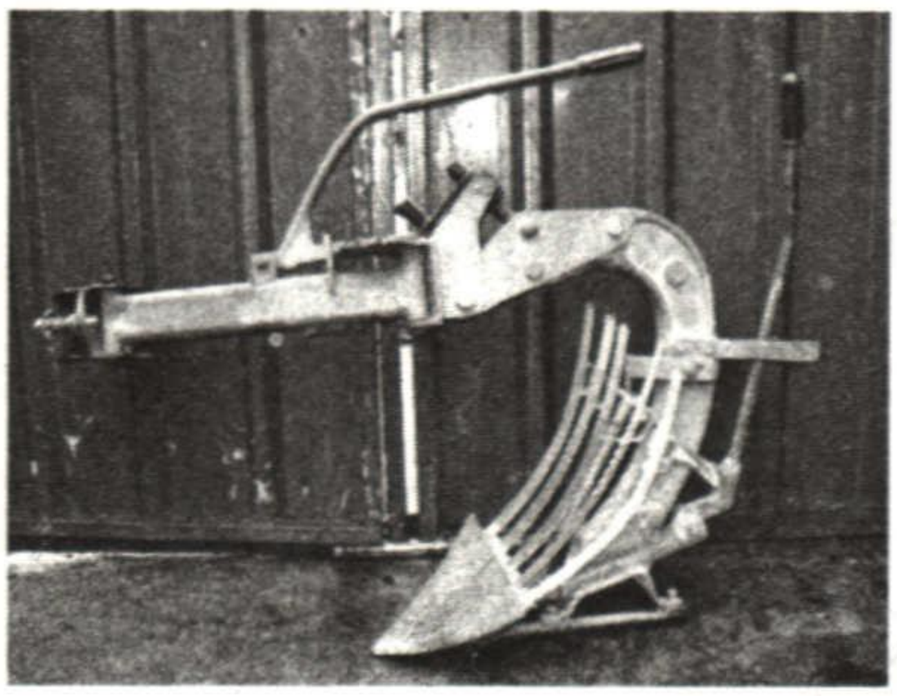
밭쟁기는 밭을 갈 때나 고랑을 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논쟁기에 비해 날이 무딘 편이다. 또한 보습도 논쟁기의 보습과 반대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날이 거꾸로 연결된 듯한 형태이다. 그래서 술에 연결된 보습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는 흙을 밀어내거나 고랑을 파기 용이하다.

볏이 달려 있지 않는 것도 있다.

쟁기가 소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소 엉덩이 부분에 위치하는 방제막대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성에의 끝에 묶어 소와 연결되어 있다. 소의 몸에는 목 부분에 멍에를 올리고 벳줄을 통해 방제막대와 연결시켜줌으로서 소의 힘이 쟁기까지 미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멍에 앞에는 목대를 단다. 방제막대의 길이는 80cm이고, 물푸레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소나무로 만들어진 양 변이 50cm에 130°의 각으로 되어 있다. 목대는 이보다 작은 것으로 30cm의 길이에 70°의 각으로 되어 있다. 소의 배에는 벳줄이 위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벳대가 받쳐져 있다. 벳대의 길이는 40cm 가량이다.



쟁기와 소를 연결하는 도구



경운기에 연결하는 쟁기

지금은 농사에 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진 쟁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경운기에 연결해 사용하는 쟁기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는 나무쟁기와 비슷한데, 성에의 길이가 짧고 성에와 술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전체적으로 모두 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도 차이가 난다. 특히 사진에서 보이는 쟁기는 논쟁기의 모습으로 위의 밭쟁기와 달리 보습이 날카롭고 안쪽으로 오목하게 달려 있으며, 볏이 달려 있는 모습이다.

○ 용도

소를 이용해 논과 밭을 가는데 사용한다. 청양에서는 모두 한 마리의 소를 이용하는 호리쟁기를 사용했는데, 3~5세의 소를 이용해 하루에 논 800여 평, 밭 700여 평 정도 갈 수 있다.

○ 제작 및 구입관계

1960년대 초반까지 마을의 목수를 불러 일당을 주고 쟁기를 만들었다. 참나무나 박달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 직접 제작하였는데, 보통 목수 한 사람이 제작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하루 반나절 정도였으며 삯은 1500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볏과 보습은 정산 시장에서 500원 정도에 구입하여 몸체에 붙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완제품을 그대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완제품의 가격은 보통 2500원~3000원이다.

○ 수명 및 수선

쟁기의 몸체는 부러지지 않는다면 보통 15~2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면 볏과 보습은 논밭을 갈다가 돌에 걸려 날이 부러지는 경우가 잦아 일 년에 2~3개 정도를 갈아 끼워야 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 운곡면 위라리, 복진용(남, 78세), 2006. 7. 6.
- 청양읍 정좌1리, 이갑술(남, 73세), 2006. 7. 7.

(2) 극쟁이

극쟁이는 경남지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쟁기와 같이 논과 밭을 가는데 사용된다. 극젱이, 훌쩡이, 흙쟁이, 굽쟁이, 훌쳉이, 술챙이, 훌치기, 훌청이, 후치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 극젱이도 쟁기와 같이 소를 이용해 땅을 가는 것으로 구조와 기능도 쟁기와 유사하다. 단지 볏이 없으며 보습도 쟁기에 비해 무딘 편이다. 쟁기가 사용되는 논이나 밭에서 함께 쓰이며 주로 좁고 험한 곳을 얕게 갈 때나 쟁기로 갈아 놓은 논밭에 골을 만들 때 이용된다. 밭을 갈 때는 하루에 700~800평을 갈 수 있으며, 논의 골을 팔 때는 하루에 1,000평 정도를 작업할 수 있다.

○ 명칭

청양에서는 모두 극젱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부분적인 명칭들은 쟁기와 비슷하다.

○ 구조

극쟁이는 구조에 있어서 쟁기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볏이 없고 보습도 쟁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무딘 편이다. 또한 쟁기와 같이 잡좆이

달려 있지 않고 술에 양쪽 손잡이가 있다. 술, 성에, 한마루가 이루는 삼각 모양이 쟁기의 형태와 흡사하지만 보습이 쟁기의 것처럼 휘어져 있지 않으며 술과 이어지는 부분의 곡선이 비교적 완만하다. 전체적인 무게는 쟁기보다 조금 가벼워 13kg(정산면 천장리)정도이다.

○ 용도

논밭을 얕게 갈거나 골을 만들 때 이용되는데 주로 밭을 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 주로 좁고 험한 곳을 얕게 갈 때나, 쟁기로 갈아 놓은 논·밭의 골을 만들 때 사용한다.

○ 기능

논의 골을 팔 때에는 하루에 1000여 평, 밭을 갈 때에는 800여 평을 갈 수 있다.

○ 제작 및 구입관계

몸체는 참나무를 재료로 사용하여 마을 목수를 불러와 직접 제작하였으며, 소요되는 시간은 목수 한사람을 기준으로 하루 정도이다. 삯으로 보통 곡식 한

말을 제공해주었다고 한다. 보습은 정산시장에서 개당 300원에 구입, 몸체에 붙여 사용한다. 극젱이의 보습 역시 부러지는 경우가 잦으므로 구입할 때 보통 4~5개 정도를 구입하여 필요할 때마다 갈아 끼워 준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3) 가래

가래는 흙을 떠서 한쪽으로 던져 옮기는 도구이다. 진흙밭이나 논을 갈 때 많이 사용하며, 흙을 깊이 파거나 논둑、밭둑을 쌓을 때도 요긴하게 사용된다. 특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논둑이 새거나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한식이나 청명 무렵에 논둑을 수리하는데, 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가래이다.

가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두 사람은 가래와 연결된 줄을 양쪽에서 잡고, 한 사람은 자루를 잡는다. 그리고 줄을 잡은 사람이 앞쪽에 서고 자루를 잡은 사람이 뒤쪽에 서서

박자를 맞추어 흙을 퍼서 던진다. 흙을 파고 옮기는 힘이 많이 필요할수록 줄을 잡은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 성인남성 세 사람이 가래질을 하면 하루에 500~600평의 밭을 갈 수 있다.

○ 명칭

청양에서는 모두 가래라고 부른다. 각 부분은 다음 그림과 같다. 자루는 '가래장치', 삽날은 '가래날', 삽날의 쇠고리는 '가래고리', 밧줄은 '가래줄'이라고 한다.

○ 구조

가래의 부분명칭과 구조

가래의 구조는 나무로 만든 긴 자루와 납작한 몸판, 그리고 날로 구성되어 있다. 자루는 가래장치라고 하는데, 255cm로 길다. 가래장치 끝에는 가로30cm, 세로 40cm의 가래몸판이 달려 있다. 가래장치와 가래몸판은 하나의 나무로 되어 있다. 몸판의 위쪽에는 양편에 구멍을 뚫어 쇠고리를 걸고 줄을 이

어놓았고, 몸판의 끝에는 말굽형으로 생긴 날을 달아서 땅이 파이도록 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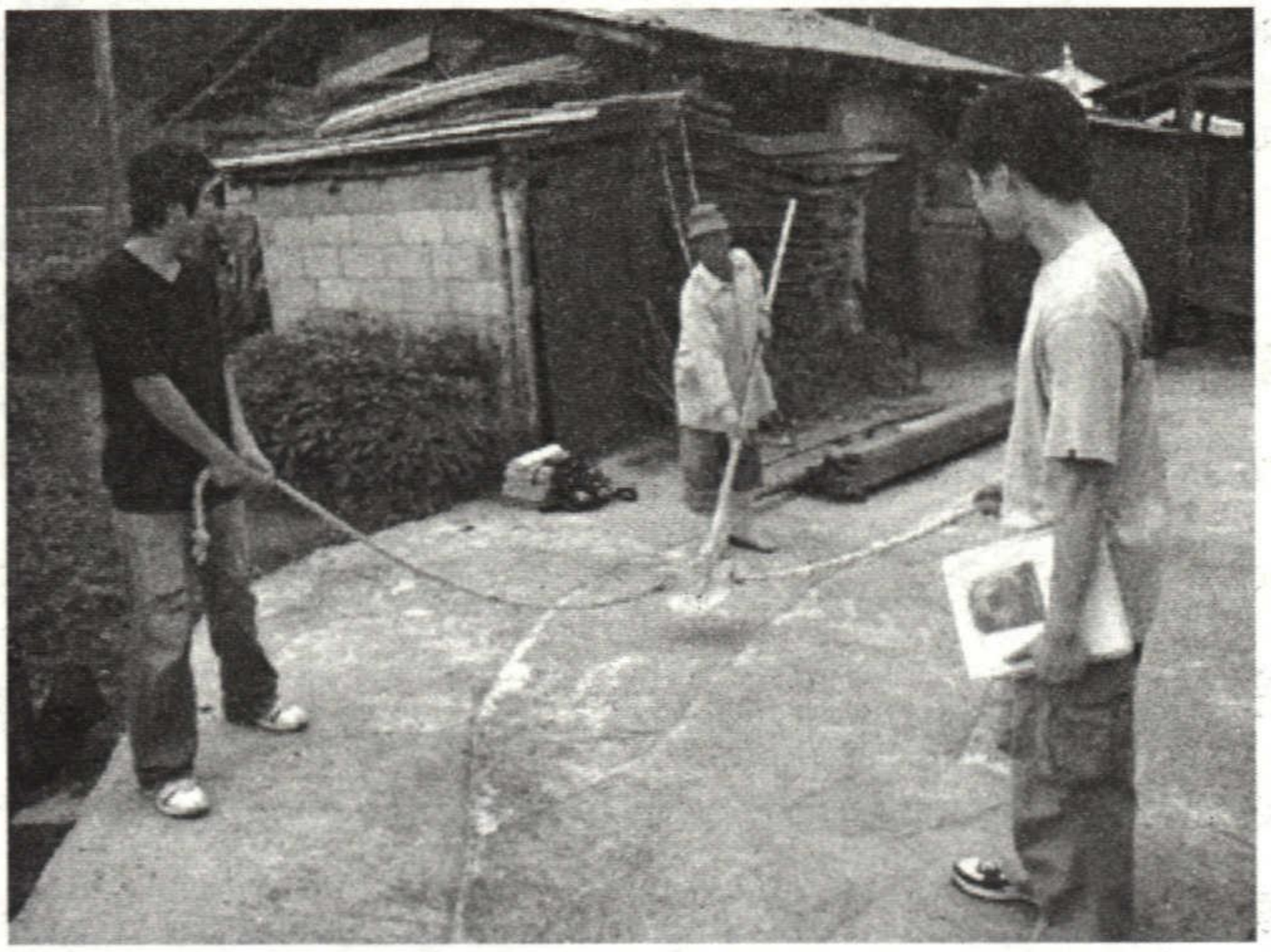
줄꾼 두 사람과 자루를 잡는 한 사람, 모두 세 사람이 함께 가래질을 한다. 이를 세손목한 카레라고 한다. 줄을 두 사람씩 잡으면 다섯손목한 카레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 가래질을 한다. 자루를 잡은 자루잡이가 가래날을 땅에 파 넣어 흙을 앞으로 밀면 동시에 줄꾼 두 사람이 끈을 앞으로 당긴다. 이렇게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앞뒤로 가래와 줄을 흔들며 가래질을 한다.

사람이 직접 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 무게는 3~4kg 정도로 가벼운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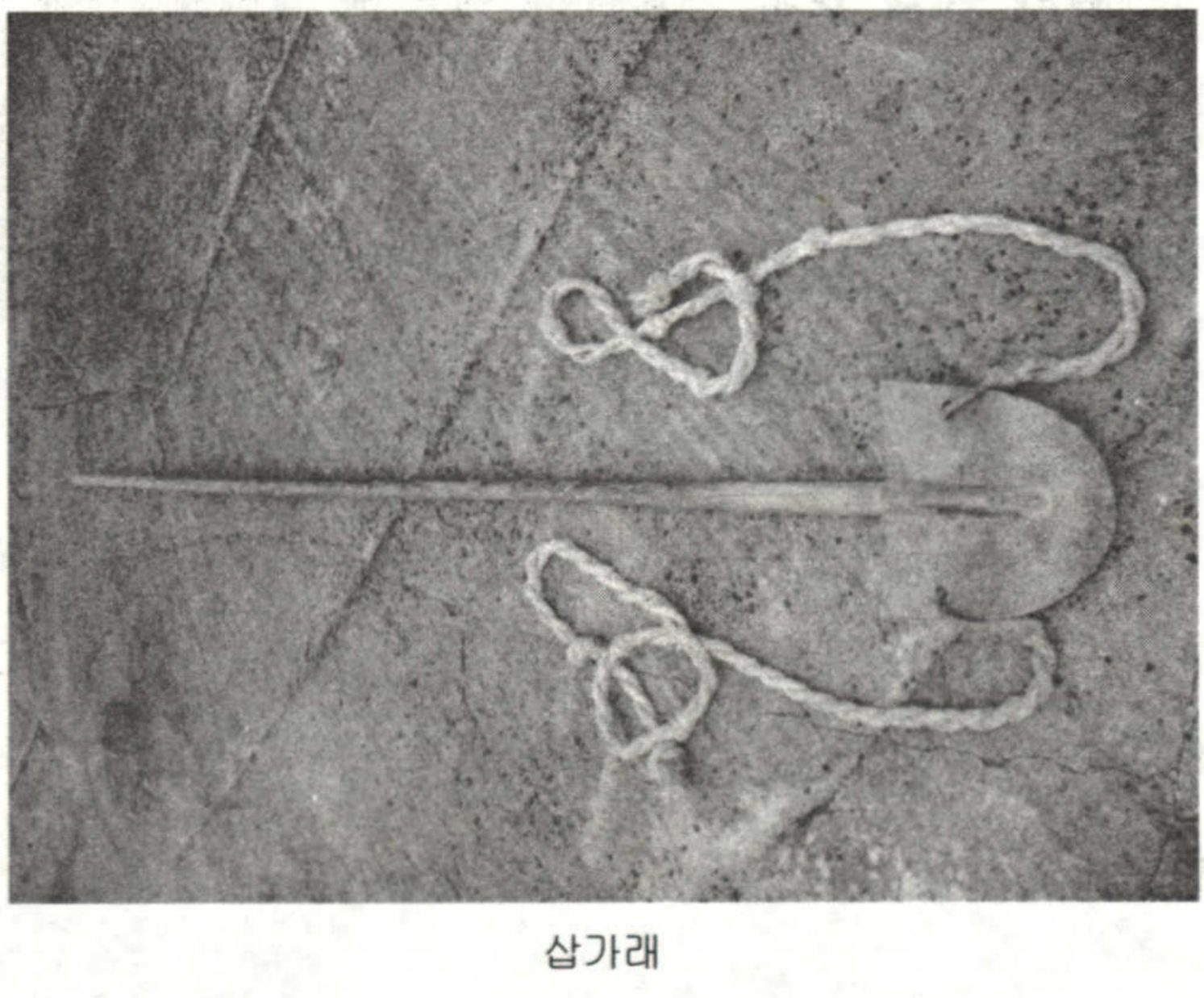
* 정산면 천장리 - 3.6kg
  청양읍 정좌1리 - 3.3kg

○ 용도

논밭의 흙을 깊이 파거나 또는 논둑에 흙을 쌓을 때, 논을 갈 때에도 사용한다. 작업 방식이 간단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흙을 퍼내는 다양한 작업에서 이용된다.



가래질 하는 모습



삽가래

○ 제작 및 구입관계

가래는 쟁기와 마찬가지로 목수를 불러서 만드는 농기구이다. 그런데 가래는 긴 자루와 몸체가 하나의 나무로 되어 있어 재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삽날가래는 삽날에 자루를 끼우고 밧줄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이 비교적 간단하다.

○ 수명 및 수선

기존에 사용하던 나무가래는 말굽형태의 날을 나무판에 끼워 쓰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수명이 최대 10년까지 지속되었으나, 현재 사용하는 날은 철판의 두께가 얇은 편이라 5년이상 사용하기 힘들다. 삽날이 닳거나 부러질 경우에는 정산 시장에서 구입하여 교체했고, 자루가 부러질 경우에는 다시 만들었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 청양읍 정좌 1리, 이봉운(남, 69세), 2006. 7. 7.
- 운곡면 위라리, 김종갑(남, 71세), 2006. 7. 6.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4) 괭이

괭이는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ㄱ' 자 모양의 날과 자루로 이루어진 간단한 형태이다. 논밭을 가는 것 외에도 밭의 흙을 일구거나 덩어리진 흙을 깨트리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집에 2~3개의 괭이를 가지고 있다.

괭이의 날은 각 지역의 토질에 따라서 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돌이 많고 거친 토양이 있는 곳에서는 괭이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끝이 뾰족하고 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토질이 좋은 평야지역에서는 나뭇잎 모양의 날이 사용된다. 청양지역에서는 괭이, 육철괭이, 가진잎괭이, 곡괭이, 담배괭이가 조사되었다.

① 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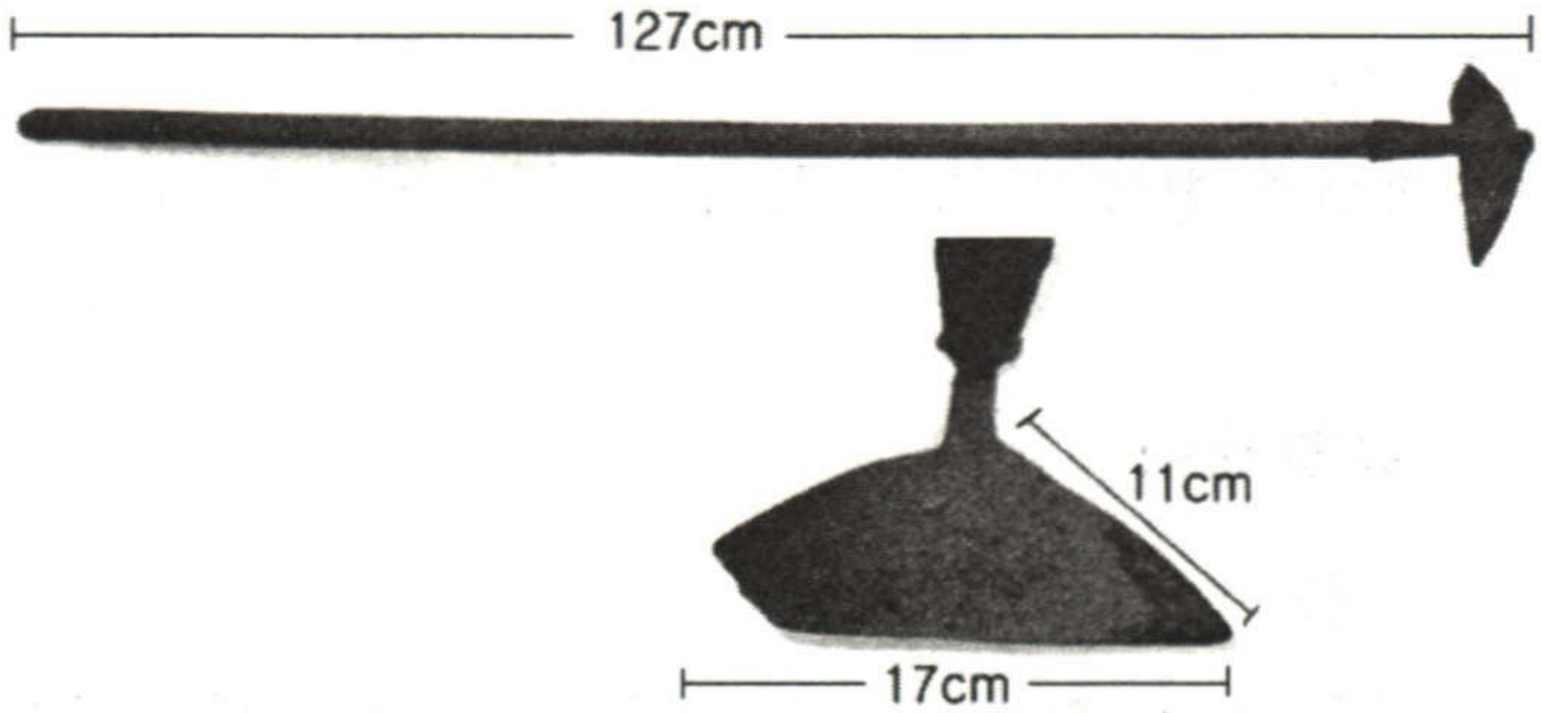
○ 명칭

괭이라고 부르는데 손잡이는 자루라고 하고, 땅을 파는 부분은 괭이날 이라고 한다.

○ 구조

자루의 길이는 127cm로 소나무로 만들어졌다. 괭이날은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자루와 연결된 부

분에서 끝으로 오면서 점차 넓어진다. 가장 넓은 부분의 날은 17cm로, 이 부분으로 땅을 고른다. 날과 자루는 60°정도의 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적인 무게는 1.9kg이다.



괭이

○ 용도

밭을 얕게 갈고 땅을 고르거나 씨를 뿌리고 덮는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날은 60년 전에 정산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1년에 2번 정도 날을 간다. 소나무로 된 자루는 근처 산에서 적당히 구하여 깎아 만든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날은 1년에 두 번 정도 갈아서 사용하며, 부러지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루는 보통 3년 정도 사용하면 닳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년 정도 사용하면 새 자루를 만들어 교체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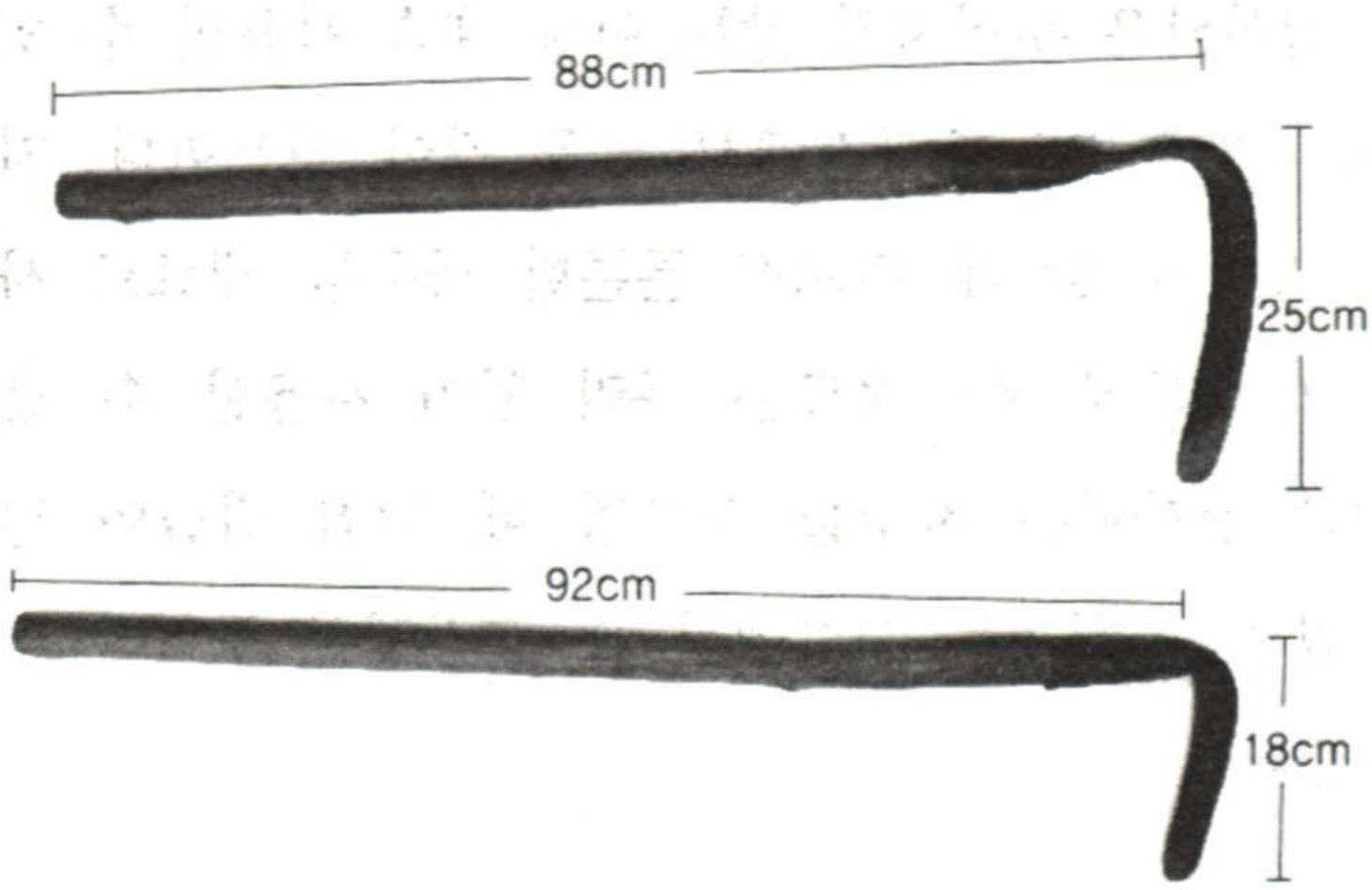
② 육철괭이

○ 명칭

육철은 철을 직접 두드려 만든 것으로 단단하지만 무게가 무겁다. 따라서 힘이 많이 필요한 농기구에 사용되는데, 육철로 낫을 만들면 잘 부서지지 않는다.

○ 구조

자루의 길이는 짧은 것은 88cm, 긴 것은 92cm로 은행나무로 만들어졌다. 날은 'ㄱ'자로 구부러져 있으며, 날의 폭은 큰 것은 10cm, 작은 것은 7cm로 일정하다. 날의 두께가 다른 괭이에 비해 매우 두껍고 단단해 단단한 땅을 깊게 팔 수 있다. 무게는 2.2kg 정도로 다소 무거운 편이다.



육철괭이

○ 용도

밭을 갈고 일구는데 사용한다. 거친 밭의 딱딱한 흙을 깨뜨릴 때 사용하기도 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일반적으로 날은 시장의 대장간에서 구입하고, 자루는 직접 제작하여 연결해 사용한다. 천장리에서 조사된 괭이는 50년 전 소장자가 정산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괭이날은 부러지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에 2번 대장간에서 날을 갈아 사용한다. 자루는 제작을 할 때 비교적 튼튼한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5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년 전까지는 자루를 교체할 때 직접 만들어 날에 끼웠으나, 현재는 시장에서 괭이 전체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 남양면 온암리, 김의욱(남, 66세), 2006. 7. 7.

③ 가짓잎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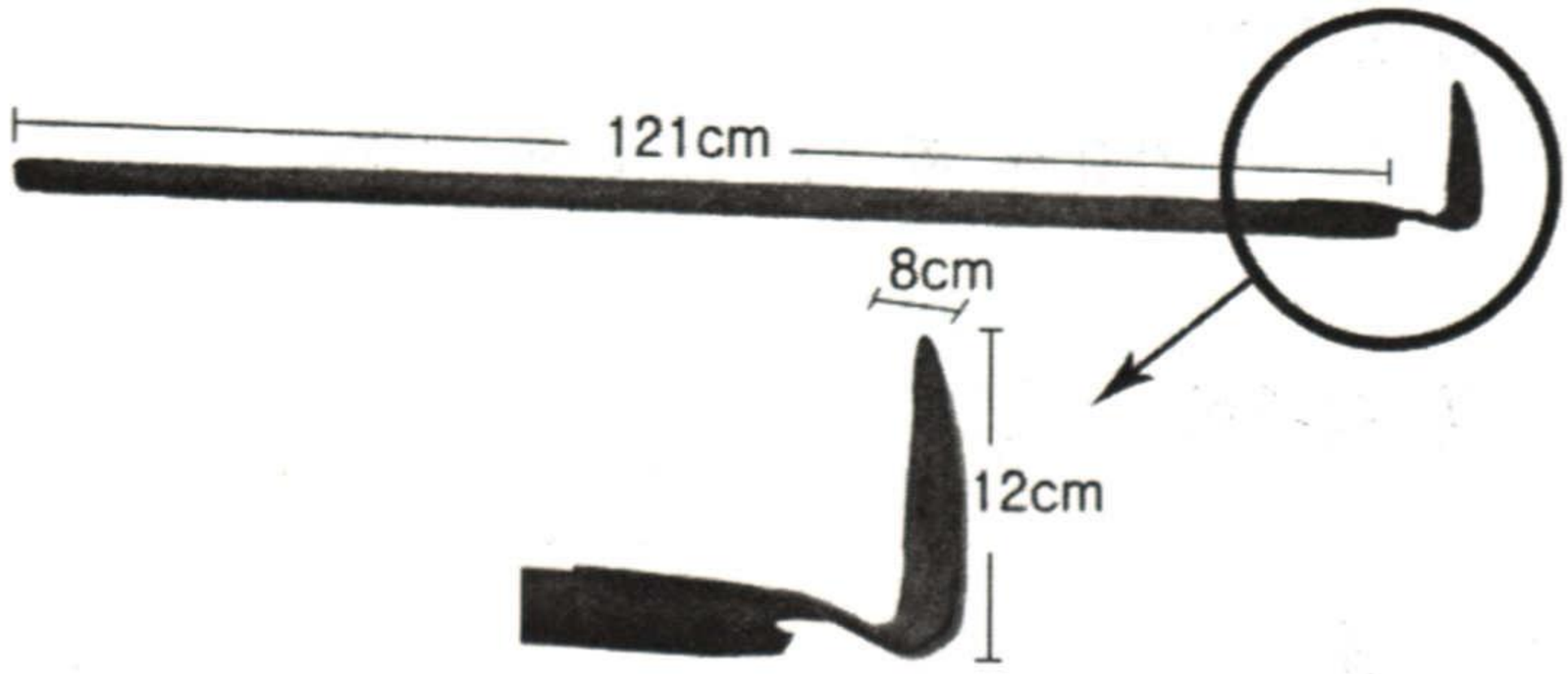
○ 명칭

괭이날이 나뭇잎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가짓잎괭이'라고 한다.

○ 구조

괭이는 삼각형 모양의 괭이날과 날에 끼워진 자루로 이루어져 있다. 자루는 121cm이고, 날은 자루와 연결된 쪽이 넓고 끝으로 갈수록 점점 뾰족해진다. 날의

길이는 12cm이고, 폭은 가장 넓은 부분이 8cm이다. 날과 자루는 약 70°의 각도로 연결되어 있다. 무게는 1kg이다.



가짓잎괭이

○ 용도

가짓잎괭이는 밭에서만 사용하는 도구로, 주로 쇠스랑으로 밭을 편평하게 한 후에 밭의 골을 놀 때 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괭이날은 40년 전에 정산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며, 자루는 집 근처에 있는 산에서 참나무를 베어와 깎아 만든 것을 날에 끼워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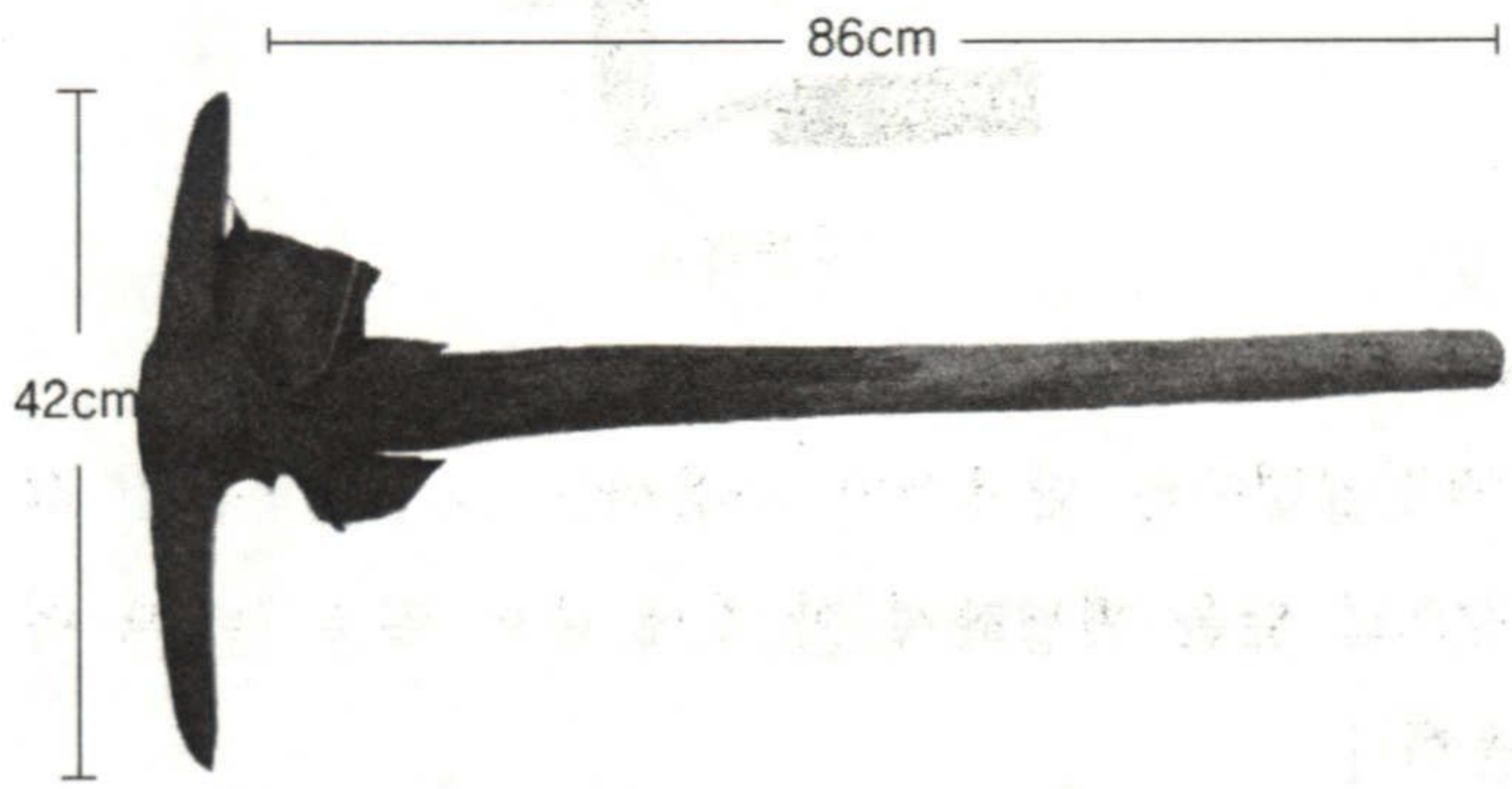
○ 수명 및 수선

괭이날은 부러지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에 2번 대장간에서 날을 갈아 사용한다. 자루의 경우 3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④ 곡괭이



곡괭이

○ 명칭

곡괭이라고 한다.

○ 구조

곡괭이날은 가운데 부분은 두껍고 양쪽 끝이 뾰족한 눈썹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운데 가장 두꺼운 부

분에 자루가 직각으로 박혀있다. 날은 42cm이고, 가장 두꺼운 부분의 폭은 6cm이며, 무게는 3kg으로 무거운 편이다.

○ 용도

딱딱한 땅을 파거나 깨뜨리는 데 주로 사용된다.

○ 제작 및 구입 관계

날은 80년 전에 소장자의 조부가 구입한 것을 물려받은 것이며, 자루는 10년 전에 참나무를 깎아 직접 제작한 것을 날의 괴통에 끼워 맞춘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괭이날은 부러지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일년에 한 번 대장간에서 날을 갈아 사용한다. 자루의 경우 10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러지거나 닳아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시 직접 제작하여 날에 끼워 맞춘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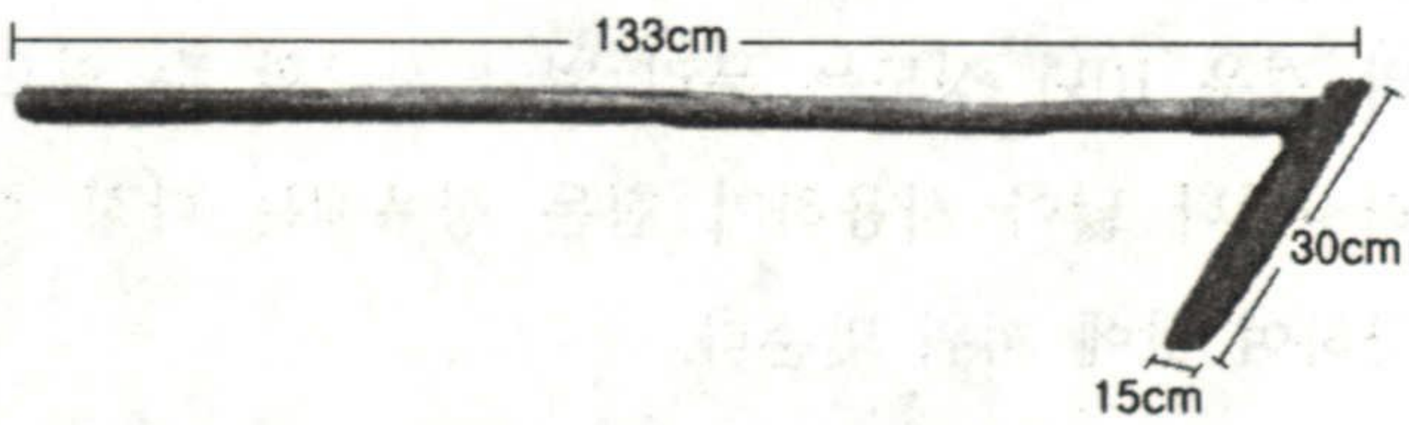
⑤ 담배괭이

○ 명칭

담배밭을 갈 때 사용하는 괭이라고 해서 담배괭이라 한다.

○ 구조

괭이는 직사각형 모양의 괭이날과 날에 끼워진 자루로 이루어져 있다. 날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이며, 폭은 15cm, 길이는 30cm이다. 날의 두께가 매우 얇다. 뒷부분 가운데에 홈이 파여져 있어, 앞쪽에서 보면 날 가운데가 툭 튀어 나와 있다. 자루는 133cm로 날과 60°로 연결되어 있다. 무게는 1.8kg정도 이다.



담배괭이

○ 용도

담배밭의 둑을 만들거나 밭을 갈고 일구는데 주로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괭이날은 30년 전에 정산시장의 대장간에서 구입한 것이며, 자루는 낙엽송을 사용하여 직접 제작한 것을 끼워 맞춘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날은 부러지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일년에 한번 대장간에서 날을 간다. 자루는 보통 5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자루가 부러질 때에는 다시 제작하여 끼워 맞춘다.

○ 소장자

- 운곡면 위라리, 김종갑(남, 71), 2006. 7. 6.

(5) 쇠스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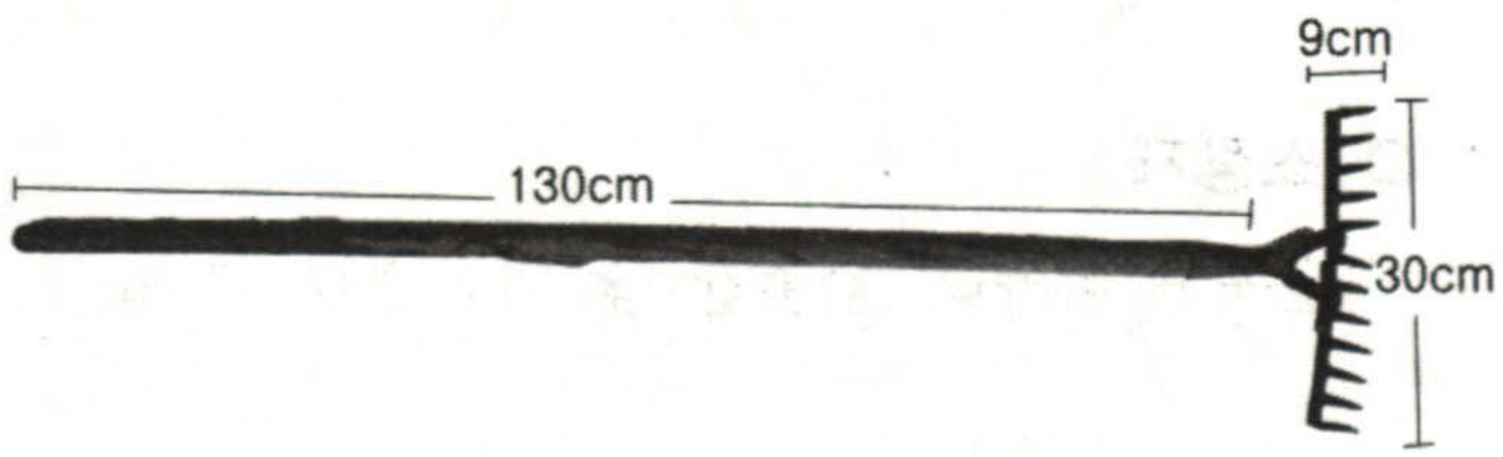
쇠스랑은 갈퀴 모양의 쇠를 'ㄱ'자로 만들어 덩어리진 흙을 깨뜨리고, 흙을 고르는 도구이다. 또한 논둑을 쳐내거나 새로 붙일 때, 흙을 긁어 올릴 때, 밭에 골을 타서 반반하게 할 때, 씨를 뿌린 후에 흙을 덮을

때도 사용하며, 감자나 고구마 등을 캘 때도 사용한다. 지역마다 쇠스랑, 소시랑, 소스랑, 쇠시랑, 소스랭이, 쇠서랑, 철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갈퀴모양의 쇠가 2개인 것에서부터 5개가 달린 것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① 소시랑

○ 명칭

청양지역에서는 보통 소시랑이라고 한다. 나무로 만들어진 손잡이는 자루라고 하고, 쇠로 만들어진 빗의 형태는 '발'이라고 부른다.



소시랑

○ 구조

쇠로 만들어진 발과 자루로 이루어져 있다. 자루는 계목나무로 만들어졌고, 130cm로 길다. 발은 쇠로 된 12개의 발이 달려있으며 가로 30cm에 세로는 9cm이다. 무게는 1.2kg이다.

○ 용도

논에서 씨를 뿌리기 전에 논을 가는데 주로 사용되었으며, 밭을 가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자루는 10년 전에 계목나무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한 것이며 소시랑날은 같은 시기에 정산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날은 부러지지 않는 이상 5~6년은 사용할 수 있다. 날이 작고 얇기 때문에 날이 무뎌졌을 경우에 갈아 쓰지 않고 새로 구입한다. 자루가 부러지면 근처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다 다시 제작하여 끼워 맞춘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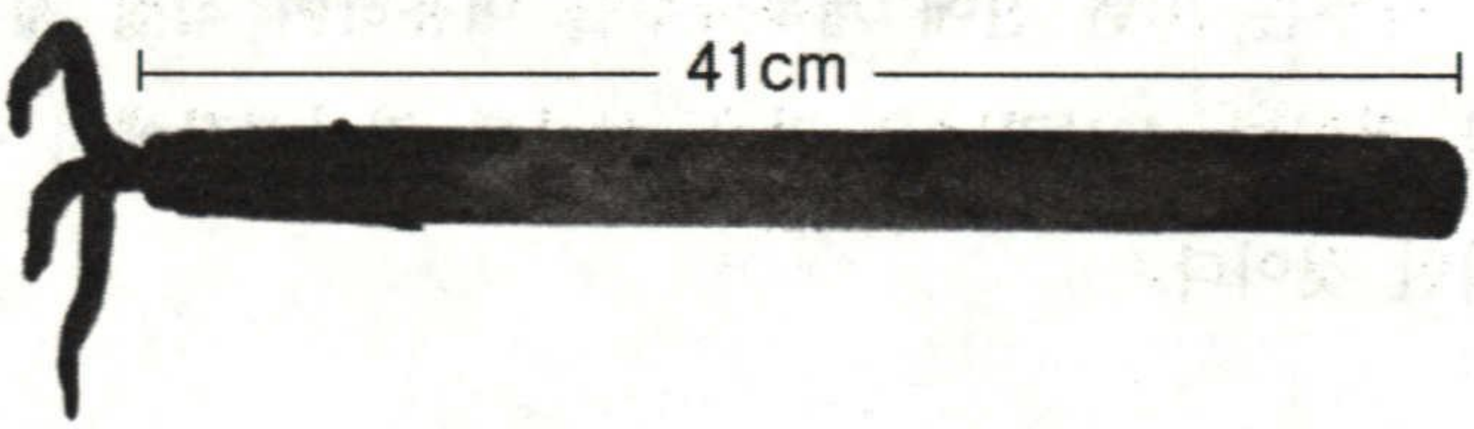
② 소여물소시랑

○ 명칭

소여물을 끓이거나 옮길 때 사용하는 소시랑이라고 해서 '소여물소시랑'이라고 부른다.

○ 구조

자루는 41cm로 다른 소시랑에 비해 짧고 소나무로 만들어졌다. 발은 길이가 11cm 이고, 전체 폭은 9cm 이다. 무게는 700g으로 가볍다.



소여물소시랑

○ 용도

소여물을 긁어모으고 삶은 소여물을 구수로 옮길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자루는 8년 전에 소나무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한 것이고, 소시랑날은 같은 시기에 정산 시장에서 구입하여 끼워 맞춘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날이 굵기 때문에 무디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갈아 사용하며, 자루가 부러지거나 닳게 된 경우에는 근처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와 직접 제작하여 다시 끼워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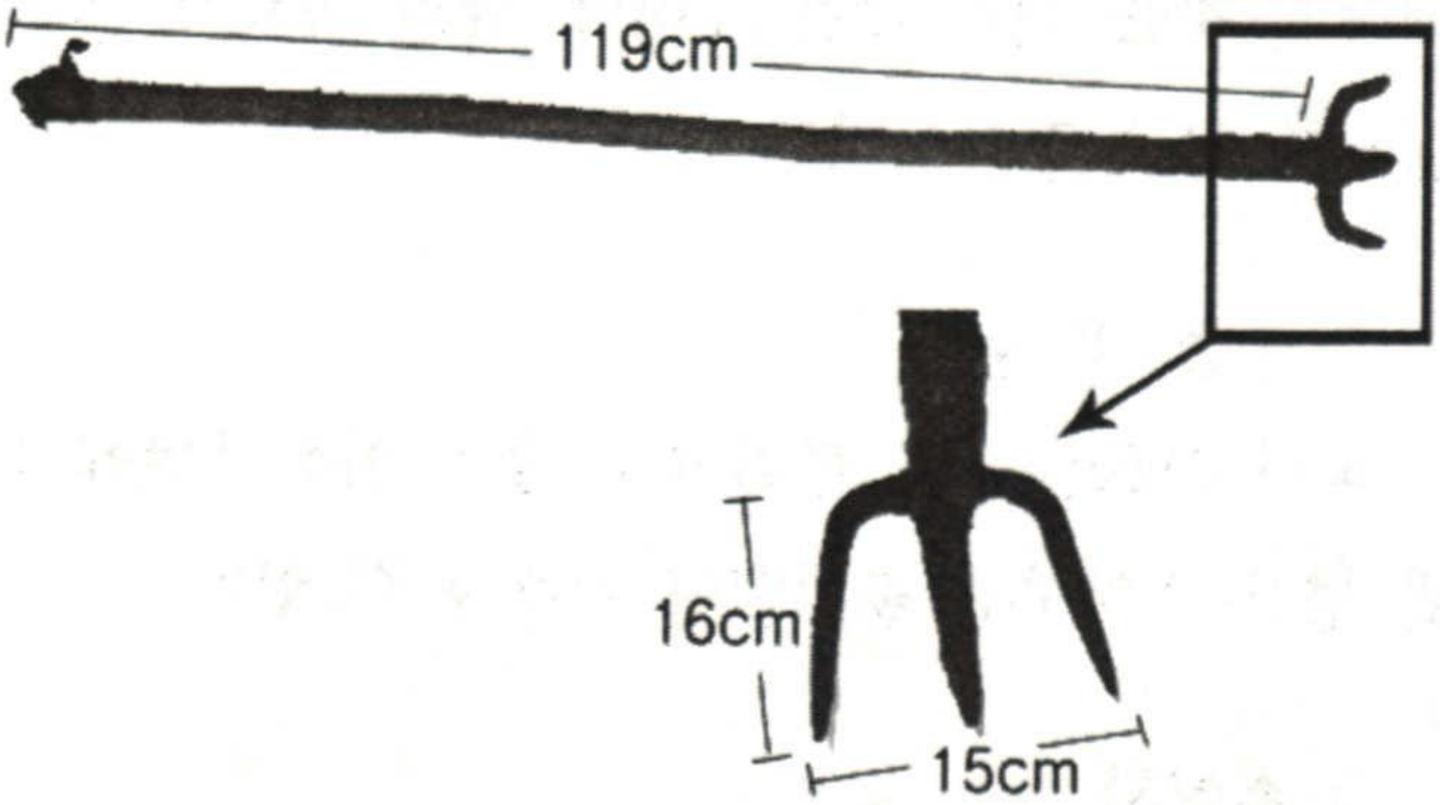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③ 세발소시랑

○ 명칭

날에 발이 세 개 달려 있다고 해서 '세발소시랑'이라 부른다.



세발소시랑

○ 구조

쇠로 만들어진 3개의 발이 있고, 그 가운데에 자루가 끼워진 형태이다. 발의 길이는 16cm이고, 은행나무로 만들어진 자루는 119cm이다. 전체 무게는 1.7kg이다.

○ 용도

밭을 갈 때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소시랑날은 40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며, 자루는 집 근처 산에서 은행나무를 베어와 직접 제작한 것을 끼워 맞춘 것이다. 날과 자루가 분리되지 않도록 끈을 감아두기도 한다.

○ 수명 및 수선

소시랑날은 날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1년에 1번씩만 날을 갈아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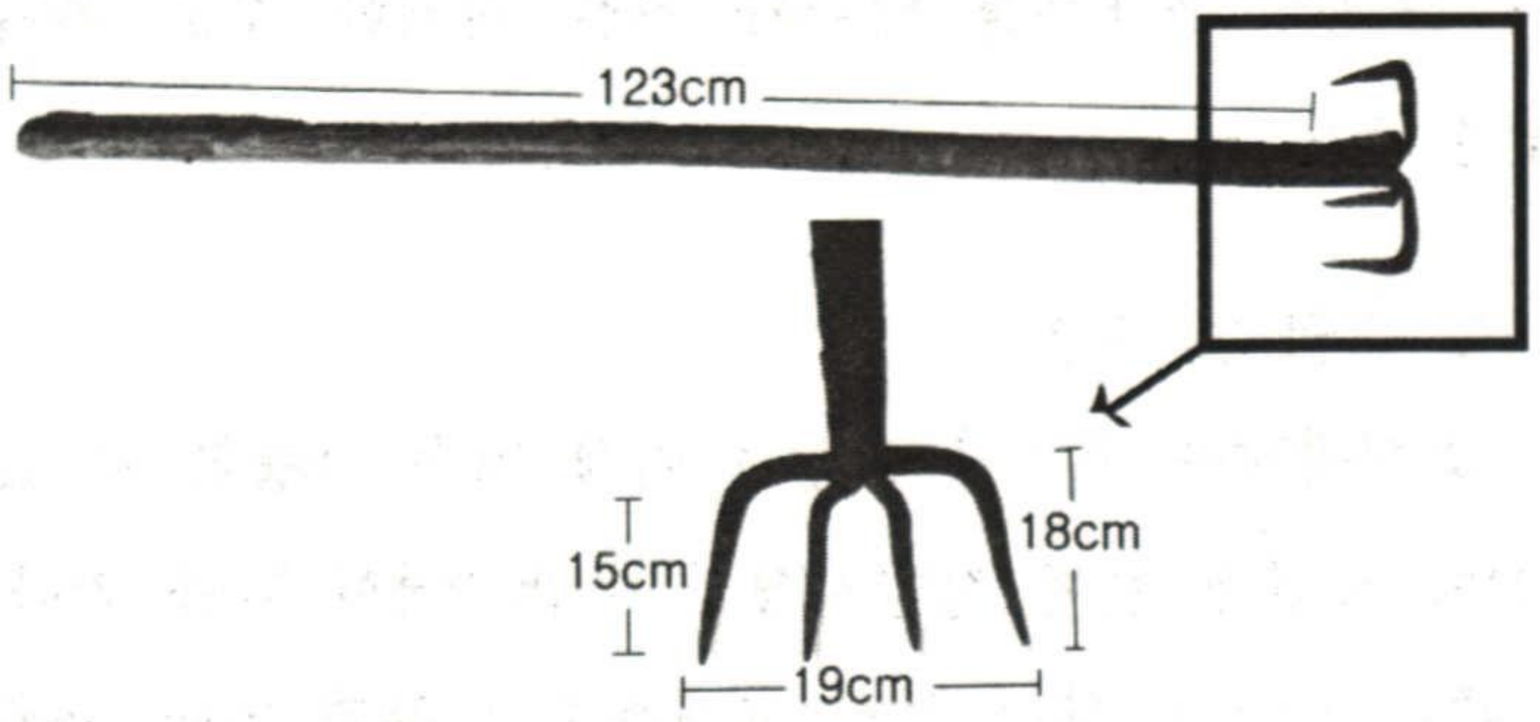
○ 소장자

- 청양읍 정좌1리, 이봉운(남, 69세), 2006. 7. 7.

④ 네발소시랑

○ 명칭

날에 발이 네 개 달려 있다고 해서 '네발소시랑'이라 부른다.



네발소시랑

○ 구조

쇠로 만들어진 4개의 발에 직각으로 자루가 연결되어 있다. 발의 길이는 양쪽 끝은 18cm이고, 가운데 두 개는 15cm로 조금 짧다. 전체 발의 폭은 19cm이다. 자루는 123cm로 길고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무게는 1.6kg이다.

○ 용도

비교적 무른 밭을 갈 때와 소 우리를 청소할 때 주

로 사용하였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소시랑날은 60년 전에 소장자의 조부가 청양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며, 자루는 15년 전에 소장자가 집 근처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와 직접 제작한 것을 끼워 맞춘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소시랑날은 부러지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일년에 한번 청양시장의 대장간에서 날을 간다. 자루는 10년에 한번 정도 교체해주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소장자

- 청양읍 정좌1리, 이봉운(남, 69세), 2006. 7. 7.

2) 삶는 도구

쟁기로 뒤엎은 논밭은 울퉁불퉁하고 골이 깊어 모를 낼 수 없다. 따라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 땅을 편평하게 다듬는데 이를 '논 삶기'라고 한다. 과거에는 대체로 곡우(穀雨)무렵에 행해졌으며, 현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4월 15일 전후로 끝난다.

논을 삶을 때는 먼저 마른 논에 물을 대고 쟁기질을 한 다음, 써레로 삶아 큰 흙덩이를 부순다. 그리고 다시 써레번지질을 하여 땅을 편평하게 고른다. 써레 대신에 곰방메와 고무래를 사용하기도 한다.

(1) 써레

써레는 논이나 밭의 흙덩이를 부수거나 바닥을 편평하게 고를 때 사용하는 농기구로 논에서 사용하는 써레를 '무논써레', 밭에서 사용하는 것을 '마른써레'라고 한다. 쟁기와 함께 농사를 지을 때 필수적인 도구로, 특히 논농사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반드시 써레질을 해야 한다. 모내기를 하기 전, 논에 물을 대고 쟁기질을 해서 농토를 진흙 펄로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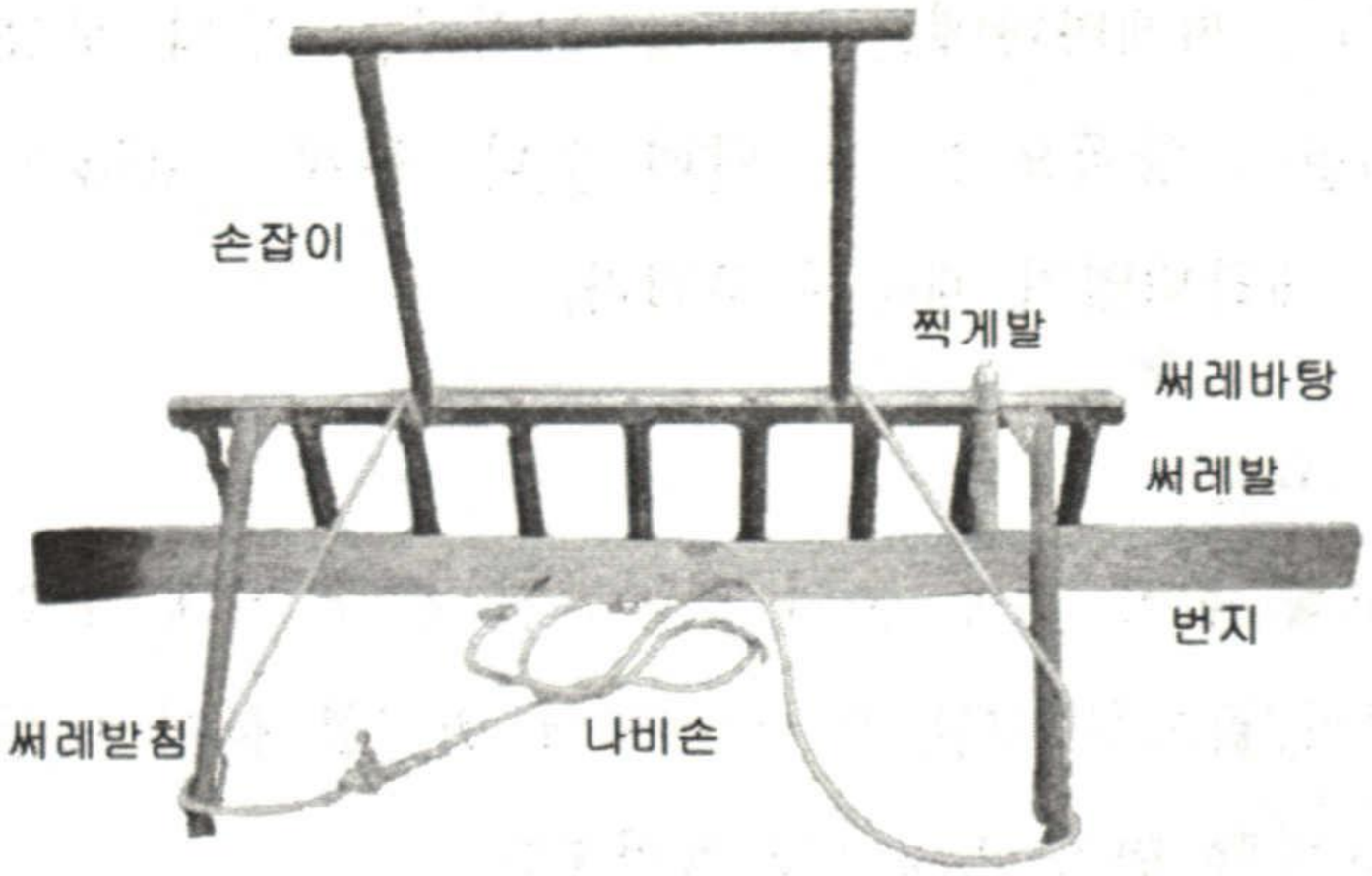
그리고 써레질로 덩어리진 흙을 부순 다음 '번지'를 이용해 써레번지질을 한다. 이렇게 하면 논바닥이 편평해져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번지는 따로 편평한 나무판에 손잡이를 달아서 만들어 쓰기도 하고, 써레발에 나무판을 달아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써레의 발과 발 사이에 새끼줄을 감아서 끌기도 한다. 써레는 쟁기와 함께 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농기구로 성인 남자가 힘이 좋은 소를 데리고 일하면 하루에 논 2,000평 정도를 고를 수 있다.

써레는 길고 두꺼운 나무에 작고 가는 나무를 빗과 같이 일렬로 8개~10개 정도 박고, 몸체에는 소의 멍에와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래 나무로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철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 명칭

청양에서는 써레 또는 '쓰레'라고 한다. 써레는 크게 'ㅠ'자 모양의 손잡이 아래에 '써레바탕'이 있고, 여기에 빗처럼 생긴 '써레발'이 달려 있다. 그리고 써레바탕에는 '써레받침'이 연결되어 있으며, '나비손'이라 불리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 써레발에는 '번지'를 달아 사용하기 하는데, 번지를 고정하는 찍게

발이 마련되어 있다.



써레

○ 구조

본래 나무로 써레를 만들어 사용했으나 쉽게 썩고 보관이 힘들어 요즘에는 철 파이프를 용접해 사용한다. 전체적인 틀은 나무써레와 동일하다. 사람이 써레를 잡고 밀고 가는 'ㅠ'자 모양의 손잡이는 가로 67cm의 파이프에 46cm의 막대를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 120cm의 써레바탕에 27cm 써레발 9개를 고르게 단다. 또한 써레바탕에는 53cm의 써레받침이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나비손이

라는 줄을 메어 멍에와 연결한다. 써레발 앞에는 번지가 달려있는데, 번지는 140cm의 소나무로 만든 나무판이다. 써레바탕에는 번지를 고정하는 'Y'자 모양의 찍게발이 양쪽으로 2개 달려 있다. 무게는 16kg으로 철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무겁다.

○ 용도

모를 심기 전에 논의 덩어리진 흙을 잘게 부수어 논물과 골고루 섞은 후, 써레발에 번지를 붙여 써레질한 논바닥 면을 평평하게 골라준다.

○ 제작 및 구입관계

30년 전에 청양시장의 대장간에 주문해서 구입한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는 물푸레나무, 버드나무, 소나무를 이용하여 써레를 직접 제작하였다고 한다.

○ 수명 및 수선

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선이 필요 없다. 1980년대에 경운기가 나오면서 20년 전부터는 더 이상 써레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트랙터를 이용한다.

○ 소장자

- 청양읍 정좌1리, 이갑술(남, 73세), 2006. 7. 7.

(2) 곰방메

논밭의 흙덩이를 깨뜨리고 땅을 고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메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나무의 가운데에 자루를 담아 마치 망치처럼 만든 것으로 논에 말뚝을 박거나 논둑을 단단히 다질 때도 사용한다. 성인 남성 한 사람이 하루에 밭 500~600평 정도를 고를 수 있다.

매갱이

○ 명칭

청양에서는 매갱이라 한다.

○ 구조

둥글고 큰 타원형의 나무 가운데에 자루를 직각이 되도록 박았다. 내리치는 부분과 자루는 T자를 이룬다. 4kg정도로 통나무로 만들어서 무겁다.

○ 용도

논밭의 흙덩이를 깨뜨려서 땅을 고르거나 논을 단단하게 다질 때 사용한다. 논에 말뚝을 박을 때에도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40년 전에 집에서 깎아 직접 제작한 것이다. 먼저 산에서 상나무를 구해 지름 18cm 정도의 크기로 자른 다음 논에 박아둔다. 나무의 진액을 빼기 위함이다. 한달 정도가 지난 후에 나무를 꺼내어 말린 다음 상나무 몸체의 가운데에 나무자루를 박아서 사용한다.

○ 수명 및 수선

자루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자루만 다시 만들어서 갈아 끼우지만 몸체가 심하게 닳거나 부서졌을 경우에는 수선을 하지 않고 폐기한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3) 고무래

직사각형의 납작한 나무판에 구멍을 뚫어 자루를 연결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편평하게 만들 때 사용한다.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린 뒤 흙을 덮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곡식을 말릴 때 편평하게 펴거나 모으기 위해서 사용한다. 성인 남자 한 사람이 하루에 밭 500~600평 정도를 고를 수 있다. 제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나무를 구해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고무래의 나무판을 미리 여러 개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자루만 끼워서 사용하기도 한다.

○ 명칭

각 가정마다 고무래의 형태와 크기, 구조가 다르지만 모두 '고무래'라고 한다.

○ 구조와 용도

청양지역에서 조사된 고무래는 명칭이 동일하나 사진과 같이 제각기 다른 구조를 띠고 있다. 정리된 고무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무래의 구조와 용도

	크 기	무게	용 도	조사 지역
1	자루 : 160cm(밤나무) 나무판 : 80cm×9cm 연결목 : 49cm	1.5kg	논에 가래질을 한 후 땅을 편평하게 고를 때 사용한다.	남양면 온암리
2	자루 : 124cm(소나무) 나무판 : 40cm×15cm	1kg	멍석에 말리는 벼를 편평하게 고를 때 사용한다.	청남면 중산리
3	자루 : 128cm(밤나무) 나무판 : 34cm×8cm	1kg	곡식을 말리기 위해 고르게 펴는데 사용한다.	정산면 천장리
4	자루 : 129cm 나무판 : 38cm×13cm	1.5kg	땅을 고르게 펼 때 사용한다.	청양읍 정좌1리
5	자루 : 128cm(소나무) 철판 : 38cm×10cm	1kg	4개의 발이 달려 있고, 곡식을 말릴 때 사용한다.	청남면 중산리
6	자루 : 80cm(밤나무) 나무판 : 13cm×17cm	800g	아궁이의 재를 모은다.	정산면 천장리

○ 제작 및 구입관계

일반적으로 집에서 직접 제작한다. 철판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고무래의 경우 시장에서 구입해 사용한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긁는 부분이 쉽게 닳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나무판을 많이 만들어두고

판이 부서질 때마다 교체해서 사용한다.

고무래를 사용하는 모습

다양한 형태의 고무래

○ 수명 및 수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수명은 다르며, 대부분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선도 직접 한다. 철판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은 망가지면 새로 구입해 사용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 청양읍 정좌1리, 이갑술(남, 73세), 2006. 7. 7.
- 남양면 온암리, 김의욱(남, 66세), 2006. 7. 7.

3) 씨 뿌리는 도구

(1) 다래끼

대나무로 만들어진 바구니의 형태로 입구는 좁고 둥글며, 바닥은 넓고 네모난 형태이다. '다람치、다라끼、다래키' 등으로 불리며, 주로 씨앗을 담아두었다가 씨를 뿌릴 때 저장된 씨앗이 담겨진 채로 가지고 나가 뿌린다.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 사용한다. 보통의 다래끼보다 크기가 작고 사람이 멜 수 있도록 끈을

단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다래끼, 종다라미, 보구리 등이라 한다.

○ 명칭

다래끼라고 한다.

○ 구조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입구부분은 둥글고 좁은데 비해 바닥은 네모지고 비교적 넓다. 무게는 500g 정도이다.

○ 용도

주로 볍씨와 같은 종자를 보관해두는 데 사용하며, 밭으로 나가 종자를 뿌릴 때에도 다래끼에 담아가지고 나간다. 수확한 고추를 따서 담아두기도 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15년 전에 짚으로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물건을 담아두는 도구이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으면 보통 20년은 사용할 수 있다. 짚이 끊어지거나 이음새가 닳아 사용하기 힘들면 폐기하고 다시 새것을 만들

어 사용한다.

○ 소장자

- 남양면 온암리, 김의욱(남, 66세), 2006.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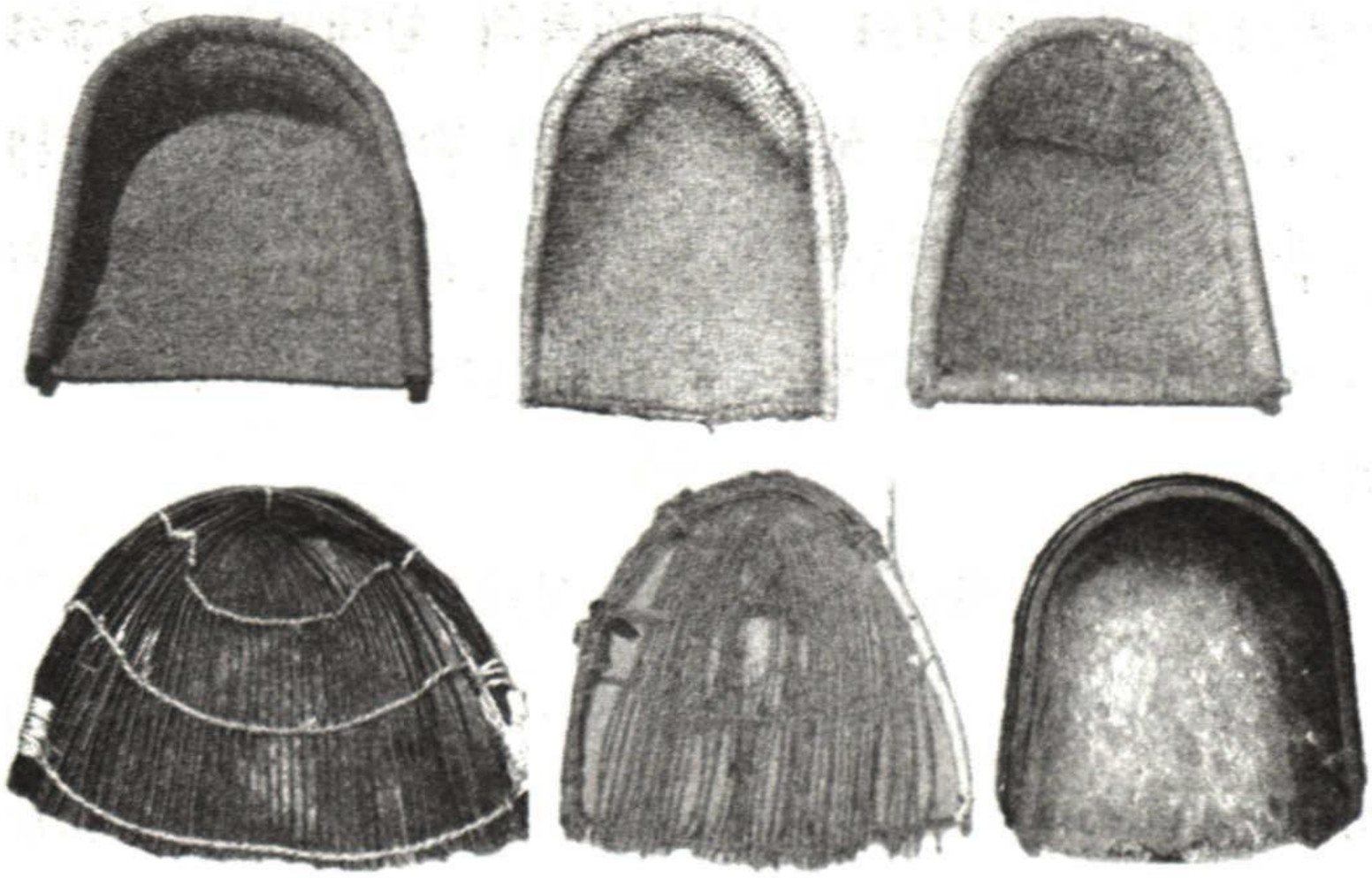
4) 거름 주는 도구

(1) 삼태기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도구로 U자형의 형태이다. 앞쪽은 벌어져 있고, 뒤쪽은 오목하게 들어가 키와 비슷하다. '삼태미'라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짚으로 제작하며, 칡이나 싸리로 만들기도 한다. 재를 담아서 나르기도 하며, 퇴비를 담아서 논밭에 뿌리기도 한다. 이 외에도 흙이나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 명칭

청양에서는 '삼태미'라 부른다. 앞 쪽의 트인 쪽은 물건을 쓸어 담는 부분이고, 바닥은 '쓰레받이', 손으로 들어 나를 수 있는 뒷부분을 '손 받침대'라고 한다. 삼태미의 틀을 잡는 U자형 나무를 '삼태미대'라고 한다.



삼태미

○ 구조

사진에서 윗줄에 있는 삼태미가 청양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U자로 휘어진 삼태미대에 볏짚을 꼬아서 촘촘히 엮었다. 손잡이 부분은 삼태미대를 말아서 단단히 연결하였으며, 내용물을 쓸어 담는 앞부분은 쉽게 닳지 않도록 세로방향으로 다시 한 번 촘촘히 엮었다. 안쪽에는 물건이 담길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었고, 전체적으로 옆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직각 삼각형의 모습이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삼태미의 경우 물건을 담는 앞부분도 나무를 대서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가장 왼쪽의 삼태미는 입구가 57cm에 가장 깊은 부분의 높이가 21cm이다. 가운데 삼태미는 입구가 45cm에 높이가 20cm, 오른쪽의 삼태미는 입구가 57cm에 높이가 30cm이다. 무게는 3kg 정도이다.

아랫줄의 왼쪽과 가운데의 삼태미는 싸리와 노끈을 이용해 만든 것이다. 싸리를 U자 모양으로 구부려 여러 개를 겹친 후 노끈으로 고정한 것이다. 짚으로 엮은 삼태미에 비해 깊이가 얕으며 싸리 사이의 구멍이 크기 때문에 덩어리가 있거나 크기가 큰 물건을 옮길 때 주로 사용한다. 왼쪽의 것은 입구가 58cm이고, 가운데 것은 43cm이다. 무게는 700g 정도로 매우 가볍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검은 삼태미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것이다. 입구의 크기는 38cm이고 무게는 1.2kg으로 구멍이 없고 단단해서 어떤 사물에도 이용할 수 있다.

○ 용도

볏짚으로 만든 삼태미는 주로 보리, 벼와 같은 곡식을 퍼서 나르는데 사용하고, 플라스틱 삼태미는 가

축의 거름을 퍼서 논밭에 뿌릴 때 사용한다. 싸리로 만든 삼태미는 아궁이의 재나 쓰레기를 모아 버릴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볏짚으로 만든 삼태미는 약 10년 전에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먼저 굵기가 적당한 나무를 베어서 다듬은 뒤, 아궁이 불에 그슬려 U자형의 삼태미대를 만든다. 대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볏짚을 엮어 나간다. 한 사람이 반나절 정도면 한 개를 만들 수 있다. 싸리로 만든 것도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으며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플라스틱 삼태미는 5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해 온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볏짚으로 만든 삼태미의 경우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부러지거나 닳아 사용하기 힘든 경우 수선은 힘들며 다시 새로 만들어 교체한다. 싸리로 만든 삼태미는 보통 1년 정도 쓰면 전체적인 형태가 망가지고, 가장자리도 닳기가 쉽다. 그래서 거의 매년 새로 만들

어서 사용한다. 플라스틱 삼태미는 3~4년은 사용할 수 있으며, 교체할 때 다시 구입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 청양읍 정좌1리, 이봉운(남, 69세), 2006. 7. 7.

(2) 똥바가지

바가지에 나무자루를 대어서 만든 것으로 거름통에 거름을 담고, 또 거름을 밭에 뿌릴 때 사용한다. 바가지는 본래 박을 잘라서 집에서 만들었는데, 플라스틱 바가지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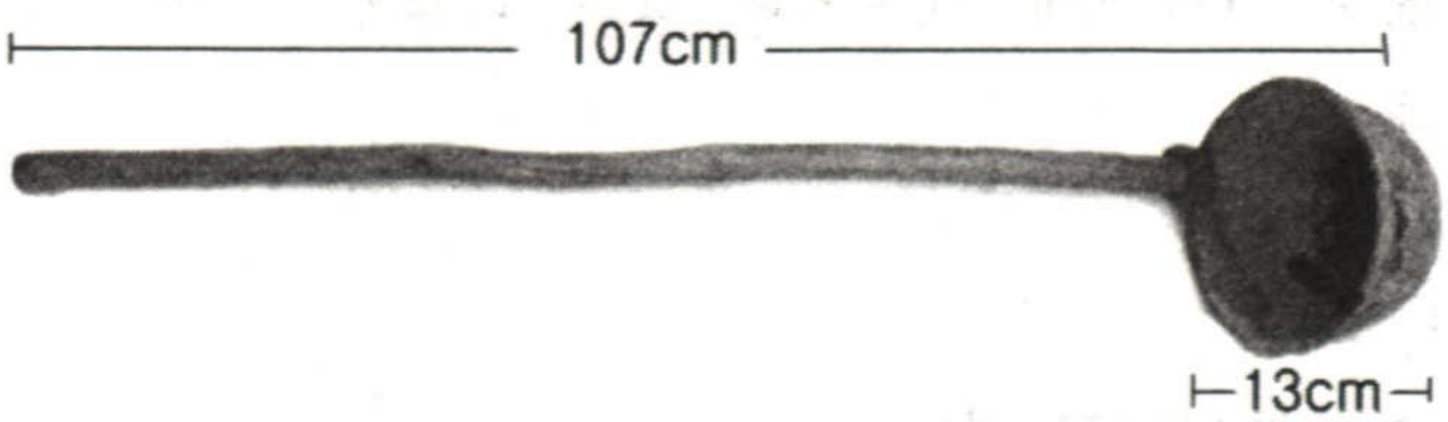
○ 명칭

똥바가지라고 한다.

○ 구조

플라스틱 바가지에 소나무로 만든 자루를 끼워 맞춘 형태이다. 플라스틱 바가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주로 박을 파서 만든 바가지를 사용했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플라스틱 바가지가 확산되면서 박을

파는 것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박으로 만든 바가지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가지를 사용한다. 자루의 길이는 107cm, 바가지의 높이는 13cm이다.



똥바가지

○ 용도

거름을 퍼 담아 거름통에 옮길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플라스틱 바가지는 약 30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며, 자루는 15년 전에 직접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3) 거름통

거름을 담아 논밭에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로, 과거에는 주로 나무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에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 거름통에 달린 철사줄에 거름지게 쇠고리를 달아 운반하기 위해 만들었다.

○ 명칭

거름통이라고 한다.

○ 구조

나무로 만든 통에 철제를 입힌 형태이다. 통의 양쪽에는 잡아서 운반할 수 있도록 나무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통의 입구 테두리는 철제로 씌워 놓았다. 입구 테두리의 철제부분은 통 옆면에 4개의 철사줄로 연결되어 바닥의 홈까지 내려와 모두 만나고 있는 형태이다. 통의 입구 양쪽 가장자리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두었는데, 이것은 거름지게 양쪽에 부착된 쇠고리에 거름통을 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정산면 천장리의 것은 너비와 높이가 각각 33cm, 38cm이며, 청남면 중산리의 것은 37cm, 41cm이다.

○ 용도

똥바가지에서 옮긴 거름을 물지게에 걸어 논밭으로 운반하고 그것을 뿌릴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 관계

30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4) 호크

여러 갈래로 난 뾰족한 발과 자루가 연결된 것으로 쇠스랑과 비슷하다. 하지만 쇠스랑은 발이 'ㄱ'자로 구부러져 있으나 호크는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발은 세 개 도는 네 갈래로 나누어져 있으며, 쇠스랑과 비슷하게 이용되나 지역에 다라서 두엄을 옮길 때만 사용한다.

○ 명칭

'호크'라고 한다.

○ 구조

호크 전체가 한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자루에서 세 갈래의 발이 뻗어나가 있는 형태이다. 자루의 길이는 56cm, 발의 길이는 25cm이다.

○ 용도

거름을 퍼서 옮기거나 펼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10년 전에 근처 산에서 참나무 가지를 베어와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부러질 경우 수선하지 않고, 새것을 깎아 다시 만든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5) 매는 도구

논이나 밭에 자라는 잡초를 없애는 작업을 김매기라고 한다. 잡초는 야생의 상태에서도 잘 자라는데다가 작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때문에 농사일에서 김

매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작업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김매기를 할 때 마을 전체 일꾼들이 모여 두레패를 형성해 돌아가면서 김을 매주는 것이다. 또한 김매기 작업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세 번 정도 김매기 작업이 이루어진다. 손으로 직접 잡초를 뽑거나 호미나 괭이, 낫 등을 사용하여 잡초를 제거하는데, 현재는 제초제를 이용해 김매기를 대신하고 있다.

(1) 호미

호미는 종자를 심거나 김을 매는 데 쓰이는 중요한 농기구이다.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토질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르다. 김광언의 『한국의 농기구』에 의하면 호미의 형태는 보습형, 낫형, 세모형으로 구분된다. 보습형은 중부 평야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날 끝이 뾰족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져 슴베의 길이는 짧은 형태이다. 낫형은 밭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날끝이 매우 예리하며 날의 길이도 길고, 그 너비도 좁다. 슴베의 길이도 길게 뻗어있다.

세모형은 풀이 많이 자란 밭을 맬 때 쓰는 것으로 호미의 날이 크고, 끝이 날카로우며 슴베의 길이는 짧으나 자루가 길다. 따라서 밭농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땅이 척박한 북쪽으로 갈수록 호미날과 자루가 넓고 길며, 논농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남쪽일수록 날이 가늘고 자루도 짧아진다.

요즘에는 제초제가 많이 사용되어 호미로 직접 김매기를 하는 일이 적어지고, 또한 톱니바퀴가 달린 제초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호미는 밭에 작물을 심거나 감자, 고구마 등을 캘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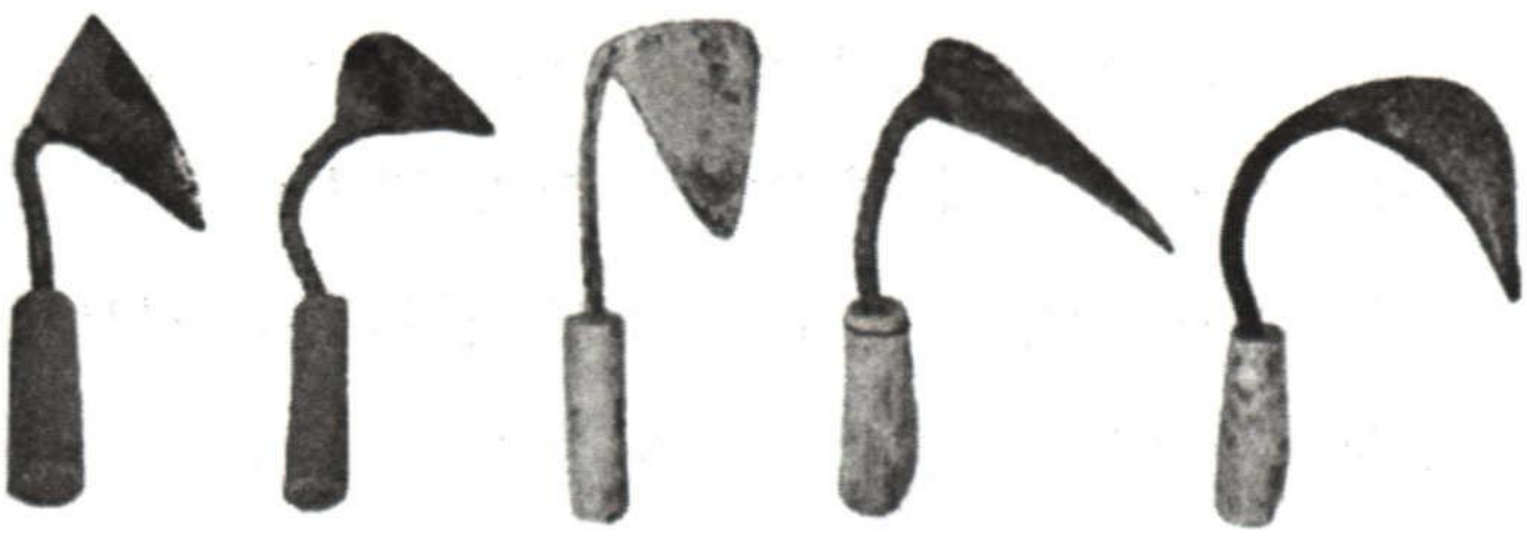
○ 명칭

호미라고 한다. 나무 손잡이인 '자루'와 땅을 파는 '호미날', 날과 자루를 연결하는 '슴베'로 구성되어 있다.

○ 구조

호미의 전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나무 자루에 끝이 뾰족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너비가 넓어지는 날이 연결되어 있다. 청양의 호미는 작업형태에 따

라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다. 논에서 김을 맬 때 사용하는 호미형태의 경우, 날이 길고 그 끝이 뾰족하며 위로 올라갈수록 그 너비가 점점 넓어진다. 날의 윗부분은 작업도중 곡식이 다치지 않도록 뭉툭하게 되어 있으며, 논의 흙이 잘 뒤집어질 수 있도록 날이 슴베 쪽으로 깊숙이 휘어져 들어와 있다.



호미

밭에서 사용하는 호미의 경우는 매는 것과 긁는 것의 모양이 다르다. 매는 호미는 날이 길고 끝이 뾰족하며 날의 너비가 좁다. 또한 날의 목 부분은 긁는 호미보다 훨씬 길고 굴곡이 져 있어 밭의 잡초를 찍어내기 쉽도록 되어 있다. 긁는 호미는 정삼각형의 날이 달린 형태로, 날의 너비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져 밭의 흙을 긁어모으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다. 또한 슴

베에서 시작하는 날의 목 부분이 굴곡 없이 직각형태로 꺾어져 슴베 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모양이다.

○ 용도

논과 밭을 매거나 흙을 긁어모으는 등 작업형태에 따라 호미가 다양하게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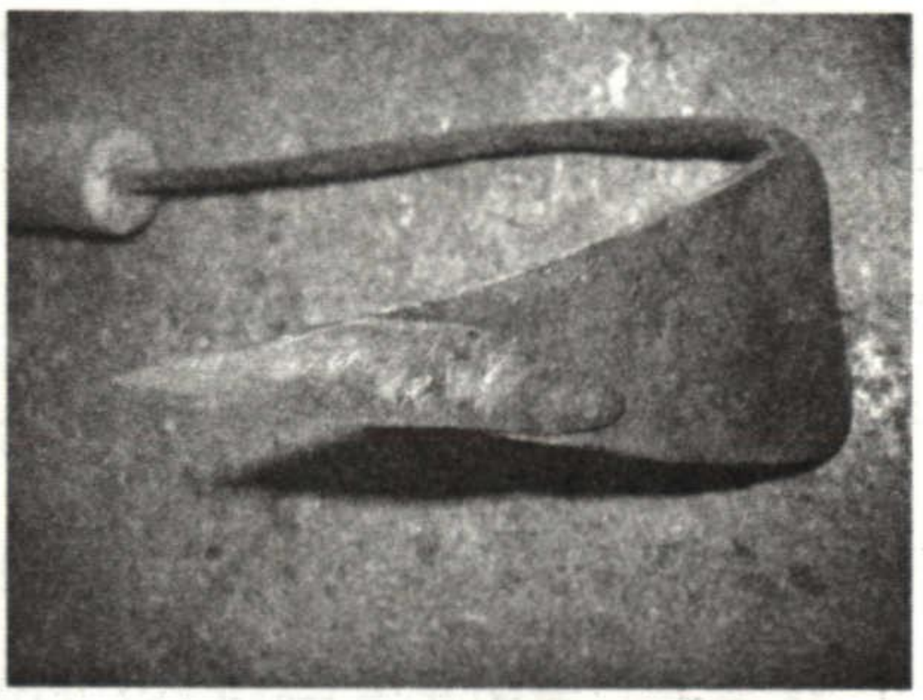
○ 제작 및 구입관계

약 20년 전까지는 날만 시장에서 구입해 오고, 자루는 집에서 직접 제작하여 끼워 맞췄으나 요즈음에는 날과 자루가 끼워 맞춰진 완제품을 정산이나 청양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호미가격은 보통 개당 2000원 정도이다.

○ 수명 및 수선

보통 날은 1년 정도 사용하면 무뎌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시장의 대장간에 가서 수선을 해온다. 이때 날을 수선하는 것을 '날 벼린다'라고 한다. 날을

날을 덧붙인 호미



벼린다는 것은 날의 끝을 가는 작업과 날을 새로 붙이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 호미는 여러 가지 작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쉽게 날이 뎌지고 부러진다. 이럴 때에는 호미의 날을 다시 가는데, 날을 너무 많이 갈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나 날 이 부러졌을 때에는 다른 날을 새로 이어 붙인다.

자루가 부러졌을 때에는 직접 나무를 잘라 자루를 만들고, 대장간에 가지고 가서 연결한다. 이 때 자루 윗부분을 얇은 철판으로 감아 단단하게 고정한다. 지금은 다시 새것을 구입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 운곡면 위라리, 복진용(남, 79세), 2006. 7. 6.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2) 하괭이

논밭의 풀을 매거나 흙을 모아 북돋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삼각형의 철판에 자루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 명칭

하괭이라고 한다.

○ 구조

삼각형의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날은 90°로 휘어져 있는 철통과 연결되어 있다. 철통은 참나무로 된 자루에 박혀있다.

○ 용도

논밭의 흙을 긁어모아 덮어줄 때, 풀을 매는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10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 수선

1년에 한 번 청양시장의 대장간에서 날을 갈아 사용한다. 자루가 부러질 시에는 새것을 구입하여 교체한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3) 갈고리

○ 명칭

갈고리라고 한다.

○ 구조

일반 호미의 형태와 같이 날과 나무자루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호미의 날과 달리 날 모양이 갈고리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 너비가 매우 좁다. 날과 자루의 각각 길이는 14cm, 19cm이며 무게는 500g 정도이다.

○ 용도

주로 밭에서 김을 맬 때 사용하는 도구로 호미를 사용하기 힘든 부분 즉, 김을 매기에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경우 또는 호미를 사용할 시에 수확할 과실들이 다치기 쉬운 공간에 있어서는 이 갈고리를 사용하여 잡초를 골라내듯 김을 맨다.

○ 제작 및 구입관계

날은 40년 전에 청양시장에 구입한 것이며, 자루는 10년 전에 참나무 가지를 베어와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날은 크게 손상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1번 정도 청양시장의 대장간에서 날을 벼린다. 자루는 부러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10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자루가 부러질 경우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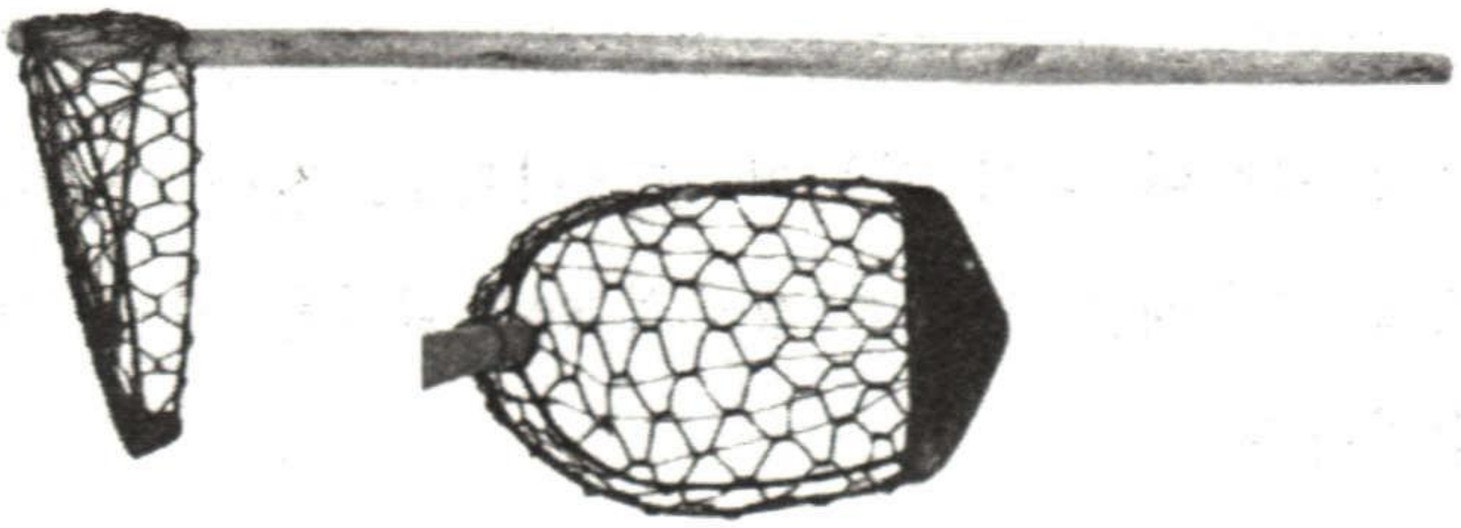
(4) 흙치는 얼개미

○ 명칭

흙치는 얼개미라고 한다.

○ 구조

참나무로 된 자루에 철사로 엮은 얼개미를 연결하였다. 얼개미의 전체형태는 쓰레받기 모양을 하고 있으며, 얼개미의 끝부분은 삼각형 형태로 돌출되어 있다. 얼개미 부분은 쇠로 된 앞쪽의 받침에 두 줄의 굵은 철사를 대어 놓은 것을 골대로 하여 바닥



흙치는 얼개미

과 옆 부분을 다시 철사를 이용하여 육각 형태로 얼기설기 엮어 두고, 바닥 밑에 세로로 7개의 나일론 줄을 달아두었다. 자루와 얼개미의 이음새 역시 철사로 엮어 연결해두었다. 얼기설기 철사를 댄 것에 흙이 떠졌다가 흙만 그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고 돌이나 풀만 남을 수 있게 되어 있다.

○ 용도

보리밭에 나있는 잡초들을 매거나 보리밭에 씨를 뿌린 후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을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

40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철사를 구입하여 얼개미 부분을 만들고, 집에서 참나무를 깎아 자루를 만들어 연결하였다.

○ 수선

자루가 휘거나 부러질 경우에는 근처 산에서 재료를 구하여 다시 만들어 연결시키고, 철사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시장의 철물점에서 철사를 구입하여 수리한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6) 물대는 도구

벼는 곡식 중에서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벼농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에 물을 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김제의 벽골제나 제천의 의림지와 같은 저수지를 만들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도 작은 보(洑)를 만들어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낮은 곳에 있는 논에게는 유용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논에는 적합하지 않아 여전히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직접 물을 퍼 올리는 도구들이 발명되었는데, 가장 보편적인 도구가 '두레'이다.

(1) 두레

얕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있는 논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용두레'와 '맞두레'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용두레는 통나무를 길게 파서 만든 물통에 자루를 달아 수저나 주걱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물을 퍼 올리는 것으로 혼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먼저 나무기둥 3개를 삼각뿔의 형태로 세워 물통을 매단 뒤 사람이 밀고 당기며 물을 보내는 것이다. '영두레'라고도 한다. 맞두레는 입구가 넓은 사각의 나무통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물통의 네 모서리에는 끈을 달고, 두 사람이 2개씩 잡고 박자를 맞추어 물을 보낸다.

용두레

○ 명칭

'용두레'라고 한다.

○ 구조

용두레는 크게 몸통, 나무기둥,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판자를 사용하여 만든 직사각형 나무 몸통은 물을 퍼 담는 물통부분과 물통을 잡고 움직일 수 있

는 긴 자루로 이루어져 있다. 두레를 사용할 당시 이 물통은 고정시키는 나무기둥 3개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현재 나무기둥은 남아있지 않다. 물통의 양쪽 칸막이에는 벌어짐을 방지코자 4개의 나무판자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칸막이받침대라고 한다. 자루는 물통몸체와 빠지지 않도록 칸막이 사이에 여러 나무토막을 끼워 고정시켰다. 물통 양쪽 벽 중간부분에 뚫려 있는 두개의 구멍에는 작은 나무토막이 끼워져 있으며, 그 나무토막에는 끈이라 불리는 긴 밧줄이 연결되어 있다. 이 밧줄은 기존의 나무기둥 3개와 물통을 연결하는 줄로서, 물통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용도

얕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논으로 퍼 담아 옮기거나, 물이 들어가기 힘든 논에 물을 댈 때에 사용한다. 삼각대 형식의 나무기둥에 매달린 몸통의 자루를 쥐고서 물을 퍼낸다.

또한 용두레는 고기를 잡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비가 오고 난 후 잔잔한 강물이나 웅덩이에 용두레를 설치하여 물을 퍼내면 그 속에 갇힌 붕어, 메기 등을

잡을 수 있었다.

용두레를 사용하는 모습(재현)

○ 제작 및 구입 관계

용두레를 만드는 작업은 마을에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맡아서 하였는데, 제작한 사람에게 마을에서는 일정한 양의 곡식을 모아 대가를 지불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나무물통은 자루와 물통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나무를 깎아 물통모양을 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작 방식이 까다롭고 소요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 나무판자의 보급이 원활해지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부터 나무판자를 이어 붙여 만든 물통을 사용하게 되었다. 나무기둥

은 대가 곧고 튼실한 소나무 세 그루를 깎아 만들었으며, 끈은 나일론밧줄이 나오기 전까지 짚단을 꼬아 만들어 사용하였다.

○ 수명 및 수선

목면 화양2리에 남아있는 용두레는 서너 번의 보수작업을 거쳐 1960대초부터 1972년도까지 사용하였다. 용두레의 물통이 물에 많이 접하는 관계로 부식이 쉽고, 자루 역시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부러지기가 쉬워 보통 3~4년 정도 사용하면 물통의 나무판과 자루를 새로 갈아주어야 한다. 나무판을 교체할 때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판자를 사용하고, 자루를 교체할 때에는 미리 산에서 보아두었던 나무를 베어와 깨끗이 다듬어 나무물통과 끼워 맞추었다고 한다.

○ 소장자

- 목면 화양2리, 복상교(남, 66세), 2006. 7. 8.

7) 거두는 도구

(1) 낫

낫은 곡식을 벨 때 쓰는 도구로 철기시대이래로 수확기에 곡식을 거두는 유일한 도구이다. 또한 농사짓는데 뿐만 아니라 풀이나 갈대 등을 베고, 나무의 잔가지를 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보통 한 집에서 3~4개의 낫을 가지고 있다. 낫은 날, 슴베, 자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날과 자루는 'ㄱ'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인남성 한 사람이 하루에 300평가량의 논을 수확할 수 있다.

○ 명칭

낫은 사물을 베는 낫과 손잡이인 자루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양지역에서 조사된 낫은 옹낫, 왜낫, 우멍낫이 있다.

○ 구조

모든 낫은 날, 슴베, 자루를 기본형태로 갖추고 있으며, 날과 자루가 'ㄱ'자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옹낫과 왜낫의 경우 날이 끝

나는 부분이 바로 슴베와 이어지는데 비해, 우멍낫은 날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날의 목이 90°각도로 꺾여 슴베 쪽으로 길게 내려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옹낫과 왜낫이 눈썹 형태라면 우멍낫은 'ㄱ'자 형태이다.

날 두께는 옹낫(0.2cm) - 왜낫(0.3cm) - 우멍낫(0.5cm)의 순으로 우멍낫이 가장 두껍다. 또한 낫의 날 길이는 육철낫(45cm), 왜낫(45cm), 우멍낫(48cm)으로 우멍낫이 가장 길고, 무게 역시 육철낫(600g) - 왜낫(500g) - 우멍낫(700g) 순으로 우멍낫이 가장 무겁다.

왜낫(위)과 옹낫(아래)

우멍낫

대장간에서 제작한 낫의 경우 상표표시의 일환으로 서 날에 작은 구멍을 뚫거나 제작자의 성을 새겨두었으며, 자루손잡이 부분에 올록볼록하거나 들쑥날쑥한

모양을 집어넣어두기도 한다. 우멍낫의 경우 자루의 쪼개짐을 막는 '몽태'라는 쇠가 자루둘레를 감싸고 있다.

○ 용도

옹낫과 왜낫은 날을 갈아 만든 것으로 날이 날카롭고 그 두께가 비교적 얇기 때문에 주로 벼, 잡초 등과 같은 풀 종류를 밸 때 사용한다. 우멍낫의 날은 대장간에 두들겨 만든 것으로 그 두께가 굵고 날이 단단하기 때문에 크고 굵직한 나뭇가지들을 쳐 낼 때 사용한다.

○ 구입 및 제작방식

낫을 구입하는 방법은 제작방식에 따라 직접 제작한 자루에 대장간에서 구입한 날을 끼워 맞추는 경우, 자루와 날이 연결된 완제품을 대장간에서 구입해오는 경우, 일반 철물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자루를 직접 제작할 경우 보통 왜낫은 소나무를, 우멍낫은 물푸레나무를 재료로 사용한다. 최근 들어와 일반 철물점에서 공산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그 성능과 수명 면에

서 대장간에서 만든 것만 못하다 하여 현재까지도 대장간의 날만 구입하거나 또는 완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 수명 및 수선

낫은 농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 사용하면 무뎌진다. 따라서 1년에 1번씩 시장에 가서 날을 벼린다. 자루는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에서 직접 제작하여 끼워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대장간에서 자루만 끼워 맞추거나 아예 새 물건을 다시 구입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 운곡면 위라리, 최송환(남, 64세), 2006. 7. 6.

8) 터는 도구

수확한 벼나 콩, 깨 등에서 낟알만을 모으는 것을 '턴다'라고 한다. 지금은 농기계가 발달해서 논에서 벼를 베는 것과 동시에 탈곡이 되어서 나오지만 과거에

는 집 마당이나 들 마당에 벼를 모아두고 벼를 털었다. 벼를 터는 방법에는 이삭을 훑어서 낟알을 터는 것과 이삭을 두드려서 낟알을 터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삭을 훑는 도구로는 그네가 있고, 이삭을 두드리는 도구에는 개상과 도리깨가 사용된다. 이 중 청양지역에서는 그네의 또 다른 명칭인 홀태와 도리깨를 주로 사용한다. 현재 벼농사에서는 그 쓰임새가 사라졌지만 콩이나 깨 등 밭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여전히 도리깨를 사용하기도 한다.

(1) 홀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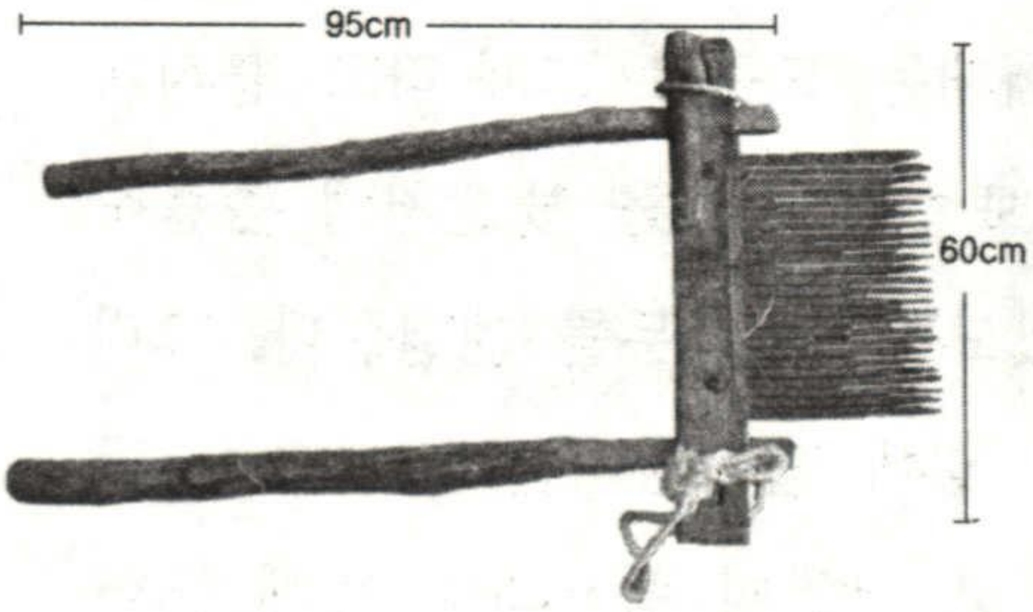
벼에서 낟알을 털어내는 도구로 '그네'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무토막에 뾰족하게 날을 빗살처럼 촘촘하게 박고 세워둘 수 있도록 긴 나무를 연결한다. 그리고 날 사이로 볏단을 넣어 잡아당기는데, 촘촘한 날 사이로 짚만 빠져나오고 낟알이 통과하지 못해 떨어지게 된다. 이 때 날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끼줄 하나를 늘어뜨리고 나무판을 올리거나 발로 밟아 놓는다. 성인 남성이 하루에 보리 8가마를 털 수 있으며, 지금은 대부분 탈곡기를 사용한다.

○ 명칭

홀태라고 한다.

○ 구조

홀태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뾰족한 25개의 홀태날을 박힌 60cm의 나무 몸체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두 개의 나무기둥을 세워 이를 고정시켜 두었다. 홀태날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다리는 95cm, 수직으로 박혀 있는 다리는 55cm이다. 나무막대 밑으로는 작업 시에 몸체를 고정시켜 볏단을 넣어 잡아당길 때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발판 줄이 두 줄 매어져 있다.



홀태

홀태를 사용하는 모습

○ 용도

홀태 밑에 멍석을 깔고 벼, 보리와 같은 곡식을 훑어내는데 사용한다. 홀태 날 사이에 벼나 보리를 끼운

후 위로 잡아당기면 줄기만 끌려 올라오고, 낟알은 아래로 떨어진다.

35년 전부터는 홀태를 대체할 수 있는 탈곡기나 여러 기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훑어야 할 곡식의 양이 적어 탈곡기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간혹 사용하기도 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청양시장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홀태날에 집에서 직접 제작한 몸체와 나무기둥을 조립한 것이다. 몸체와 나무기둥의 재료는 소나무이며 낫, 자귀, 대패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반나절이면 대부분 완성된다고 한다. 홀태날이 무디어졌을 시에는 갈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날을 구입하여 박아두며, 몸체나 다리가 닳거나 손상되었을 시에는 직접 다시 제작하여 교체한다. 발판줄은 기존에 볏단새끼로 꼬아 만들었으나 현재는 나일론 줄을 사용하여 만든다.

○ 소장자

- 운곡면 위라리, 최송환(남, 64세), 2006. 7. 6.

(2) 도리깨

벼, 보리, 밀, 콩 등의 곡식을 터는 도구이다. 긴 나무자루의 끝에 구멍을 뚫고 둥근 나무못을 구멍에 맞도록 꽂는다. 그리고 이 나무토막에 3개의 얇은 나무를 달아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멍석이나 자리 위에 곡식을 올리고, 도리깨를 회전시켜 곡물을 친다. 그러면 그 힘으로 낟알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 남성이 하루에 보리 2가마니를 털 수 있다.

○ 명칭

도리깨라고 한다. 부분명칭을 살펴보면 긴 손잡이는 '자루', 곡식을 치는 부분인 '도로케율', 자루와 도로케율을 연결하는 '도로케꼭지'가 있다.

도리깨

○ 구조

도리깨는 크게 손잡이인 자루와 곡식을 터는 부분인 도로케율, 이 둘을 연결해주는 작은 나무토막인 도

로케 꼭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루와 도로케 꼭지의 길이는 각각 172cm, 19cm 이다. 도로케율은 세 가지 나무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줄기의 길이가 각각 133cm, 124cm, 127cm 로 가운데 줄기가 양옆의 줄기보다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곡식을 내리칠 때 세 줄기의 끝이 부딪쳐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도로케율은 검은 전기줄로 단단히 묶어두었으며, 도로케 꼭지의 연결부분은 노끈으로 칭칭 동여맨 후에 그 위에 다시 전기 줄로 매어 고정시켜 두었다. 노끈과 전기줄이 없었을 당시에는 새끼줄 또는 삼을 꼰 줄을 묶어 두었다고 한다.

○ 용도

벼, 보리, 밀, 녹 두, 콩 등의 갖가지 곡식의 낱알을 터는데 사용한다. 탈곡기를 사용한 이후부터는 소량의 콩껍질이나 녹두 같은 곡식을 털 때에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10년 전에 산에서 노강지나무를 구해와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노강지나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

른 나무에 비해 매우 질기고 단단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낫만 있으면 한나절이면 도리깨 전체를 완성할 수 있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9) 말리는 도구

(1) 멍석

곡식이나 고추 등을 말리기 위해 짚으로 만든 것으로 장방형의 형태이다.

○ 명칭

네모반듯한 멍석 가장자리에 귀가 있다 하여 '귀멍석'이라 한다.

○ 구조

180cm×110cm의 크기로 장방형태를 띠고 있다. 곡식 4말 정도를 널어 말릴 수 있다.

○ 용도

벼, 보리, 고추, 콩 등 각종 곡식을 널어 말릴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한 사람이 짚을 짜기 시작하면 보통 15~18일 정도면 멍석 하나를 완성할 수 있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2) 도래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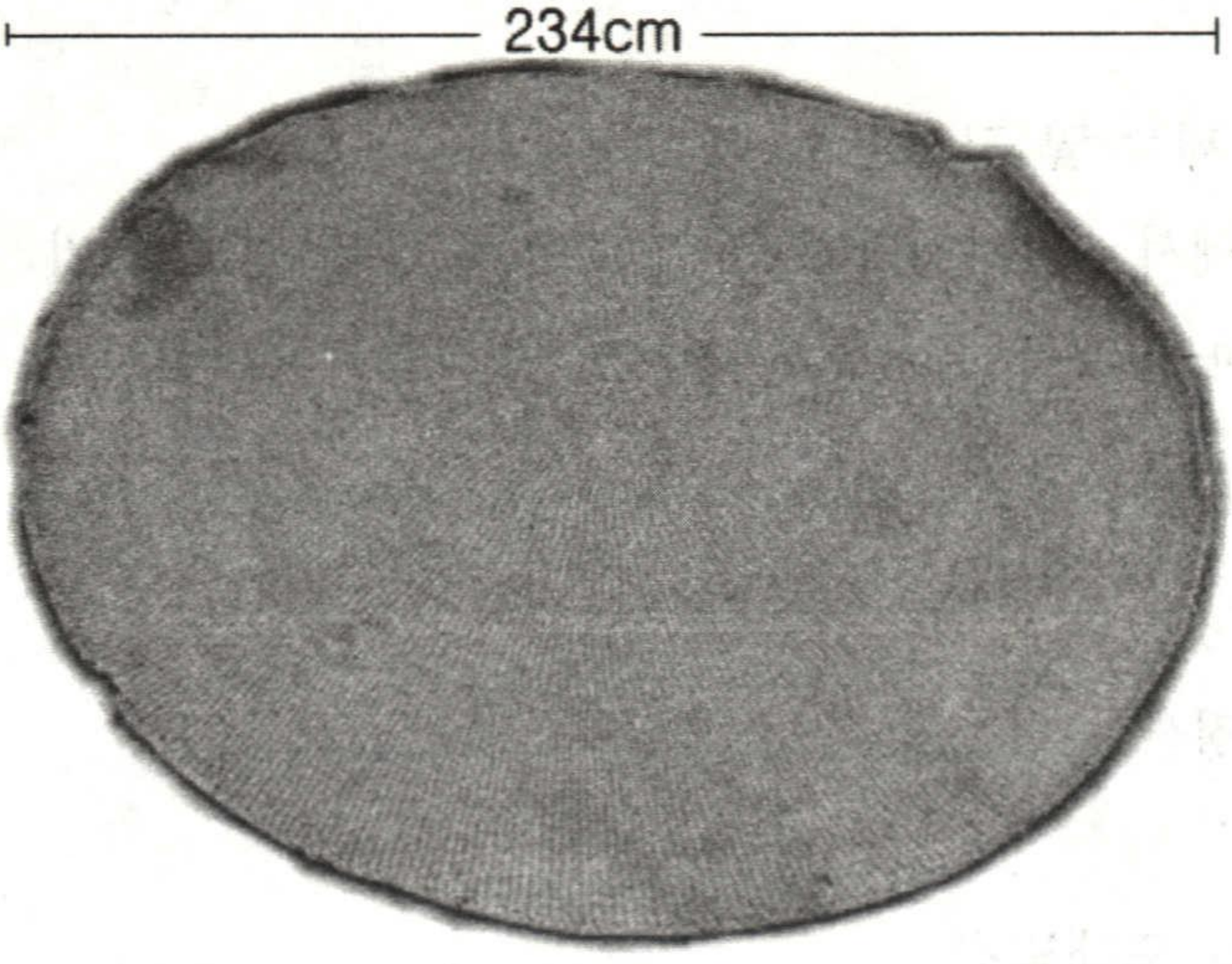
농작물을 널어서 말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멍석과 달리 둥근 형태이다. '맷방석·도래멍석' 등으로도 부른다.

○ 명칭

도래방석이라고 한다.

○ 구조

전체적으로 둥근 원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지름의 길이는 234cm이다.



도래방석

○ 용도

벼, 보리를 말릴 때 또는 술을 만들 때 술밥을 삭힐 때에도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가운데서부터 짚단을 촘촘하게 엮어나가 둥근 원 형태를 이루고 있다. 보통 하나의 맷방석을 제작하는데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 수명 및 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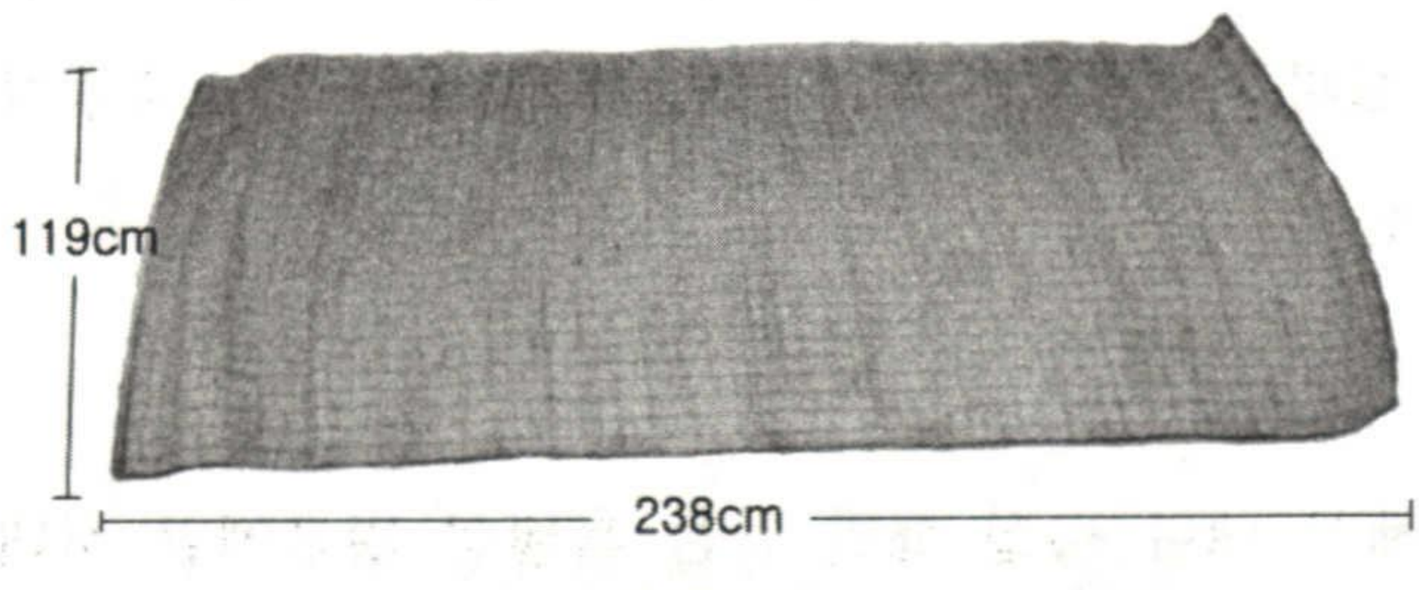
짚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고 쥐가 파먹는 등 보관이 상당히 힘들다. 보통 하나의 맷방석을 만들어 잘 보관하여 사용하면 10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끝부분이 닳거나 쓸리면 일단 수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3) 왕굴자리

멍석과 같이 네모난 형태의 자리로 왕굴을 재료로 했다고 해서 '왕굴자리'라고 한다. 깨나 고추 등을 널어 말리는데 사용하며, 옛날에는 방에 깔아서 사용하기도 했다.



왕굴자리

○ 명칭

왕굴자리라고 한다.

○ 구조

직사각형의 멍석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재료를 왕굴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이 굵고 두께가 얇은 편이다. 왕굴을 엮어 만든 자리에 27줄의 면사를 이용하여 고정시켜 두었다. 크기는 119cm × 238cm이다.

○ 용도

제사 또는 명절 때 대청마루에 깔아 돗자리로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40년 전 소장자의 조부가 제작한 것으로, 왕굴을 엮어 만든 것이다. 바디집을 이용하여 왕굴만 엮어 만들면 보통 2일정도면 완성할 수 있지만, 틀을 이용하여 짚과 왕굴을 섞여 만들면 1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 수명 및 수선

제사 때나 명절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꺼내어

사용하고 그 관리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40년 동안 사용이 가능했다. 부분적인 수선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손상될 경우 새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10) 고르는 도구

(1) 키

곡식에 섞인 이물질을 없애고, 껍질을 날려 보내기 위한 도구로 치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U자모양의 틀에 앞쪽은 벌어지고, 뒤쪽은 오목하게 곡물이 담길 수 있도록 된 구조이다. 주로 대나무로 만드는데, 곡물을 키 안에 넣고 위 아래로 흔들며 이물질을 분리한다. 이를 '키 까부른다.'고 말한다. 또한 키내림이라고 하여 키에 곡식을 담아 바람을 마주보고 서서 조금씩 흘러내리게 하여 가벼운 이물질들이 날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다.

○ 명칭

키라고 한다.

○ 구조

짚단으로 촘촘히 엮어 만든 키의 몸체를 'U'자형태의 버드나무 골대 두 개 사이에 끼우고 싸리로 엮어 고정시켰다. 골대가 양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대 중앙에 버드나무 대를 연결시켰다. 양옆에는 싸리로 만든 손잡이를 대었다. 키 머리부분은 골대를 세워 깊이를 두었으며, 까불린 곡식이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도록 한 것이다. 크기는 골대부분의 폭이 50cm이고, 양 쪽 손잡이를 합치면 폭이 64cm이다. 세로는 80cm이고 무게는 1kg이다.

키

○ 용도

곡식에 섞여 있는 돌, 쭉정이와 같은 이물질을 까불러서 걸러내는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20년 전에 청양시장에 있는 키 장사꾼에게 구입한 것이다.(정산면 천장리)

○ 수명 및 수선

한번 구입하면 20~30년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싸리로 엮어둔 부분이 끊어지거나 닳게 되면 집에서 직접 수선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2) 풍구

바람을 일으켜 쭉정이와 껍질 등을 골라내는 도구이다. 초보적인 기계형태를 갖춘 도구로 조선시대 후기 중국에서 도입된 것이다. 나무통 속에 날개가 달린 바퀴를 달고, 이것을 돌리면 바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바람이 향하는 쪽에는 곡식을 넣는 입구가 있고, 여기로 곡식을 넣으면 껍질이나 쭉정이 등은 바람을 타고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 곡식은 밑으로 떨어진다. 이 때 덜 여문 벼는 뒤로 나오고 잘 여문 알곡은 앞

으로 떨어진다.

○ 명칭

풍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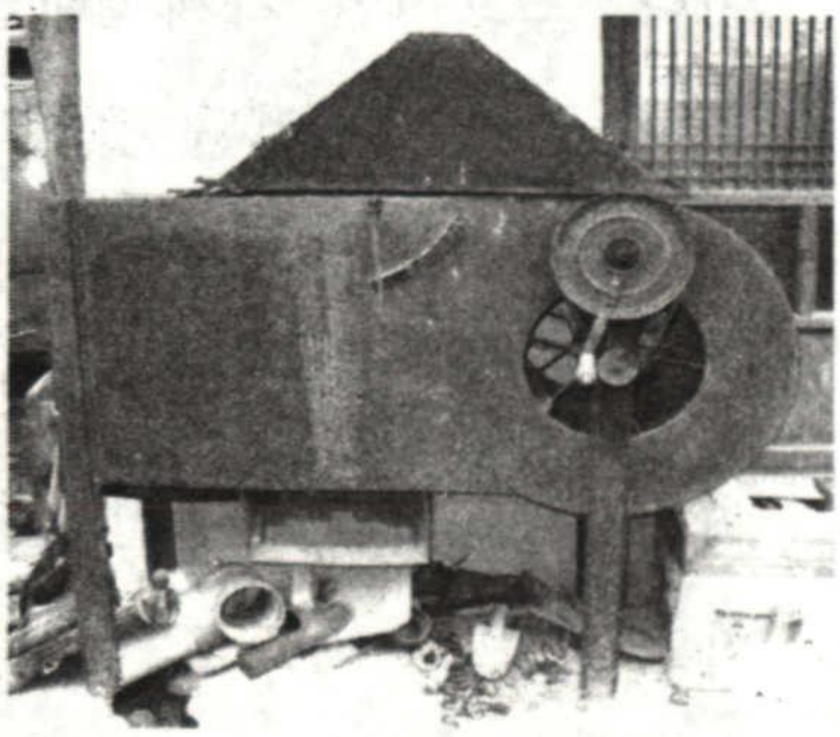
○ 구조

크고 둥근 원형태의 통 속에 여러 날개가 달린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이것을 돌리면 바람이 생기게 되어 있다. 풍구의 입구로 곡식이 흘러들어오면 이 바람을 만나 겉껍질, 돌, 티끌과 같은 이물질이 가려진다.

○ 용도

쌀, 보리, 콩, 수수, 밀 등 각종 곡식의 이물질을 가려내는데 사용한다.

나무로 만들어진 풍구



개량식 풍구

○ 제작 및 구입관계

25년 전에 청양시장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크게 손상되지 않는 이상 20~30년은 사용할 수 있다. 나무로 이루어진 풍구도 있으나 나무로 만들면 쉽게 부서지거나 상해서 철제로 제작하였다. 몸통 전체가 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선을 요하지 않는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3) 바람개비

곡식에 섞여 있는 껍질과 잡물을 날려 가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긴 나무기둥에 철판으로 만들어진 날개가 프로펠러처럼 4개 달려 있다. 그리고 기둥 아래에는 받침대가 붙어 있고, 그 뒤쪽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어 날개를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풍구보다 작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바람을 내는 효과도 뛰어나다. 한 사람이 바람개비를 돌리면 다른 사람이 그 앞에서

키 내림질을 하듯 곡식을 흘러내린다. 그러면 이물질이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사용법이 간단해 지금도 농가에서 가끔 쓰인다.

○ 명칭

바람개비라고 한다.

○ 구조

둥근 원형태의 철판 위에 세워진 나무판자 중심에는 바람을 일으키는 날개가 3개 달려있다. 나무판자 뒤쪽으로는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손잡이가 달려있다.

○ 용도

곡식에 섞여 있는 각종 이물질을 바람에 날려 가려내는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30년 전에 청양시장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10년 전부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수명 및 수선

도구의 제작방식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수선이 필요할 때 집에서 직접 간단하게 손질만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소장자

- 청양읍 읍내리, 김종선(남, 74세), 2006. 7. 7.

(4) 체와 쳇다리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거르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무를 얇게 켜서 겹으로 끼운 둥근 틀에 바닥을 망으로 메운다. 바닥에 끼워진 망의 구멍크기에 따라 고르는 곡식이 다르다. 구멍이 작을수록 고운 가루를 내거나 액체를 내릴 때 사용한다.

체를 사용할 때는 쳇다리를 사용한다. 쳇다리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Y'자 모양으로 동이나 함지와 같은 그릇 위에 걸쳐 놓고 사용한다.

체

① 체

○ 명칭

체라고 한다.

○ 구조

얇은 나무판을 불에 달구어 둥글게 만들고 철사 등으

로 고정시킨다. 그리고 한쪽 면을 망으로 덮는데, 망의 크기는 각각 다르다.

○ 용도

각종 곡식의 가루를 곱게 쳐서 걸러 내거나, 혹은 액체를 받아 걸러내는 데에도 사용한다. 체의 구멍이 큰 것은 콩이나 잡곡 등 크기가 큰 곡물에 사용하고, 체 구멍이 작을수록 고운 가루를 내거나 액체를 거를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20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소나무와 철사로 이루어져 있다. 철사가 없었을 당시에는 말총을 엮어서 사용했다.

○ 수명 및 수선

특별하게 수선을 하기 않아도 30년은 사용할 수 있다. 나무틀이 부서졌을 경우에는 철사나 노끈 등으로 다시 고정을 시키고, 망에 구멍이 났을 경우 철사나 실로 메운다. 너무 많이 상했을 경우 망을 교체한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② 쳇다리

쳇다리

○ 명칭

쳇다리라고 한다.

○ 구조

'Y'자 모양으로 벌어진 나뭇가지를 다듬어 만든 것으로 가지 사이의 각도는 약 40°이며 쳇다리 각각의 길이는 50cm정도이다.

○ 용도

큰 쳇다리는 맷돌, 용발, 체 등 곡식 고르는 도구를 올려놓고 그 아래 대야를 받쳐두는 데 사용하며, 작은 쳇다리는 콩나물을 기를 때 받쳐두는 용도로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40년 전에 밤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낫만 있으면 1~2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다.

○ 수명 및 수선

나무가 손상되지 않는 이상 30~40년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러지거나 크게 손상되었을 경우 수선하지 않고 다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11) 알곡 및 가루내는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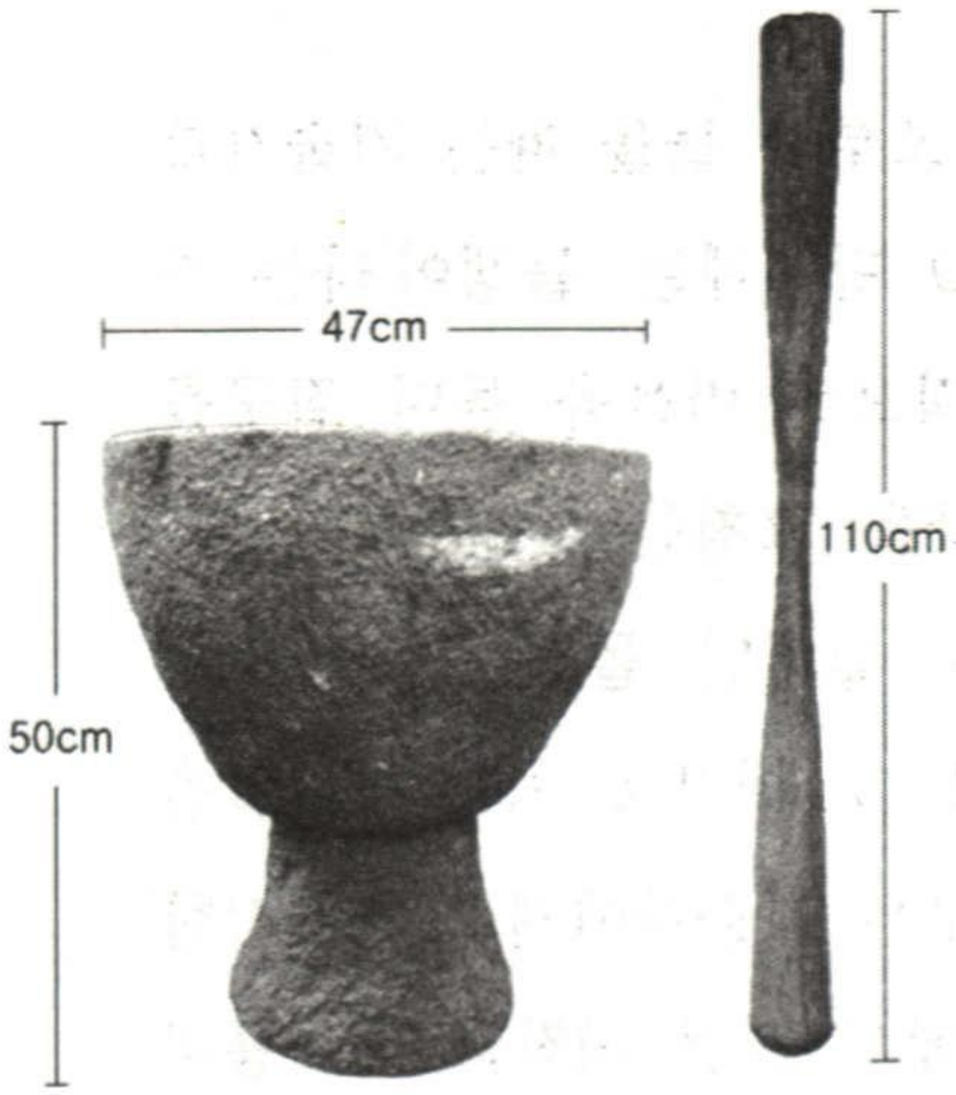
(1) 절구

나무 또는 돌을 파서 만든 통 안에 곡물을 넣고 나무공이로 쳐서 곡식을 찧는 도구이다. 곡식을 넣어서 빻는 것을 '절구통', 곡식을 빻을 수 있도록 두드리는 것을 '공이'라 한다. 절구통의 재료는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며, 그 형태도 원통형이나 둥근모양 등 다양하다. 공이는 주로 나무로 만드는데, 가운데가 볼록하게 들어간 형태이다.

○ 명칭

청양에서는 절구라는 말보다는 절구통은 '도굿통'으로 절구공이는 '도굿대'라고 한다.

○ 구조



도굿통(좌)과 도굿대(우)

도굿통은 지름 47cm에 높이 50cm의 돌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잔의 형태이다. 안쪽의 깊이는 30cm에 지름이 28cm이다. 소나무로 된 도굿대는 전체길이가 108cm이며,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손으로 잡기에 편리하다. 도굿대는 곡식을 내려찍는 아래쪽의 둘레가 29cm로 위쪽의 둘레보다 약 3cm가량 더 길다. 이는 공이 아랫부분에 힘을 더 많이 받게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함이다.

○ 용도

각종 곡식을 찧고 빻을 때 사용하거나 또는 떡을 치는 데에도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약 60년 전에 소장자의 조부가 돌을 파는 기술자를 불러 주문제작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돌쟁이'라는 떠돌이 기술자가 있어 주기적으로 마을을 돌며 절구를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제작을 요청한 사람이 알맞은 돌이나 나무재료를 구해다 놓으면 돌쟁이는 그것을 가지고 절구를 만들었는데 그 대가로 곡식 한 말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절구는 기술자에게 주문제작한 것이지만, 공이의 경우 집에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 수명 및 수선

절구는 특별한 수선이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이의 경우는 나무로 되어 있어 부러지거나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5년 정도 사용하면 다시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와 집에서 공이를 다시 제작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2) 맷돌

쌀이나 밀, 팥, 콩, 메밀 등의 곡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도구로 둥근 돌이 위·아래 두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쪽 돌에는 'ㄱ'자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고, 곡식을 넣는 구멍이 있다. 아래쪽 돌에는 곡식이 잘 갈리도록 홈이나 구멍이 나 있고, 가운데에 쇠를 박아 위·아래의 돌이 서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맷돌을 갈 때는 짚으로 엮은 맷방석을 깔고 통나무를 파서 만든 함지 위에 맷돌다리를 두고, 그 위에 맷돌을 올린다. 혼자서 돌리기도 하지만 주로 두 사람이 돌린다. 두 사람 중 한명은 손잡이를 잡고 맷돌을 돌리고, 한 사람이 곡물을 구멍에 떠 넣는다.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야 맷돌질이 쉽고 효율적이며 곡물이 알맞게 잘 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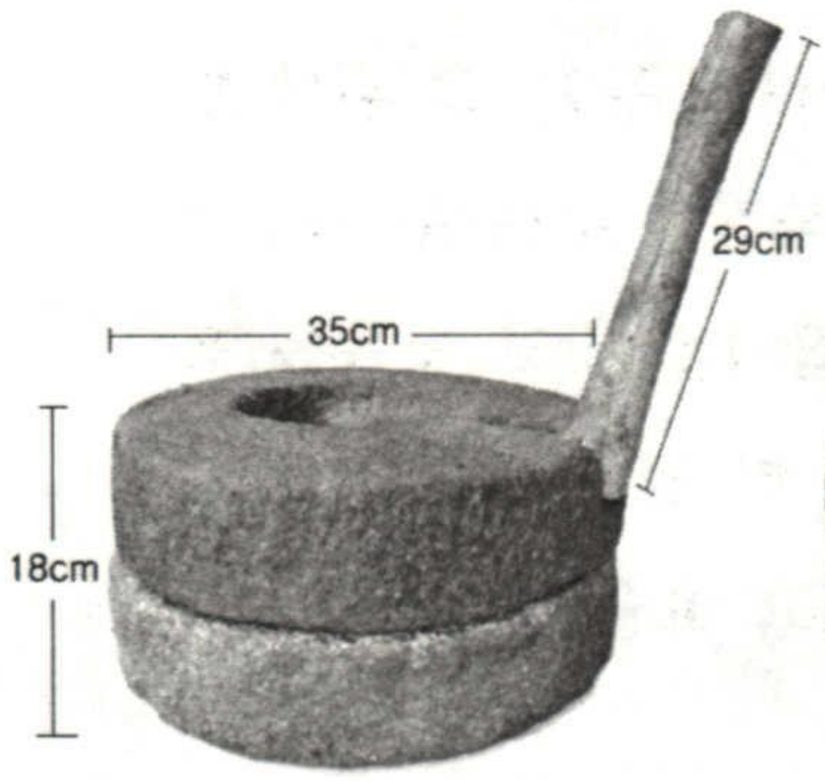
○ 명칭

맷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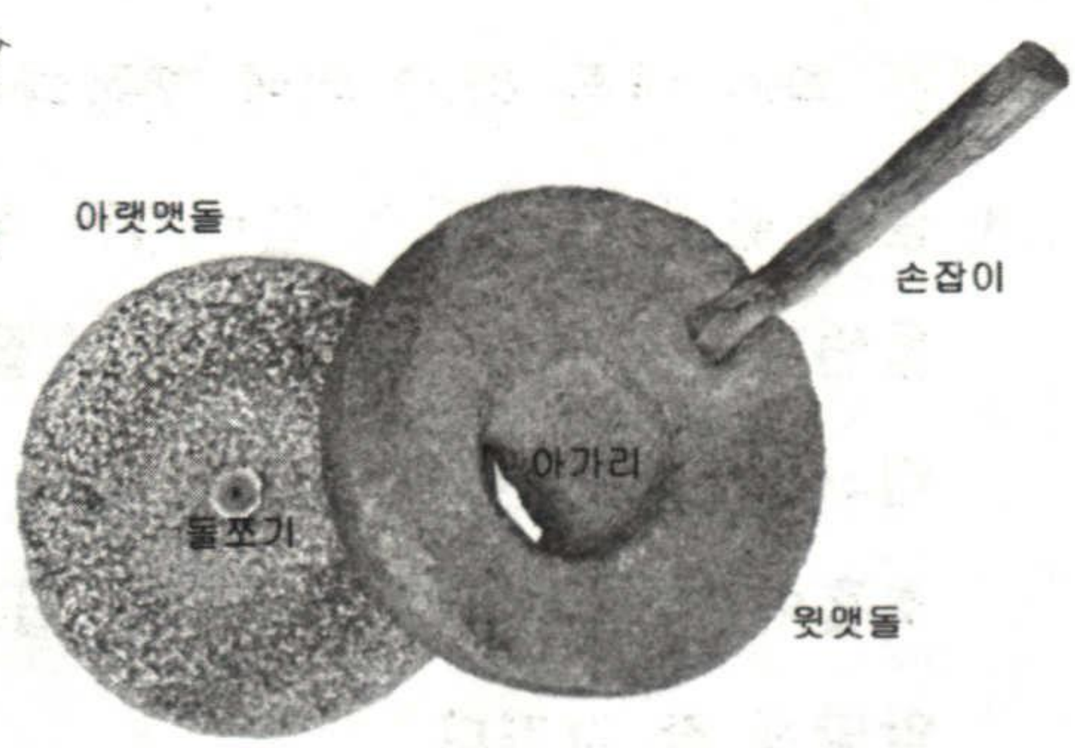
○ 구조

맷돌은 아랫맷돌과 윗맷돌로 이루어져 있다. 아랫맷돌의 중앙에는 '돌쪼기'라는 쇠침이 돌출되어 있는

데 이것은 윗맷돌과 겹칠 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윗맷돌에는 29cm가량의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아가리가 있다. 한사람이 맷돌 손잡이를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곡식이 갈려져 맷돌 밑에 받쳐둔 맷방석에 모이게 된다. 합쳐진 맷돌의 지름은 35cm이며, 높이는 18cm이다. 아랫맷돌의 무게는 22.7kg이고 윗맷돌의 무게는 22.0kg이다.



맷돌



아랫맷돌(좌)과 윗맷돌(우)

○ 용도 및 사용방법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 내거나 콩, 녹두를 물에 불린 후 갈 때에도 사용한다. 사용방법은 먼저 바닥에 맷방석을 깔고 그 위에 함지박이나 그릇을 두고, 쳇다리를 받친 후 맷돌을 올린다. 쳇다리 위에서 곡식을

갈면 그 내용물이 아래로 떨어져 모이게 된다. 함지박을 놓지 않고 맷방석 위에 바로 멧돌을 올리고 사용하기도 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약 100년 전에 소장자의 증조부가 정산시장에서 구입한 것을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맷돌몸통이 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맷돌 손잡이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10년에 한번 정도는 직접 제작한 것을 교체해주었다고 한다. 손잡이를 제작 할 때 가물태나무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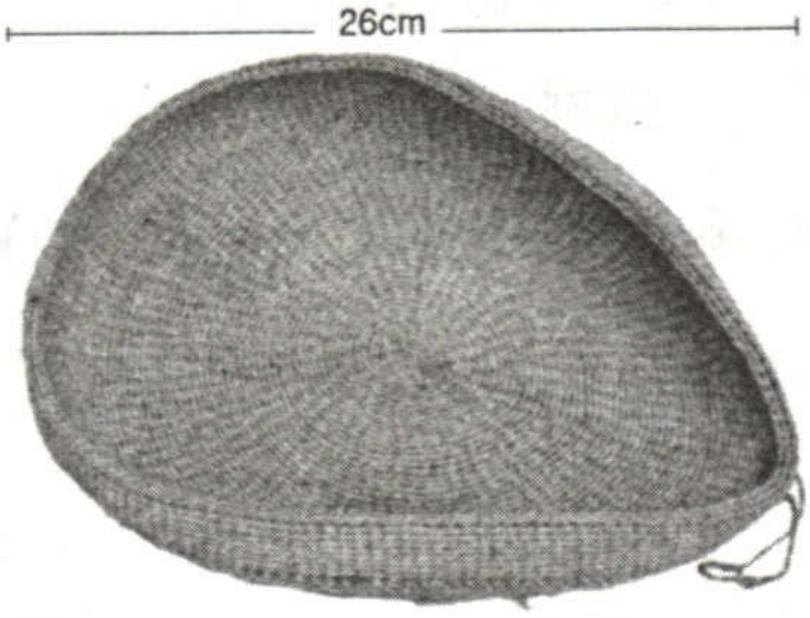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79세), 2006. 7. 4.

(3) 맷방석

○ 명칭

맷방석이라고 한다.



맷방석

○ 구조

둥근 방석 형태를 띠고 있으며, 방석 끝이 구부러져 올라가 있다. 지름은 26cm이며, 높이는 7cm이다.

볏짚이 뜯어지거나 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중으로 엮어 만들었다. 맷방석 끝에는 면사로 된 작은 고리가 달려있어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걸어둘 수 있게 되어있다.

○ 용도

맷돌 아래에 깔아 맷돌에서 떨어지는 내용물을 받는 데에 사용한다. 소량의 콩, 녹두, 팥을 말리거나 담아두는 데에도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30년 전에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볏짚을 가운데에서부터 촘촘하게 엮어서 만들었다.

○ 수명 및 수선

크게 손상되지 않는 이상 30~40년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수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시 직접 제작하여 교체한다.

○ 소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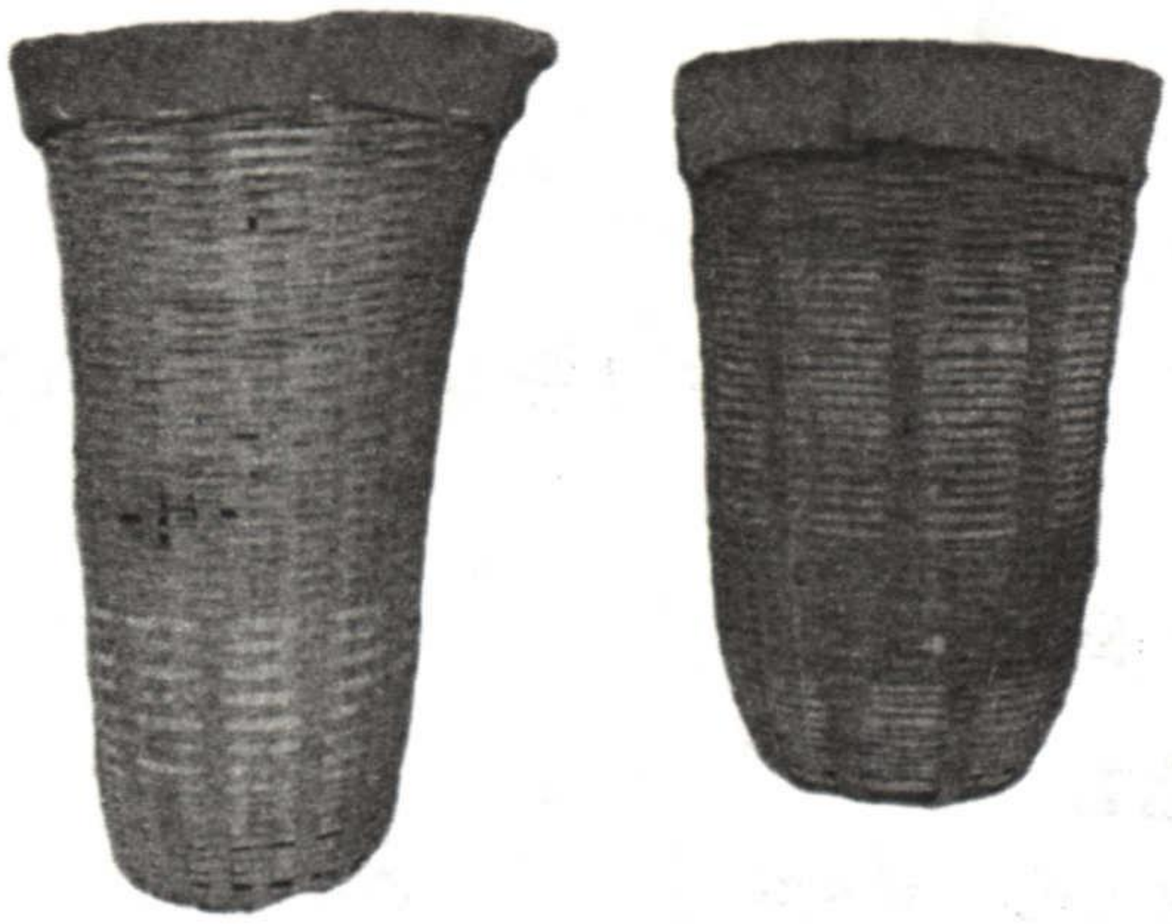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12) 거르는 도구

(1) 용수

○ 명칭

용수라고 불린다.



용수

○ 구조

대나무를 엮어 만든 긴 통으로 깊이는 36cm이며, 입구 지름은 23cm이다. 입구의 가장자리는 헝겊을 대어 두었다.

○ 용도

술 찌꺼기를 걸러내는 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약 40년 전에 집에서 자체 제작하여 약 10년간 사용했던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수선 없이 10년에서 15년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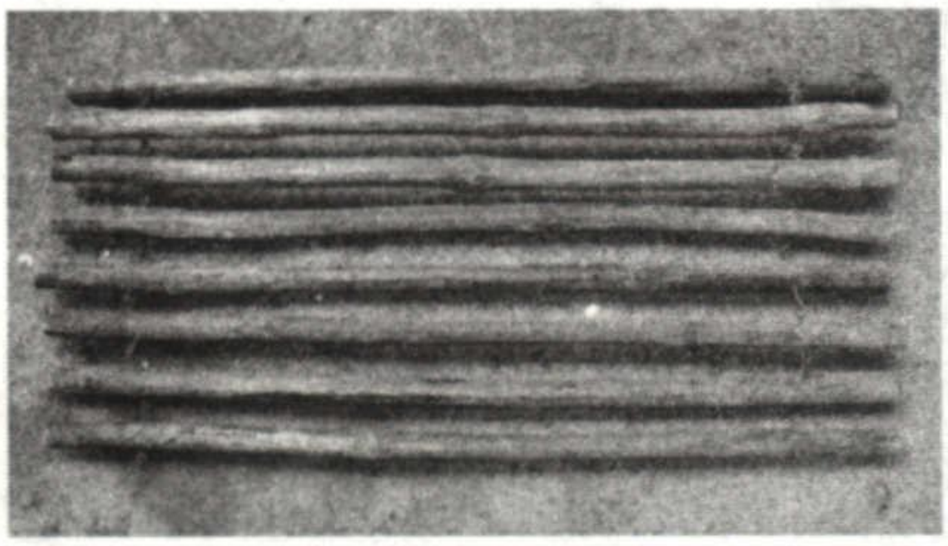
○ 소장자

- 청양읍 정좌 1리 이봉운(남, 69세), 2006.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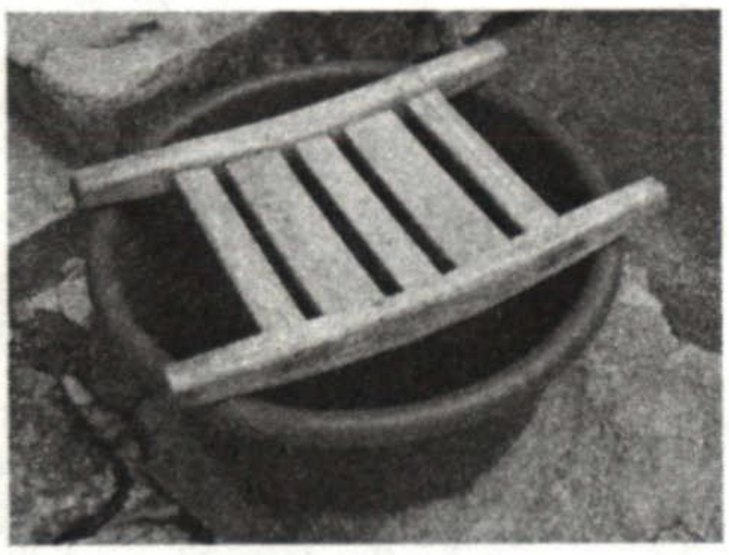
(2) 용발

○ 명칭

용발이라고 불린다.



용발



용발

○ 구조

양쪽의 용발대 사이에 여러 개의 나무막대를 연결시켜 둔 형태로, 용발대의 길이가 짧고 사이의 나무막대가 긴 것이 있는 반면, 용발대의 길이가 길고 사이의 나무막대가 짧은 형태가 있다. 전자의 용발대와 사이막대의 길이는 각각 43.5cm, 102cm이며, 후자의 것은 각각 65cm, 28cm이다.

○ 용도

두부를 만들 때 받침대로 사용하기도 하며, 엿을 고을 때에도 사용한다. 콩국물에 소금물을 넣어 끓인 후 응어리가 진 두부를 천에 옮겨 용발 위에 놓고 누르면 아래로 콩물이 빠지고 천에 두부만 남게 된다. 용발 아래에 솥이나 대야 위에 올려 놓고 사용한다. 엿을 고을 때에도 똑같이 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전자의 것은 40년 전에 집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며, 후자의 것은 20년 전에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전자의 것은 나무가 쉽게 부식하기 때문에 10년 정

도 사용하면 부분적으로 나무를 교체해야 하지만, 후자의 것은 공장에서 약품처리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손상이 없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3. 축산용구

1) 축산도구

(1) 구수

소의 먹이를 담는 통이다. 긴 통나무를 반으로 자르고 그 가운데를 움푹하게 파낸다. 주로 밤나무를 사용하는데, 만든 후 20일 동안 구수통에 물을 넣고 수시로 갈아 주어 나무진과 냄새를 뽑아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나무가 썩거나 터지지 않고, 갈라지지도 않으며, 뜨거운 소죽을 넣어도 뒤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진액과 냄새를 뽑아낸 후 다듬어서 외양간 기둥에 소가 먹기 좋은 높이로 매단다. 요즘에는 페타이어를 반으로 잘라서 이용하기도 한다.

○ 명칭

청양에서는 '구유'라고 한다.

타이어를 이용한 구유

○ 구조

청양지역의 구유는 나무로 만든 것과 시멘트로 만든 것, 폐타이어로 만든 것 등이 있다. 나무구유는 두꺼운 밤나무의 아랫부분을 잘라 나무통을 만든 후 그 윗부분을 잘라 배(船)와 유사한 모양을 만든 것이다. 통나무의 윗부분을 깊게 파서 소에게 줄 여물을 둘 큰 홈을 만들었다. 통나무의 양쪽에는 20cm 정도의 받침을 만들고 그 중간에 홈을 내어 기둥에 끼워두었다. 전체크기는 56cm×141cm이다. 운곡면 위라리의 것은

시멘트를 사용하여 구유형태의 모양을 낸 것이다. 받침대 없이 구유만을 놓고 사용한다. 전체크기는 51cm ×129cm이다. 페타이어를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용도

소의 먹이를 담아 주는 여물통으로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나무구유는 40년 전 마을의 목수에게 품삯으로 쌀 한 말을 주고 주문제작한 것이다. 산에서 필요한 소나무를 구해두면 목수가 와서 한나절 정도 걸려 제작하였다고 한다. 시멘트로 만든 구유는 15년 전에 집에서 시멘트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한 것이다. 제작할 때 소요시간은 약 3~4시간 정도였으며 시멘트가 완전히 마른 이틀 후부터 사용했다.

○ 수명 및 수선

나무구유는 제작한지 40년 정도 된 것으로, 갈라진 부분만 못질하여 부분적으로 수선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다. 시멘트구유는 구조나 재질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선이 거의 필요 없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 운곡면 위라리, 복진용(남, 78세), 2006. 7. 6.

(2) 작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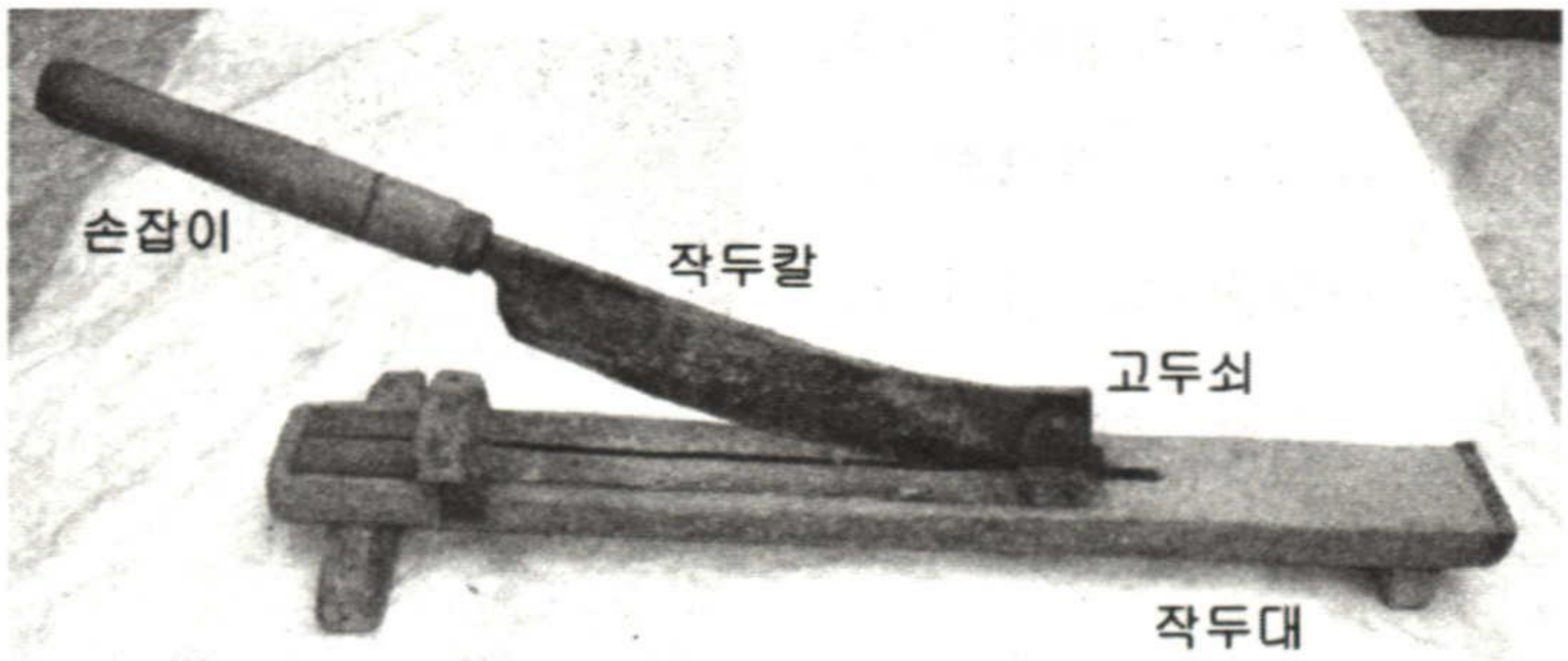
소나 돼지에게 먹일 짚, 풀, 콩깍지, 옥수수 등 사료를 자를 때 사용하는 것으로 홈이 파여진 나무토막 위에 칼날을 끼워 칼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써는 도구이다. 손으로 칼을 움직이는 손작두와 발로 밟아서 칼날을 움직이는 발작두가 있다.

○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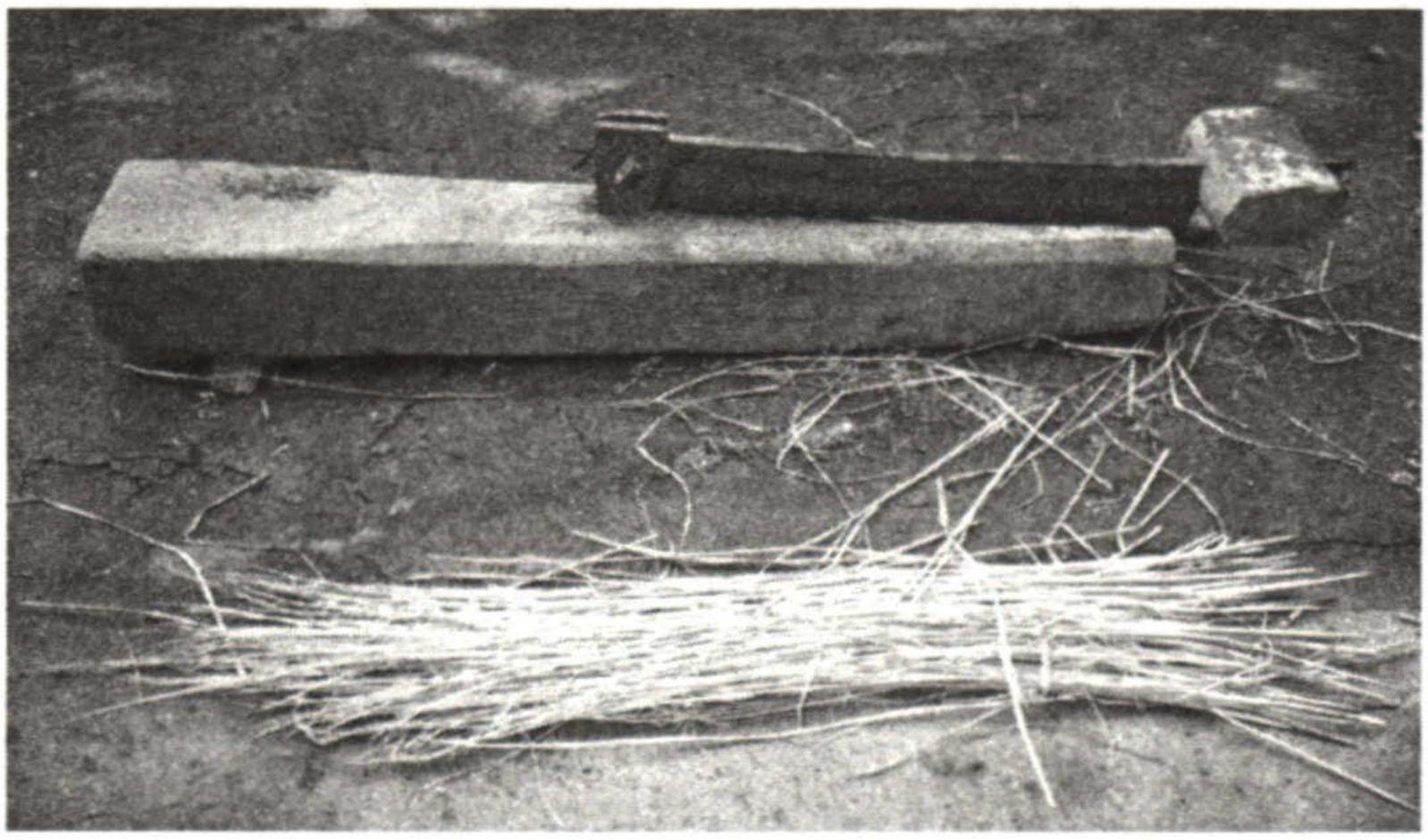
작두의 사용방식에 따라 손작두와 발작두로 나뉘고, 작두의 각 부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표 3> 손작두와 발작두의 각 부분명칭

지역 / 명칭	청남면 중산리	운곡면 위라리	운곡면 위라리	정산면 천장리
	손작두	손작두	발작두	발작두
작두바탕	작두대	작두대	작두대	작두판
고두쇠	고두쇠	쇠	쇠	쇠
고등쇠	쇠고리	쇠	쇠고리	쇠
발판	-	-	발판	발판



손작두



발작두

○ 구조

손작두는 손의 힘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잡고 작두칼을 내리눌러 그 사이에 끼워둔 여물을 써는 것이다. 청남면 중산리의 손작두는 11cm×100cm의 작두대라

불리는 나무막대의 가운데에 약 72cm 가량의 긴 홈을 파두고 그 위에 쇠를 덧대었다. 쇠 위의 안쪽 끝부분에는 고두쇠라는 쇠기둥 두 개를 세워두고 그 반대편 끝부분에는 손잡이 받침 역할을 하는 나무토막을 달았다. 쇠기둥 사이에는 80cm의 작두칼을 끼워 기다란 쇠로 고정시켰다. 또한 작두대의 밑에는 받침용으로 나무토막 두개를 받쳐두었다. 운곡면 위라리의 손작두는, 소나무로 된 12cm×64cm의 작두대 위에 30cm가량의 칼날받침을 나사로 고정시켜 두고 기다란 쇠를 이용하여 69cm의 작두날과 연결시켜 두었다. 칼날이 나무토막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작두대 위로 돌출된 칼날받침으로 칼날이 드는 방식이다.

발작두 사용 모습

발작두는 작두칼 끝에 달린 발판을 발로 내리눌러 그 사이에 끼워둔 여물을 써는 것이다. 운곡면 위라리

의 발작두는 손작두와 그 형태가 유사하지만 칼날의 길이가 53cm로 발작두의 것보다 훨씬 짧으며, 칼날 끝에 손잡이 대신 굵은 나무토막으로 된 발판이 달려 있다. 또한 발판 옆으로는 칼날을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새끼줄이 연결되어 있다. 작두대의 크기는 16cm×96cm이며, 작두날의 길이는 70cm이다. 정산면 천장리의 것은 40cm×70cm의 작두판의 끝에 10cm×70cm의 쇠판을 붙여놓았다. 쇠판의 중간부분에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는 60cm의 틈이 만들어져 있다. 100cm의 작두날은 전체가 쇠로 이루어져 있다. 발의 움직임만을 이용하여 칼날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판이나 줄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작두판의 밑에는 15cm의 높이의 밑받침이 부착되어 있다.

○ 용도

보통 소에게 먹일 짚, 풀 등의 여물을 써는데 사용하지만, 운곡면 위라리의 손작두의 경우는 칡뿌리, 유무초와 같은 약초를 썰 때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작두대의 경우 대부분 집에서 소나무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하며, 날은 청양이나 정산시장의 대장간에서 구입한다.

○ 수명 및 수선

특별히 도구의 큰 손상이 없으면 10~15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작두날은 작업량이 많으면 무뎌지기 쉬우므로 1년에 1번 정도 대장간에서 날을 벼린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 운곡면 위라리, 복진용(남, 78세), 2006. 7. 6.
- 운곡면 위라리, 최송환(남, 64세), 2006. 7. 6.

(3) 코뚜레

소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코에 구멍을 뚫어 코뚜레를 건다. 코뚜레는 노간주나무나 등나무, 다래나무를 둥글게 휘어서 코에 끼운 것이다. 곧은 나무를 둥글게 말 때는 나무에 들기름을 바르고 불에 굽는다.

○ 명칭

코뚜레라고 한다.

코뚜레

○ 구조

원모양의 휘어진 노간주나무를 헝겊과 노끈을 사용하여 매듭을 지었다. 코뚜레의 두께는 2cm, 지름은 20cm이다.

○ 용도

소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부리기 위하여 코에다 구멍을 뚫어 코뚜레를 다는 것이다. 소의 코를 뚫을 시에는 콧속의 부드러운 부분을 바늘로 먼저 뚫은 후에 피가 멎으면 코뚜레를 단다.

○ 제작 및 구입관계

25년 전에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노간주나무를 아궁이 불에 살짝 굽거나 또는 여물 솥에 잠깐 삶으면 나무의 속살이 부드러워져 둥글게 만들 수 있다.

○ 수명 및 수선

특별한 수선이 필요 없이 30~40년은 무리 없이 사

용할 수 있다.

○ 소장자

- 남양면 온암리, 김의욱(남, 66세), 2006. 7. 7.

(4) 소긁개

○ 명칭

소긁개라 한다.

○ 구조

손잡이가 달린 둥근 원형태로 쇠의 양면에는 뾰족한 톱날이 달려 있다. 원의 지름은 10cm이며 손잡이의 길이는 9cm이다.

○ 용도

소의 털을 긁어내는 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20년 전에 청양시장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수선이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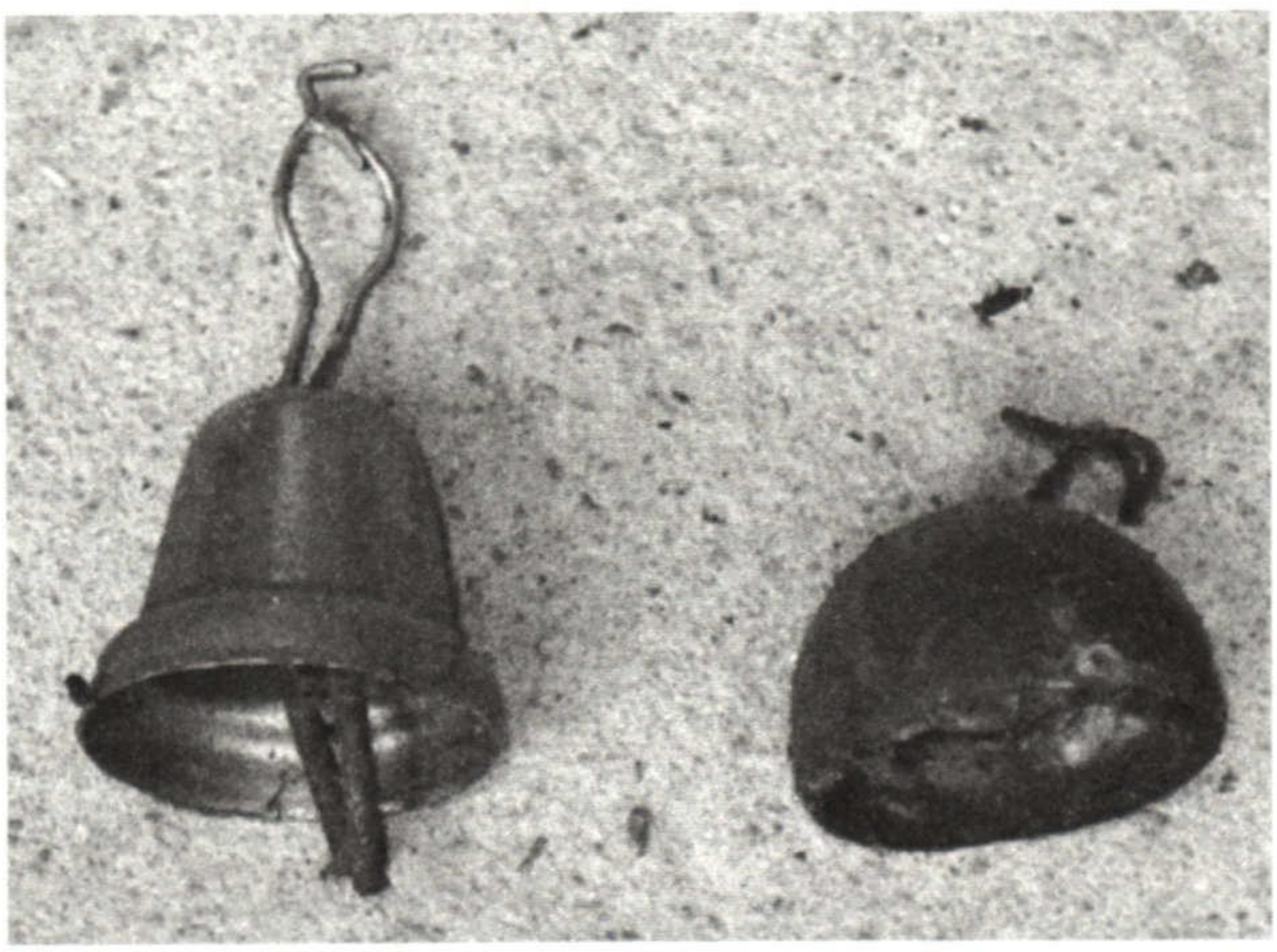
○ 소장자

- 남양면 온암리, 김의욱(남, 66세), 2006. 7. 7.

(5) 소방울

○ 명칭

소방울이라고 한다.



소방울

○ 구조

두 가지 쇠종이 있는데, 하나는 쇠종 아랫부분이 굴곡이 져 있으며 종 안쪽에 굵은 철사 두 개가 달려 있어 밖으로 길게 뻗어있다. 다른 하나는 둥근 반구(半球)형태로 종을 울리는 짧은 철사줄 하나가 종 안

에 들어있다. 각 종의 높이는 각각 5cm, 3cm이며 지름은 5cm로 동일하다. 무게 역시 300g으로 동일하다.

○ 용도

소의 목에 달아 소의 움직임과 위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반구형의 종은 약 100년 전에 소장자의 증조부가 사용하던 것이며, 높은 종은 20년 전에 청양시장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종 안쪽의 철사가 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수선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소장자

- 남양면 온암리, 김의욱(남, 66세), 2006. 7. 7.

2) 양봉도구

(1) 벌멍덕

벌멍덕

○ 명칭

벌멍덕이라 한다.

○ 구조

짚을 꼬아 만든 세모꼴의 모자형태를 하고 있다. 높이는 20cm, 둘레는 80cm이다. 위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 멍덕을 걸기 쉽게 해 두었고, 벌멍덕 밖으로는 진흙을 발라두었다. 이는 벌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벌통 위에 올려놓았을 때 개미나 거미와 같은 벌레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 용도

산 속의 벌을 받아와 벌통 안으로 옮기는데 사용한다. 보통 산에 올라가면 참나무에 벌들이 집을 지어 모여 있는데 그 근처에 벌멍덕을 올려두면 곧 벌 떼가 그것에 달라붙기 시작하고, 벌이 어느 정도 멍덕에 붙으면 조심스럽게 가지고 내려와 벌통 위에 얹는다.

벌 떼가 잘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손에 그것을 들고 벌 떼 근처에 가서 벌을 받아오기도 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40년 전에 짚을 사용하여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40년 전에 만든 것으로 양봉을 그만둔 5년 전까지 사용했던 것이다. 관리만 적절하게 하면 30~40년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2) 벌통

○ 명칭

벌통이라 한다.

○ 구조

소나무로 된 나무판자를 덧대어 만든 것으로 각 연결부위는 못을 박아 고정시켜 두었다. 벌통의 아래와 윗부분은 모두 개방되어 있다. 입구 면은 19cm×16cm

이며, 높이는 50cm이다. 예전에는 통나무를 깎아서 벌통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벌 통

○ 용도

벌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벌멍덕으로 받아온 벌들을 벌통 입구에 대면 이내 벌들이 안으로 들어가 새끼를 치고 벌꿀을 모아 살기 시작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30년 전에 집에서 나무판자를 모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양봉을 그만둔 5년 전까지 사용하였다. 판자를 모아 제작하기 전에는 통나무 하나를 깎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 수명 및 수선

보통 30년 사용할 수 있다. 손상된 부분은 나무판자를 덧대어 수선한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4. 운반용구

1) 지게

지게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이나 곡식을 옮기는 가장 대표적인 운반도구이다. 농사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할 때나 등짐장수나 젓갈장수들도 사용했다. 물론 소나 말을 이용한 방법도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소와 말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게를 이용해 물건을 날랐다. 탈 것이 없는 곳에서는 병자나 노인, 어린이들도 지게로 옮겼으며 가난한 집에서는 송장도 지게에 얹어서 운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지게가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기원이 오래되었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신라시대의 토우에서 보면 지게를 지고 있는 모습의 인물상이 발견된다. 보편적인 지게는 'y'자 모양의 나무 2개를 연결하고 어깨에 멜 수 있도록 끈을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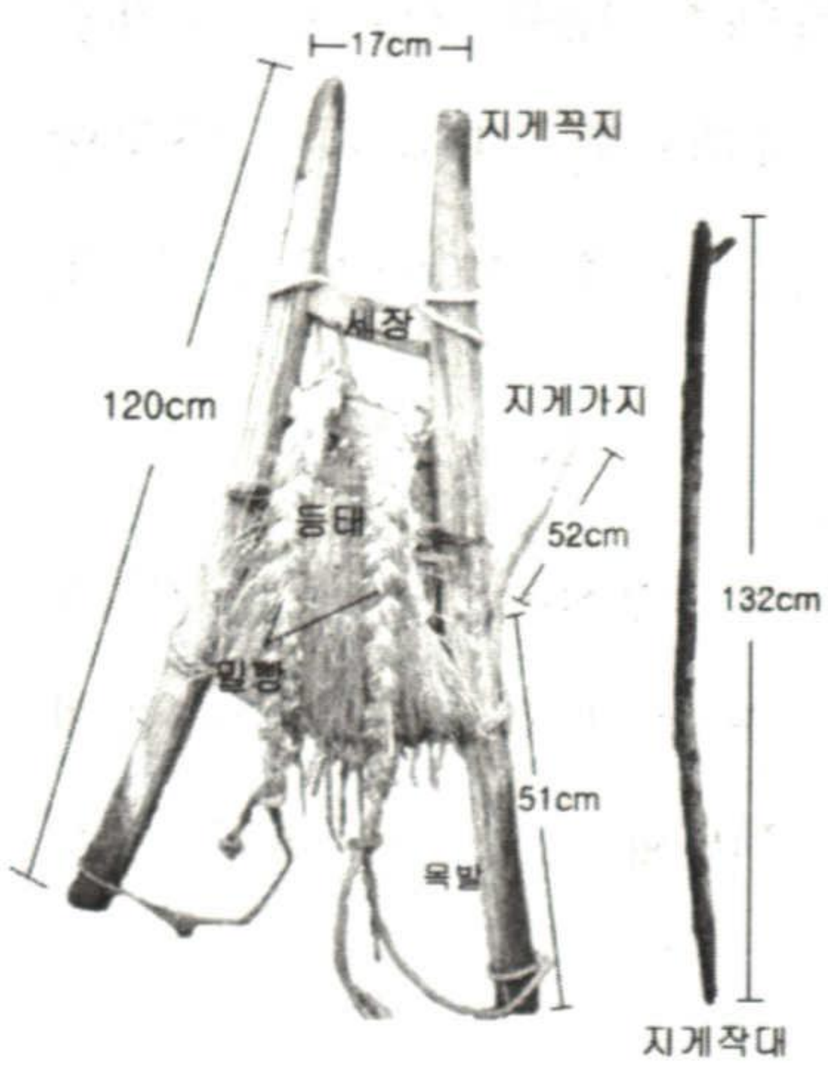
형태로 등 뒤에 물건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게는 지게작대기와 함께 사용하는데, 지게작대기는 지게를 세워두는 버팀목이자 지게를 지는 사람의 지팡이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지게의 구조를 응용해 만든 것으로는 물지게와 거름지게가 있다. 물지게와 거름지게는 운반하는 대상물이 물과 거름으로 다를 뿐 그 형태와 구조는 동일하다. 이들 지게는 등 뒤로 물건을 싣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물건을 싣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등태 옆쪽으로 나무기둥을 연결하고 그 끝에 'S' 자 형태의 고리를 달아 통을 매달 수 있게 해 두었다.

(1) 지게

○ 명칭

지게라고 한다. 각 부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지방명 / 표준명	정산면 천장리	청양읍 정좌 1리
세 장	소상(小:17cm, 大:32cm)	세 장
가 지	지게버들갑지(52cm)	지게가지(50cm)
등 태	등 태(33cm)	등 태(38cm)
목 발	목 발(51cm)	목 발(54cm)
밀 삐	밀 빵(49cm)	밀 빵(53cm)
작 대 기	작 대(132cm)	지게작대(110cm)



지게와 지게작대

지게를 맨 모습

○ 구조

'Y'자 형태의 자연목 두개 사이에 20~30cm가량의 나무막대 3~4개를 연결한 형태이다. 지게가지는 짐을 받쳤을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위쪽으로 돋아 있는데, 지게꼭지와 이루는 각도가 약 80°~85°정도이다. 나무막대를 연결해 둔 지게의 중앙부분에는 등을 받칠 수 있도록 짚으로 짠 '등태'와 '밀빵'을 달아두었다. 짚으로 짠 위에 천을 감아두거나 지게 위에 실은 짐을 묶어 고정시킬 수 있는 줄을 지게꼬리에 달아두기도 한다. 지게를 세워둘 때 사용하는 지게 작대기는 끝이

Y자 형태로 갈라져 있어 벌어진 나무 사이로 지게를 기대어 둔다. 경우에 따라 작대기를 대어두는 나무막대에 V자형의 홈을 파두어 고정시킬 수 있게 해 둔다.

○ 용도

곡식, 볏단, 나뭇단, 비료 등 농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지게로 운반한다. 보통 싸리로 만든 바지게를 얹어서 사용한다. 보통 한번에 50~60kg까지 싣고 운반할 수 있다.

○ 제작 및 구입관계

40~50년 전에 마을의 목수에게 품삯으로 곡식 한 말을 주고 주문제작한 것이다. 보통 하나의 지게를 만드는데 하루에서 이틀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필요한 재료만 준비해두면 목수가 낫, 톱, 대패 등의 공구를 가져와 작업을 했었다고 한다.

○ 수명 및 수선

처음 제작을 하기 위해 나무를 선택할 때 견실한 나무를 골라 지게를 만들면 50~6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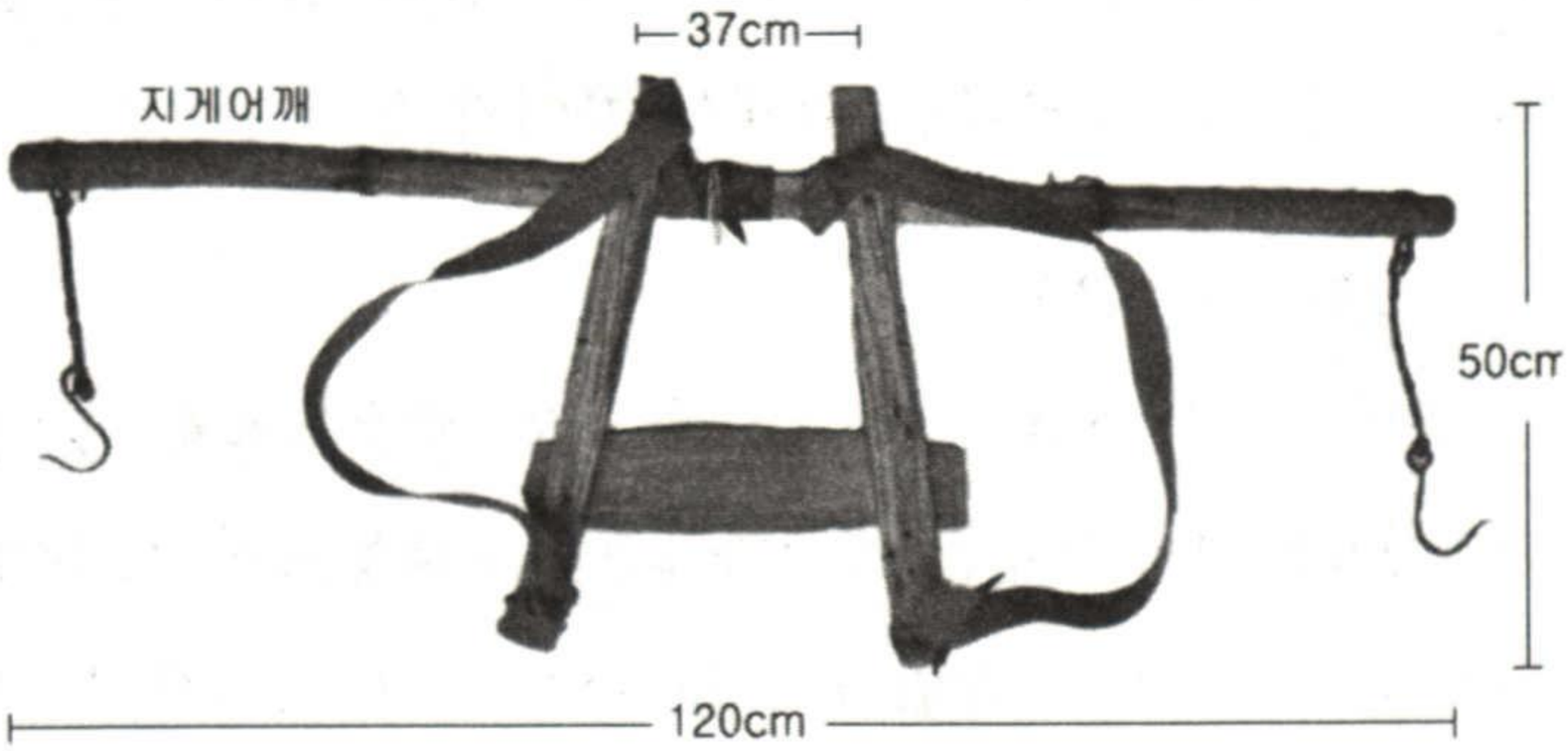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 청양읍 정좌1리, 이갑술(남, 73세), 2006.7. 7.

(2) 물지게

○ 명칭

물지게라고 한다.



지게

○ 구조

120cm의 지게어깨 가운데에 50cm의 나무막대 두 개를 37cm 간격으로 고정시켰다. 아래쪽에는 나무판을 달아서 고정을 했는데, 지게의 등태와 같은 역할이다. 나무막대에는 고무로 어깨끈을 달아 두었다. 전체

적인 틀은 'ㅠ'와 비슷한 형태이며 지게어깨 양쪽 끝에 철사줄을 늘어뜨리고 S자 형태의 고리를 매달아 두었다. 이 고리에 물통을 매단다. 물통을 제외한 지게의 무게가 2.5kg이다.

○ 용도

지게어깨에 달린 쇠고리에 물통을 매다는데, 양쪽에 2개를 단다. 물통 외에 거름통을 걸고 사용하기도 한다. 지게가 짐을 뒤로 메는 것과 달리 물지게는 짐을 양 옆으로 매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제작 및 구입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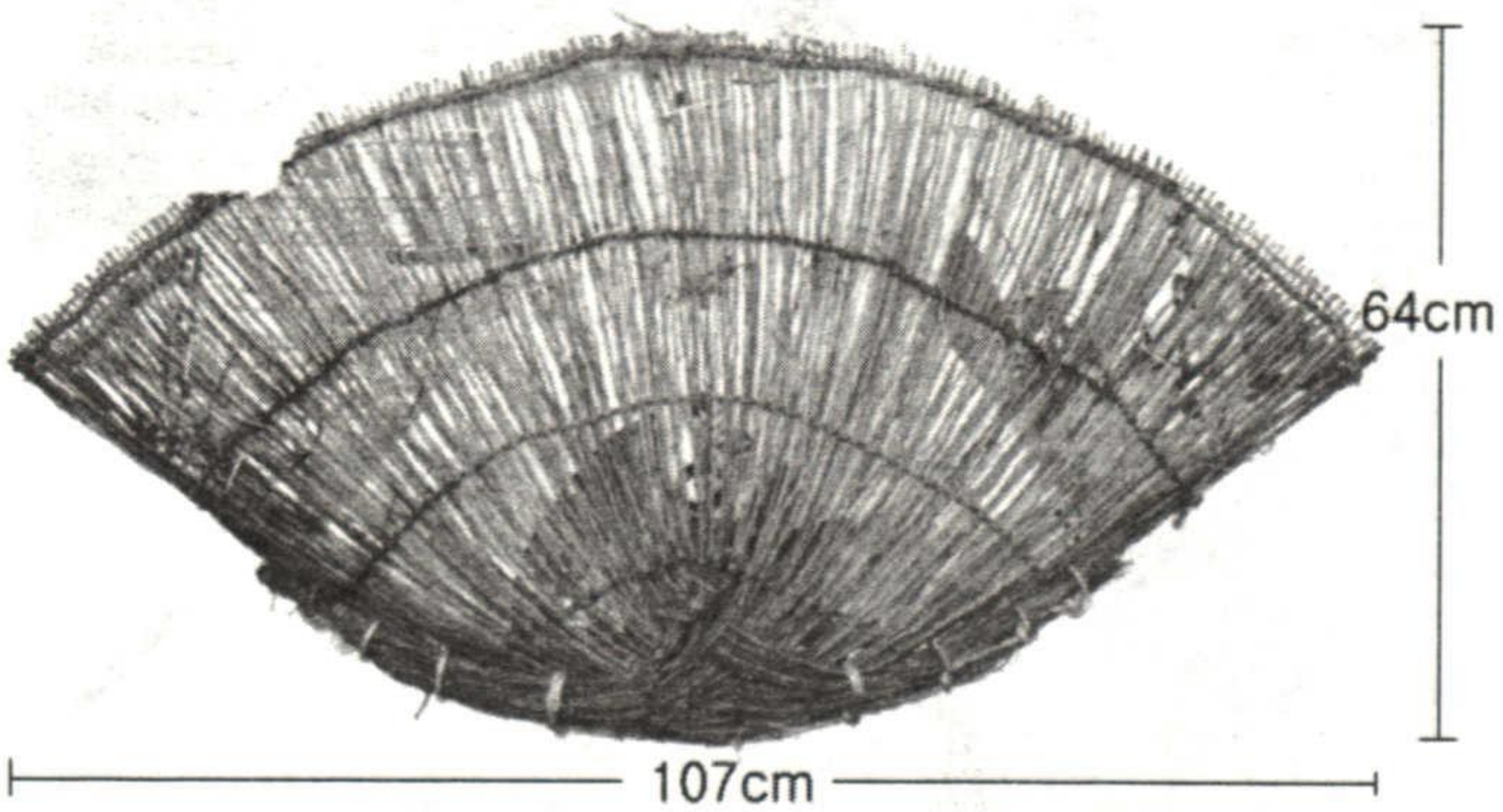
50년 전에 마을의 목수를 불러와 주문제작한 것이다. 몸체로 쓸 참나무 가지와 쇠만 구해놓으면 목수가 와서 2~3일 동안 작업하여 완성한다. 그 삯으로 보리 한 말과 막걸리 두 사발을 주었다고 한다. 크게 손상되지만 않고 연결하는 끈만 교체해준다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2) 바소거리

바지게, 바재기 등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둥글고 넓적한 부채꼴의 바구니와 같은 모습이다. 싸리를 엮어서 만들고 접었다 폈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로 물건을 담아 지게 위에 얹어서 이동한다.



바지게

○ 명칭

'바소쿠리' 또는 '바지게'라고 한다.

○ 구조

싸리를 넓적한 조개 모양으로 엮어 빨랫줄 하나를 묶어두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해두었다. 노끈과

빨랫줄을 이용하여 각각 바소쿠리의 바닥과 몸체를 엮어 고정시켜두었으며, 바소쿠리의 내부에는 비료포대를 깔아서 내용물을 담을 때 빠지거나 새 나아가는 것을 막아 두었다. 바지게의 깊이는 64cm이고 가로 너비는 107cm이다.

바지게를 얹은 지게

○ 용도

지게 위에 그대로 얹어 운반하기에는 힘든 물품, 예를 들어 곡식·곡물가루·씨앗·거름 등을 바소쿠리에 담아 지게에 얹어 운반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10년 전에 정산시장과 청양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이음새만 잘 수선하면 10~1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 청양읍 정좌1리 이갑술(남, 73세), 2006.7. 7.

3) 구루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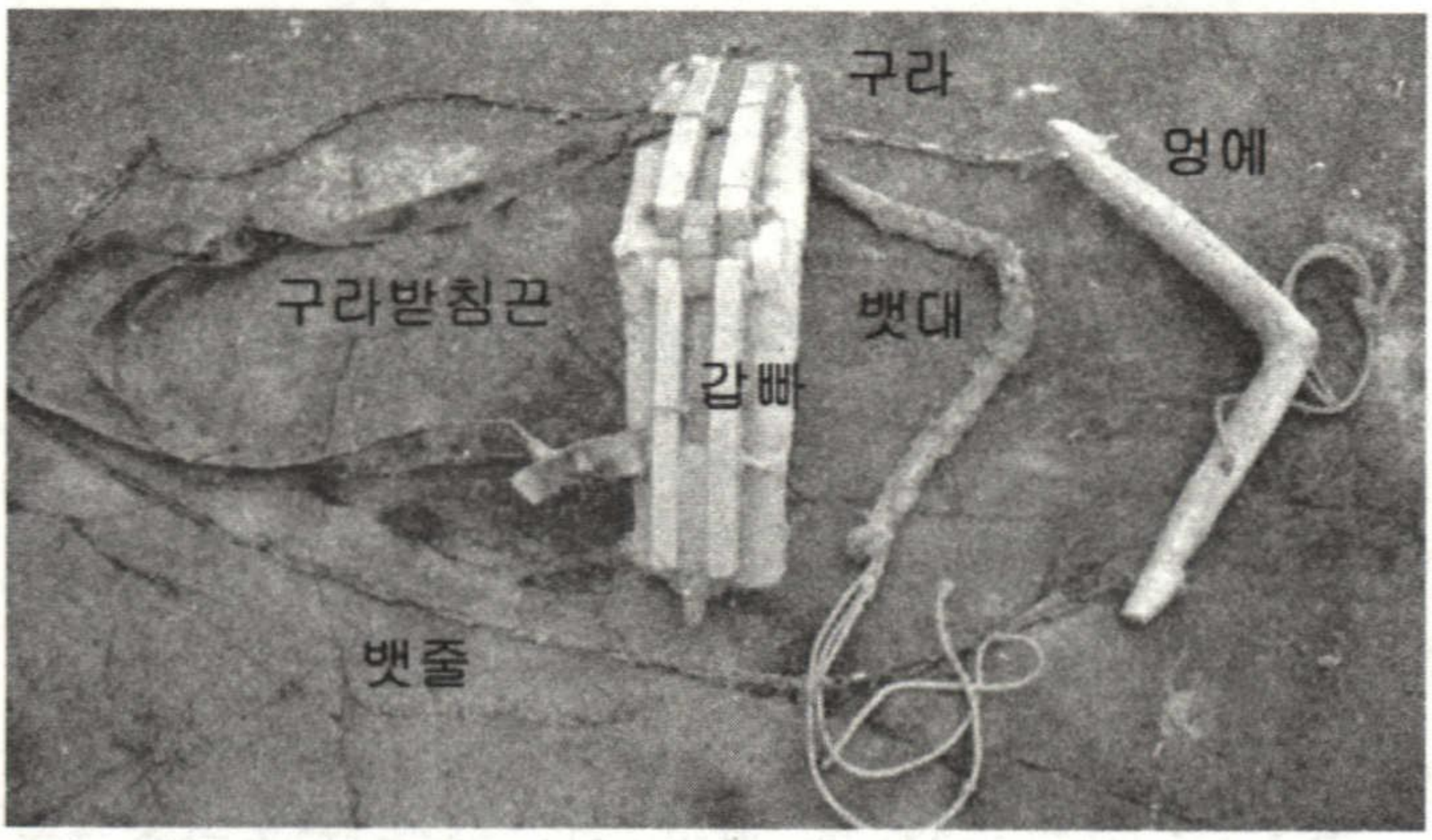
소는 농사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특히 소에 특정한 도구를 연결해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하여 사람이 운반하기 힘든 물건을 옮기기도 하였다.

○ 명칭

운반도구와 소와 물건을 운반도구를 연결하는 전체를 통틀어 '소 구루마도구'라고 한다.

○ 구조

소 구루마도구는 구라, 구라받침끈, 멍에, 벳대, 벳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분의 명칭과 치수는 다음과 같다.



소 구루마도구

- 구라 - 높이: 32cm, 너비: 69cm
- 구라받침끈: 200cm(중간끈: 32cm)
- 멍에 - 높이: 28cm, 너비: 62cm
- 벳대 - 길이: 72cm, 두께: 8cm
- 벳줄 - 길이: 210cm

구라는 소의 등을 따라 구부러진 'ㅅ'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안쪽으로는 7cm 가량의 두께로 두툼하게

짠 짚단을 천으로 덮고 그 위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갑빠를 덧대었다. 갑빠는 중앙의 쇠가 양쪽에 달린 ‖ 자형태의 나무막대를 고정하고 있는 형태로, 양쪽 끝에는 물건을 걸 수 있도록 쇠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천으로 된 구라받침끈은 소의 궁둥이에 대는 끈으로, 구라가 소등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기능을 안다. 밧줄로 이루어진 뱃대는 소 배부분에 대어 구라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며, 쇠사슬로 된 뱃줄은 마차를 끌 때 사용한다.

○ 용도

나무, 돌, 쌀가마니, 각종 곡식 등 사람이 직접 운반하기에 힘든 물건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한다. 걸채, 거지게 등에 실린 짐 등을 얹어두고 운반하기도 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40년 전에 마을의 목수를 불러 주문제작한 것으로, 삯으로 쌀 두 말을 주었다고 한다. 보통 목수를 고용하여 제작하면 하루정도에 모두 완성할 수 있다.

○ 수명 및 수선

40년 된 것으로 경운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30년 전

부터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대부분의 재료가 짚, 천,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 사용할 때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부속품들을 부분적으로 수선해주었다고 한다.

○ 소장자

- 청양읍 정좌1리, 이갑술(남, 73세), 2006.7. 7.

4) 구럭

○명칭

'구럭'이라 한다.

○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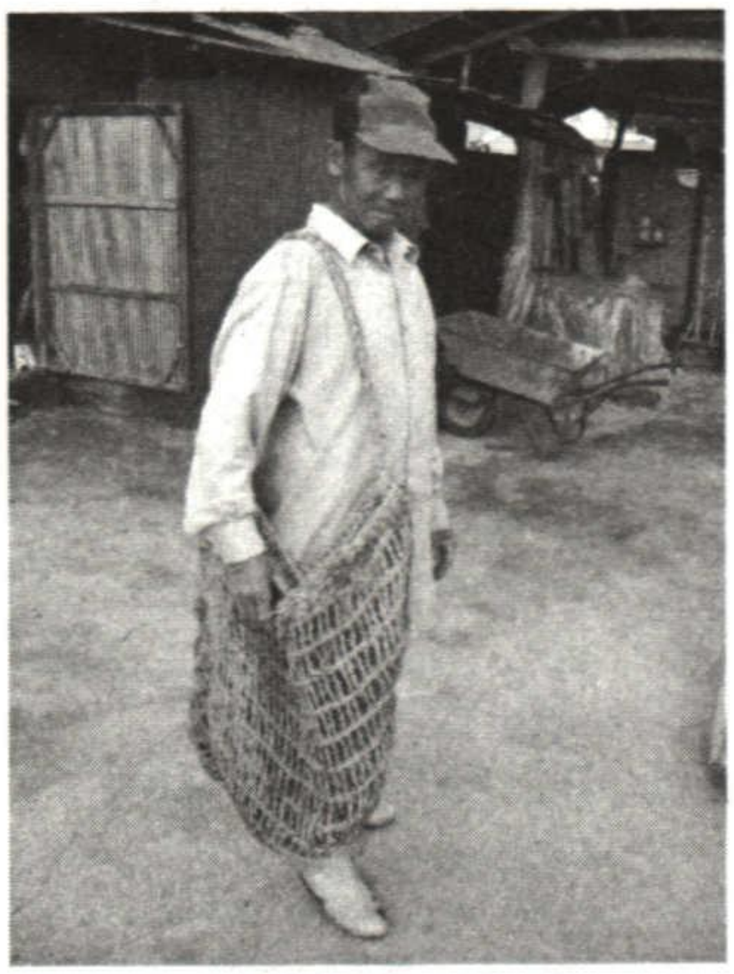
짚을 사용하여 네모꼴로 짠 것으로, 구럭통의 깊이는 44cm, 너비는 52cm이며 구럭끈의 길이는 47cm이다. 구럭통의 몸체는 통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1cm×2.5cm의 직사각형 틈새를 내었다.

○ 용도

물건을 담아 운반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감자, 고구마, 감 등 각종 곡식과 과일을 저장할 때에도 사용

한다. 끈이 달려 있어 어디든 걸어두기 편리하고 구멍이 뚫려 있어 곡식을 담아두면 통풍이 잘 되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구럭


구럭을 메고 있는 모습

○ 제작 및 구입관계

50년 전에 소장자의 부친이 제작한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10년 전까지 사용했다.

○ 수명 및 수선

짚을 꼬아 손상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수선하면 70~8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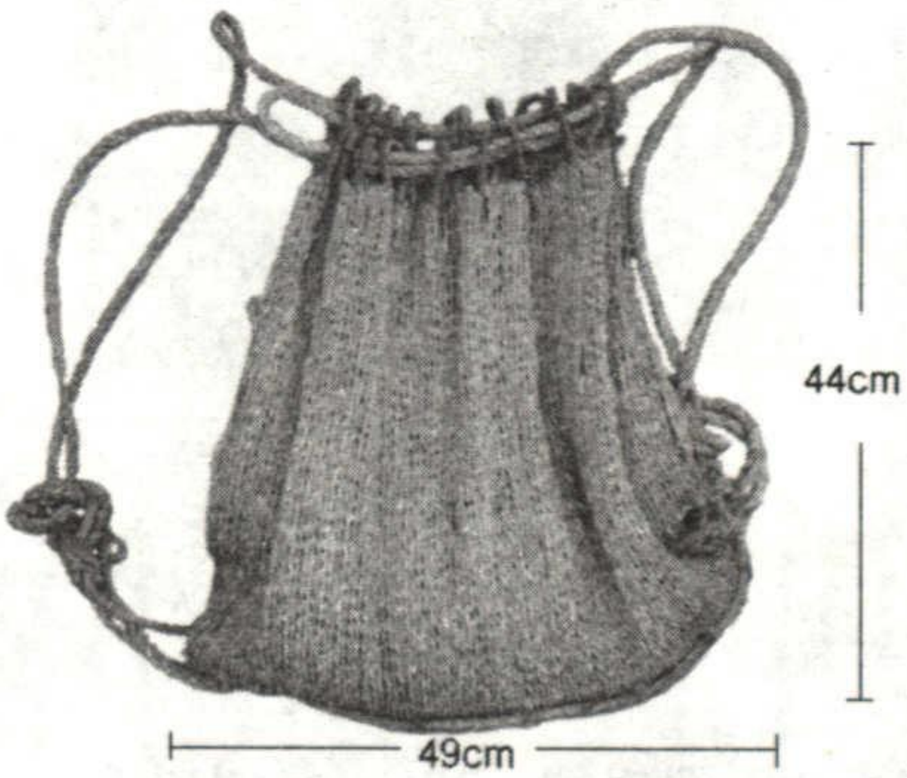
○ 소장자

- 운곡면 위라리, 김종갑(남, 71세), 2006.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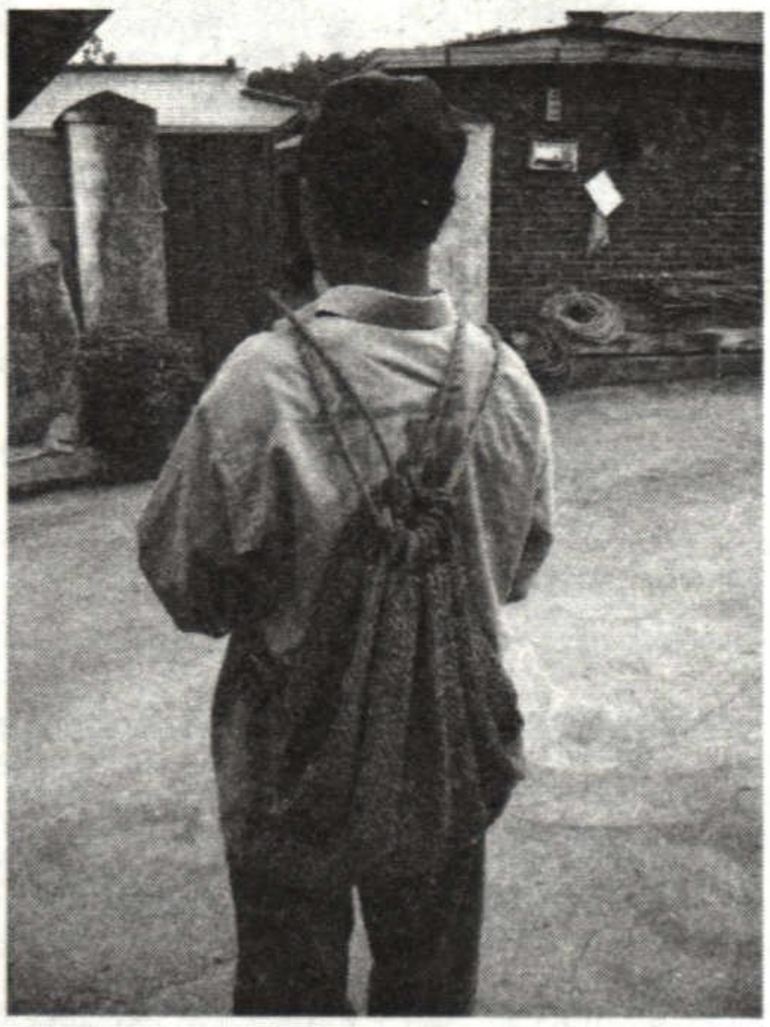
5) 봉냥망탱이

○ 명칭

'봉냥망탱이'라고 한다.



봉냥망탱이



봉냥망탱이를 메고 있는 모습

○ 구조

왕굴을 엮어 만든 네모꼴의 형태로, 올이 촘촘하여 틈새가 매우 작다. 망탱이의 입구에는 싸리를 엮어 만든 여러 개의 고리를 달아두었으며, 그 사이로

는 양어깨에 맬 수 있는 어깨끈을 끼워두었다. 망탱이의 깊이와 너비는 각각 44cm, 49cm이며, 어깨끈의 길이는 38cm이다.

○ 용도

어깨 끈을 이용해 등에 가방처럼 메는 것으로 봉냥, 마, 천마, 더덕과 같은 약초를 담아 운반하는데 사용한다. 쇠꼴을 베러 갈 때 사용하기도 했다.

○ 제작 및 구입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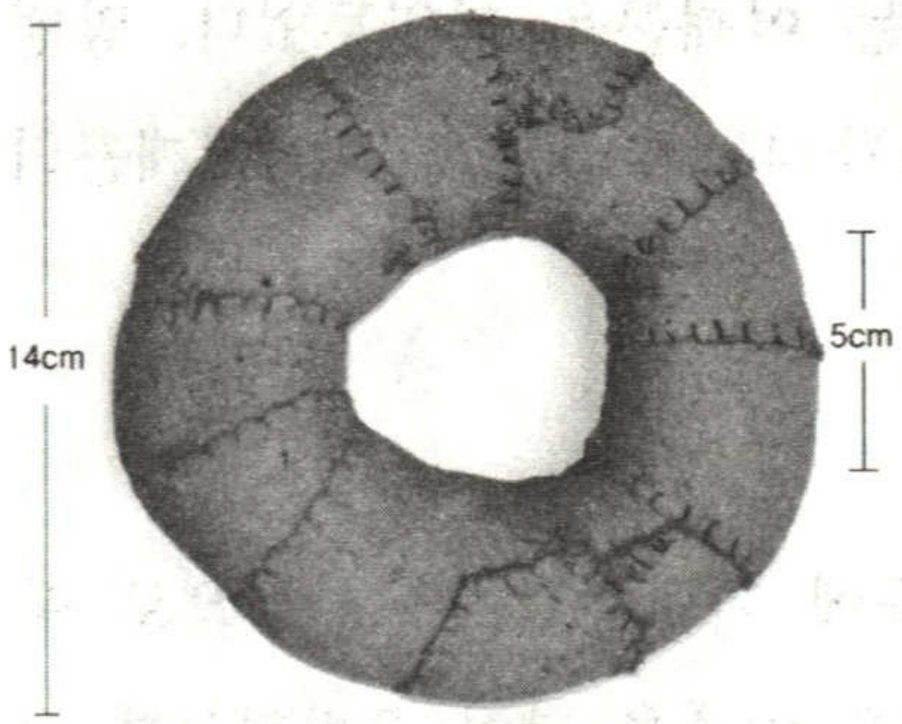
약 100년 전에 소장자의 조부가 제작·사용하던 것으로, 소장자의 부친이 물려받아 70년 전까지 사용하던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수명이 약 100년 정도 된 것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 소장자

-운곡면 위라리, 김종갑(남,71세), 2006. 7. 6.



뚱아리

6) 뚱아리

○ 명칭

'뚱아리'라고 한다.

○ 구조

솜을 둥글게 말아 도너츠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그 위에 헝겊으로 꿰맸다. 두께는 4.5cm, 전체지름은 14cm이다.

○ 용도

항아리, 대야, 밥상 등 여자들이 무거운 것을 운반할 때, 이것을 머리에 깔고 그 위에 물건을 올려두고서 이동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20년 전에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헝겊이 뜯어질 때 실로 뜯어진 부분만 수선해주면 20~30년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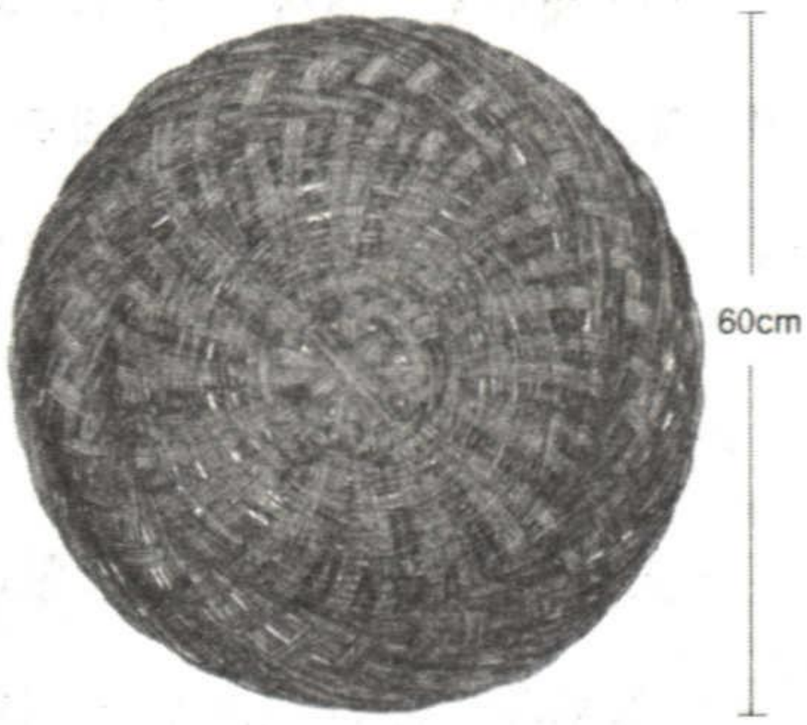
7) 채반

○ 명칭

'채반'이라고 한다.

○ 구조

싸리를 가운데에서부터 틀을 짜 나아가 원의 형태로 만든 것이 있는가 하면(정산면 천장리), 대나무를 엮어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것이 있다(청남면 중산리).



싸리채반

○ 용도

싸리로 만든 것은 주로 전이나 부침개와 같은 음식을 올려두고 운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고사리나물, 감, 고추 등 각종 곡식들을 올려놓고 말리는 데 사용하였다. 싸리채반은 지름이 60cm이며, 대나무채반은 58cm×58cm이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싸리와 대나무로 만든 것 모두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싸리채반은 50년 정도 되었으며, 대나무채반은 10년 정도 된 것이다. 특별한 수선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크게 손상되었을 때는 새로 제작하여 쓴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8) 소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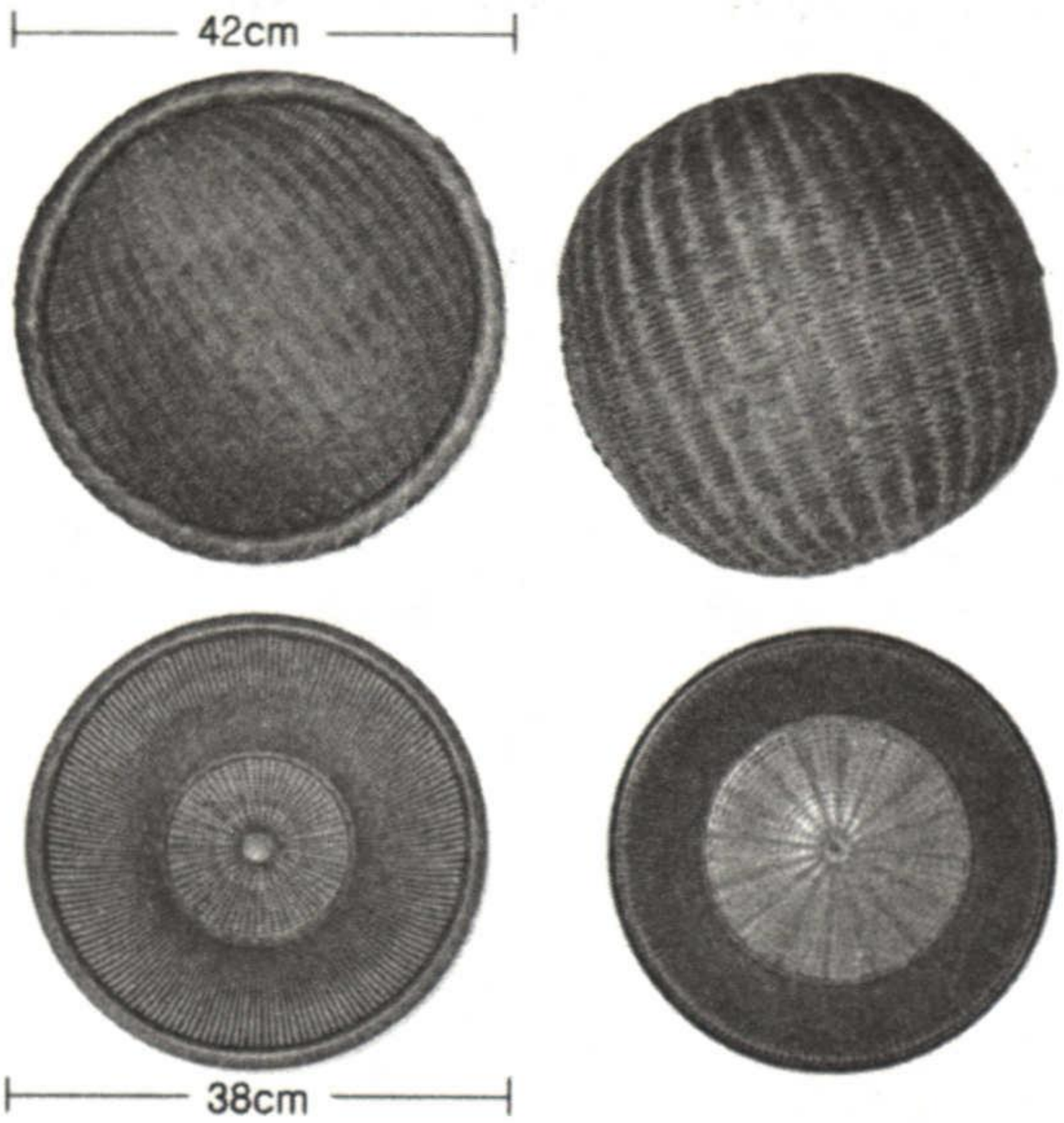
○ 명칭

'소쿠리'라고 한다.

○ 구조

소쿠리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싸릿대를 엮어 만든 것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있다. 사진에서 왼쪽의 것은 소쿠리를 바로 놓은 모습이고, 오른쪽의 것은

뒤집어서 놓은 모습이다. 싸리로 만든 소쿠리의 지름은 42cm이며 깊이는 21cm이다. 소쿠리의 가장자리 역시 싸리로 둘러서 처리하였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쿠리의 지름은 38cm이며, 깊이는 19cm이다. 소쿠리 몸체 직접이 하나의 플라스틱으로 짜여져 있다. 싸리로 만든 것보다 그 틈새가 넓다.



소쿠리

○ 용도

싸리 소쿠리의 경우 각종 곡식을 담아두는데 사용

하며, 플라스틱 소쿠리의 경우 나물이나 국수 등을 넣고 물에 씻겨 낼 때 주로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싸리 소쿠리는 30년 전에 전라도 상인들에게 구입한 것이다. 예전에는 소쿠리나 채반을 들고 다니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플라스틱 소쿠리는 5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해 온 것이다.

○ 소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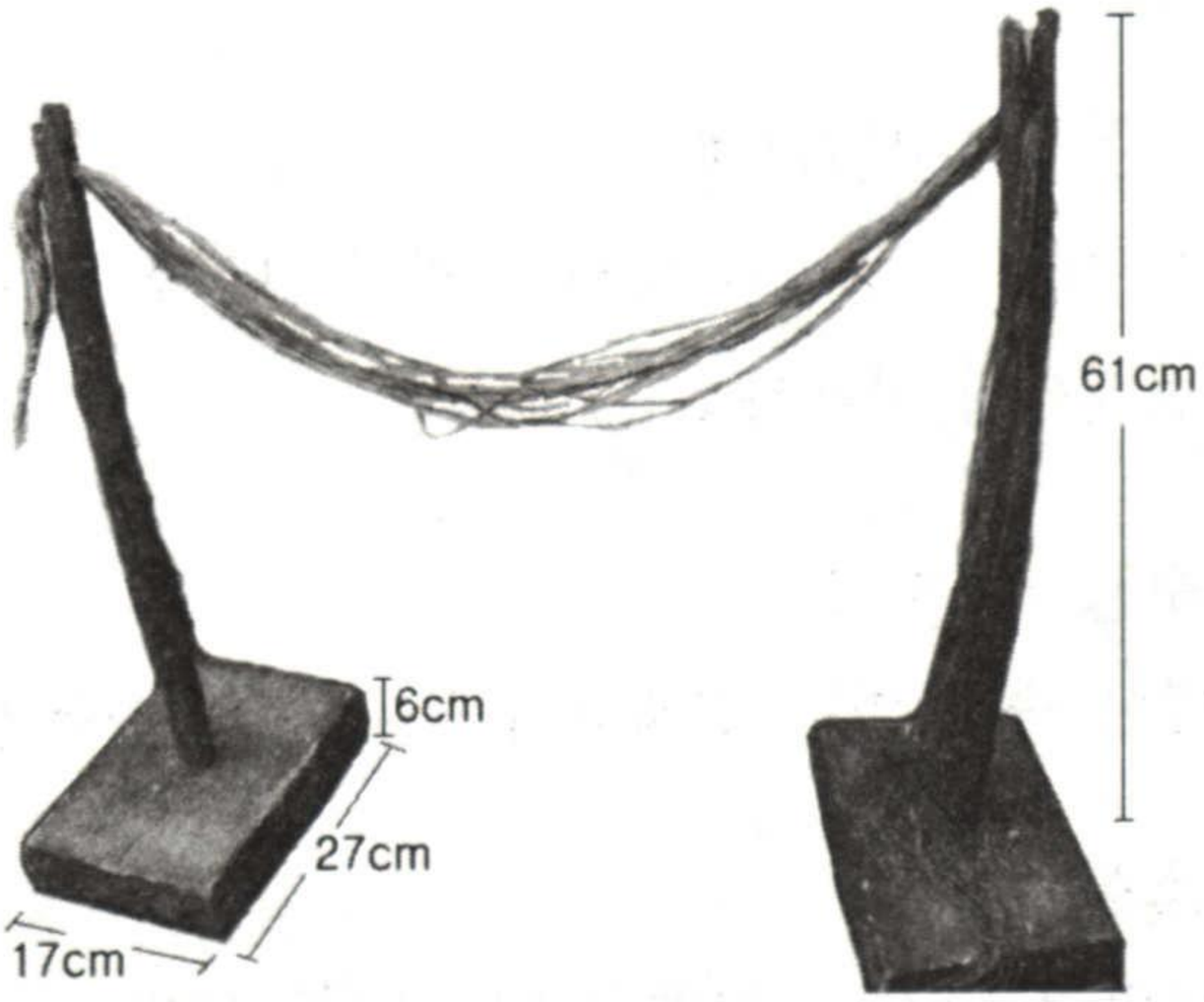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5. 직물용구

1) 직조도구

(1) 전지

모시나 삼베를 길게 실로 연결하기 위해서 풀을 걸어두는 'Y'자 형태의 대이다. 주로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쫀지대기

○ 명칭

청양에서는 '쫀지대기'라고 한다.

○ 구조

17cm×27cm에 높이 6cm인 소나무토막 위에 대추나무를 깎아 만든 61cm가량의 나무자루를 박아두었다. 나무자루 끝에는 삼베가 잘 걸어질 수 있도록 V자형의 홈이 파여져 있다.

○ 용도

삼베를 길게 실로 연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삼베를 걸어둔다.

○ 제작 및 구입관계

50년 전에 소장자의 남편이 직접 제작한 것을 소장자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수명 및 수선

특별한 수선 없이 현재까지 무리 없이 사용한다.

○ 소장자

- 남양면 매곡리, 한계숙(여, 76세), 2006. 7. 7.

(2) 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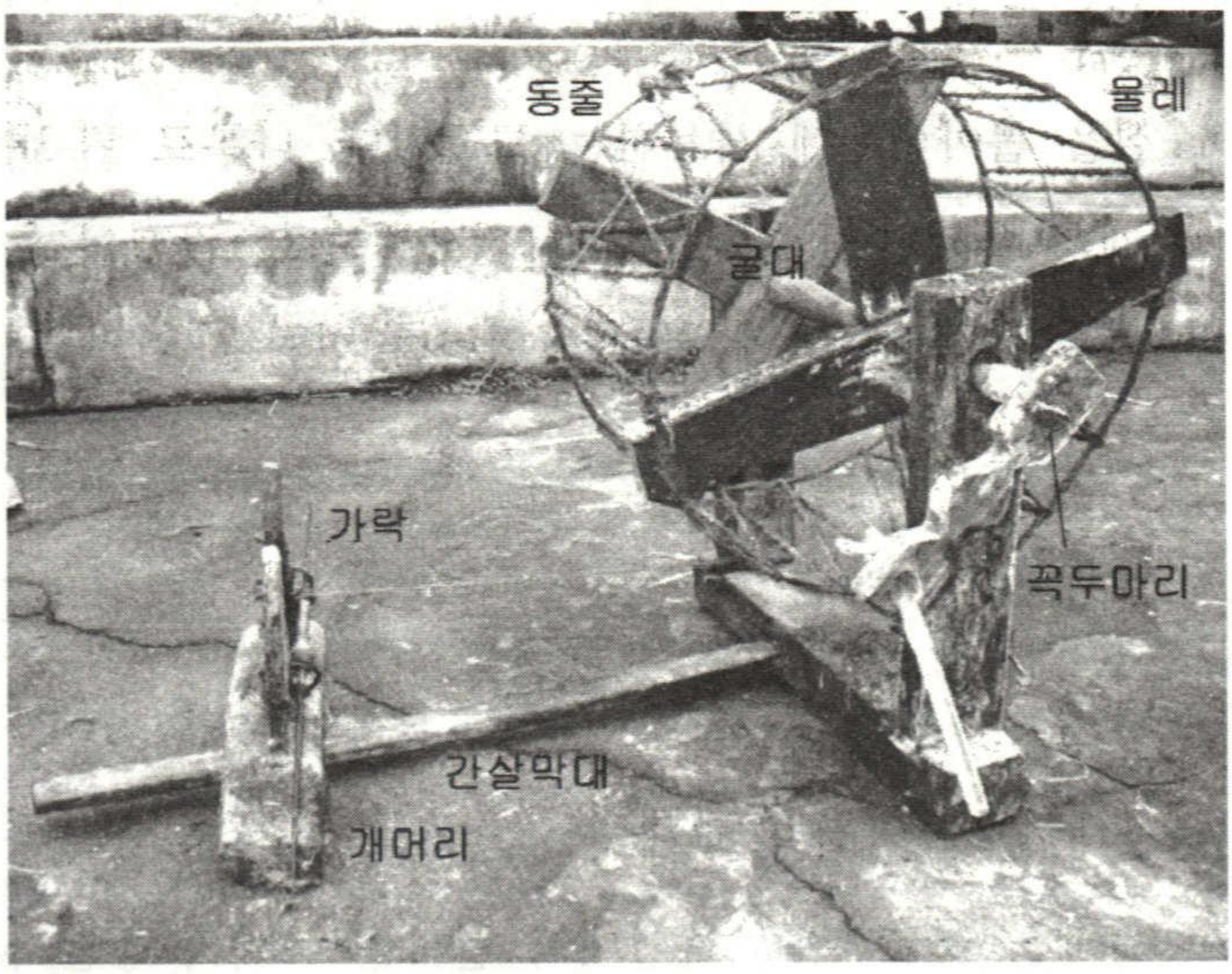
실을 뽑아내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무로 된 여러 개의 물레살을 줄로 엮어서 6각형이나 8각형의 틀을 만들고 물레바탕에 끝에 괴머리를 끼워 사용한다.

○ 명칭

'물레'라고 한다.

○ 구조

굴대 끝에는 십자 형태의 나무막대가 달려 있는데, 그 끝에는 못을 박고 원형태의 철사를 둘러쳐 동줄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감겨져 있다. 굴대 끝에는 꼭두마리라는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현재는 부러진 일부분의 자리에 칫솔을 끼워 두고 사용한다. 굴대 밑으로 받쳐진 'ㅛ'자형태의 나무막대는 간살막대를 통해 개머리와 연결된다. 개머리에는 가락이 얹혀져 있어 바퀴가 돌아갈 시에 고치에서 실이 드려지게 된다. 물레의 둘레는 120cm이고 개머리는 23cm의 길이이며, 간살막대는 77cm이다.



물 레

○ 용도

솜이나 털과 같은 섬유를 자아내어 실을 뽑아내는 데 사용한다. 보통 하루 작업에 세 개 반 가락의 실 꾸러미를 만들 수 있다.

○ 제작 및 구입관계

56년 전에 소장자의 남편이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20~30년 정도 사용하면 나무로 된 부품들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 소장자

- 남양면 매곡리, 한계숙(여, 76세), 2006. 7. 7.

(3) 베틀

베틀은 길쌈을 하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길쌈은 가정에서 부인들이 삼베나 명주, 모시, 무명 등의 천을 짜는 것을 말한다. 길쌈을 통해 가족들의 옷을 해 입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명주나 모시, 삼베 등이 화폐로써 사용되었기 때문에 길쌈은 여성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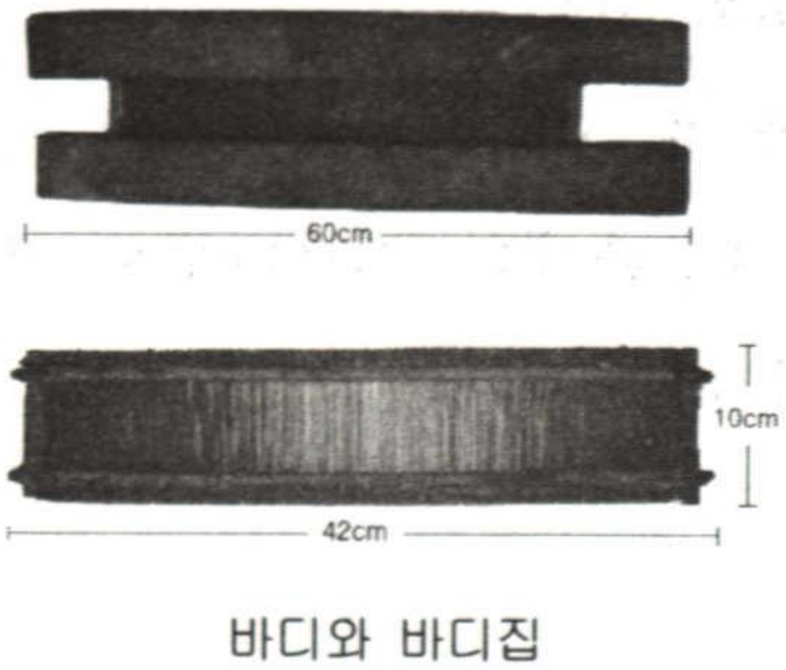
씨실과 날실의 촘촘함을 따질 때에는 '새'라는 말을 쓰는데, 한 새는 바디의 구멍이 40개로 짜여지는 것을 말하며, 한 구멍에는 두 개의 날실이 꿰어진다. 명주와 모시는 15새(보름새)가 가장 좋고, 무명은 9새로 많이 짠다. 명주와 무명은 철을 가리지 않지만 삼베와 모시는 추석까지만 짠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베

가 뻣뻣해지고 바디와 북을 움직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 명칭

직물을 짜는 도구 전체를 베틀이라 하고, 각 부분의 명칭들은 다음과 같다.

- 베틀기둥 : 베틀의 골대를 이루고 있는 세로 기둥으로 길이는 108cm×7cm이다.
- 베틀다리 : 베틀의 골대를 이루고 있는 가로 기둥으로 길이는 196cm×8cm이다.
- 앉을개 : 작업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로 60cm×22cm로 이루어져 있다.
- 잉아대 : 길이 48cm의 가는 솔나무이다. 베틀의 날실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잉아를 걸어두는데 사용한다.
- 바디 : 42cm×10cm의 크기로 짜여진 대나무판 속에 가느다란 대나무쪽을 촘촘하게 끼워 두었다. 모시의 날을 고를 뿐 아니라 북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
- 바디집 : 각각 60cm 길이에 5.5cm의 두께를 가진 나무 사이에 바디를 끼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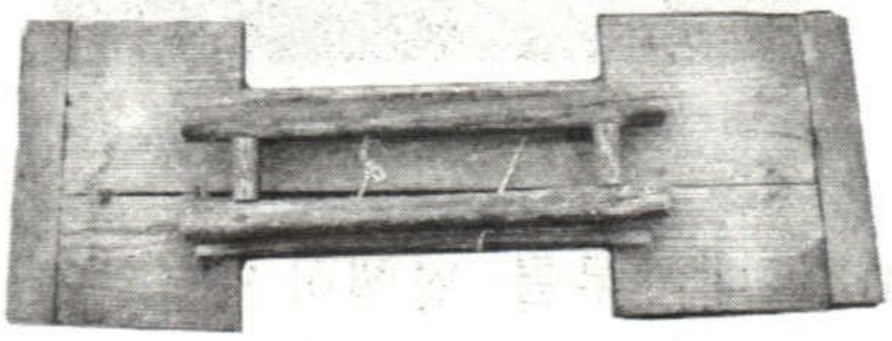
바디와 바디집

사치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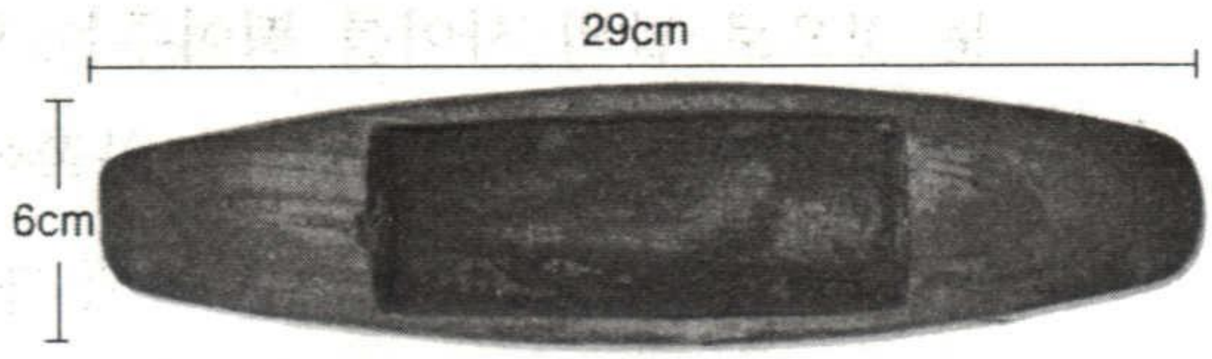
- 사치미대 : 62cm, 59cm의 대나무를 평행하게 이어 둔 것으로 날의 사이를 띄어주는 역할을 한다.
- 말코 : 길이 58.5cm의 나무 양쪽에 홈을 파두고 그 가운데 부분에는 1cm정도의 두께로 또 다른 홈을 파 두었다. 뾰족하게 된 말코의 양쪽 끝은 부태끈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 짜여진 모시, 삼베 등이 감기게 되어 있다.
- 도투머리 : 가로 33cm, 세로 37cm의 나무판자 두 개 사이에 56cm의 여러 나무막대가 연결되어 있다. 세로막대의 가운데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날을 감아두는 역할을 한다.
- 북 : 씨꾸리를 넣고 날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여 씨를 풀어주고 모시, 삼베 등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한다. 대추나무로 만든 것으로, 배의 모양과 흡사하게 생겼다. 29cm×6cm의 크기에 가운데 실꾸러미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파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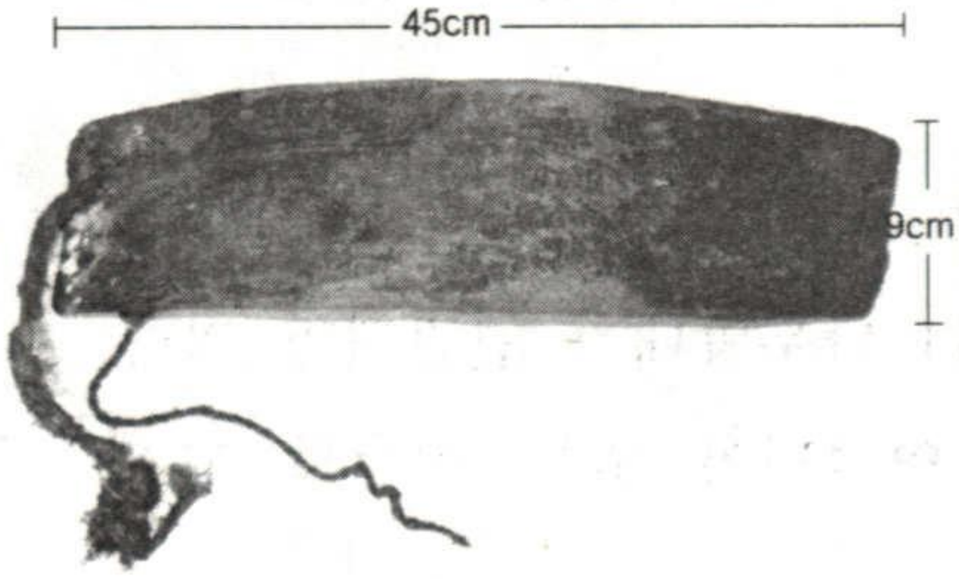
• 부태 : 모시나 삼베를 짤 때 말코의 양쪽 끝에 끈을 매어 허리에 두르는 나무판이다. 개목나무로 만들었다. 너비와 높이가 각각 45cm, 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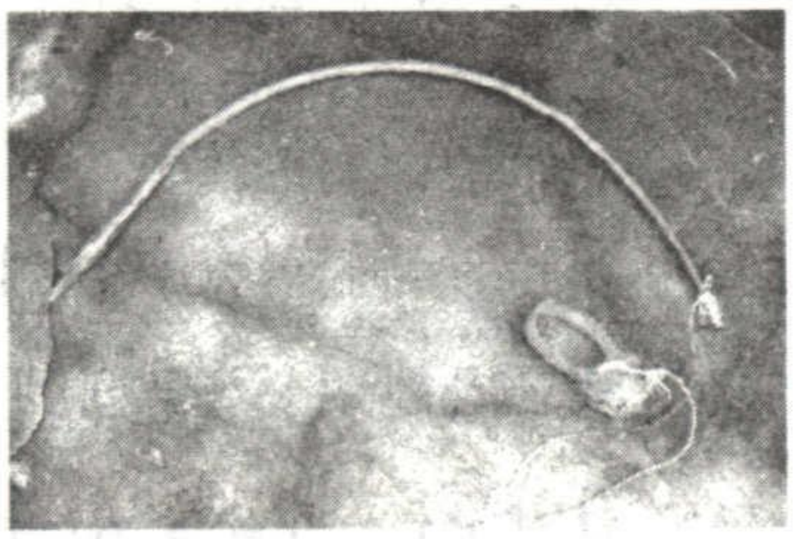
도투머리



북



부태



쇠꼬리와 베틀신

• 쇠꼬리 : 세로기둥에 달린 원통형나무 중앙에 달린 나무로 베틀신이 연결되어 있다. 길이는 146cm이다.

• 베틀신 : 용두머리를 잡아서 돌리기 위해 쇠꼬리

끝에 연결해둔 신으로, 오른쪽 발에 신고 다리로 조정한다. 신 끝에는 나일론 줄이 달려 있어 쇠꼬리와 연결되어 있다.

베 틀

○ 구조

양쪽에 세워진 2개의 나무막대와 각각 맞물려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긴 막대 두 개가 베틀의 전체적인 골대를 이루고 있다. 가로막대의 끝부분에는 사람이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나무판대를 연결해두었으며, 그 앞으로는 또 하나의 나무막대가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베틀에 앉았을 시 그 눈높이에는 양쪽 세로막대

를 연결하는 원통형나무로부터 수평형태로 두 개의 가는 막대가 돌출되어 있다. 이 막대는 잉아대의 양쪽 끝과 각각 연결되어 있다. 또한 원통형나무의 뒤쪽중앙에는 쇠꼬리라는 나무가 달려 있는데, 이 나무의 끝에는 나일론 줄을 묶어 작업하는 사람이 신을 베틀신을 연결해두었다. 세로막대의 중앙에는 정사각형의 나무판이 대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여러 개의 작은 통나무들이 회전이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 용도

모시와 삼베를 짜는데 쓰인다. 보통 나흘 정도면 모시 500자, 삼베 360자 정도를 짤 수 있다.

○ 제작 및 구입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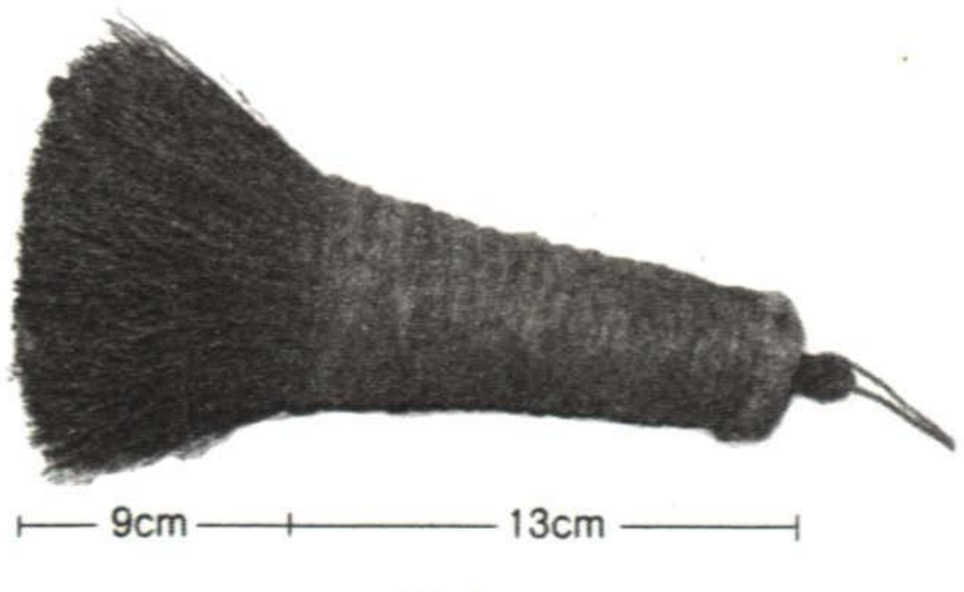
56년 전에 소장자의 남편이 제작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20~30년 정도 사용하면 나무로 된 부품들이 썩거나 닳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 소장자

- 남양면 매곡리, 한계숙(여, 76세), 2006. 7. 7.



벳솔

(4) 벳솔

○ 명칭

벳솔이라 불린다.

○ 구조

솔나무의 가지를 다듬어 만든 자루끝에 나무뿌리로 만든 솔털이 달려있다. 자루의 꼭지에는 매듭을 져 못에 걸 수 있도록 실을 엮어두었다. 자루와 솔털의 길이는 각각 13cm, 9cm이다.

○ 용도

벳솔에 풀을 먹여 베틀에 실을 넣기 전에 곱게 빗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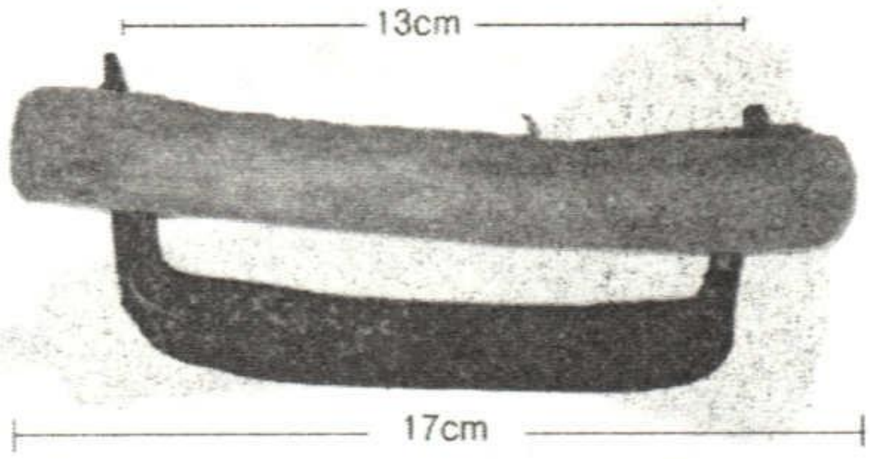
○ 제작 및 구입관계

70년 전에 제보자의 부친이 제작한 것을 물려받아서 30년 전까지 사용하였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4.

(5) 쫀지



쫀지

○ 명칭

'쫀지'라고 한다.

○ 구조

17cm의 소나무 자루에

13cm의 'ㄷ'자형 칼날이 달려있다.

○ 용도

모시나 삼베 껍질을 벗겨낼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50년 전에 정산시장의 대장간에 칼날을 구입해 와서 집에서 직접 제작한 자루를 끼워 맞춘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제작 후 약 20년 동안 사용했던 것으로 특별한 수선 없이 사용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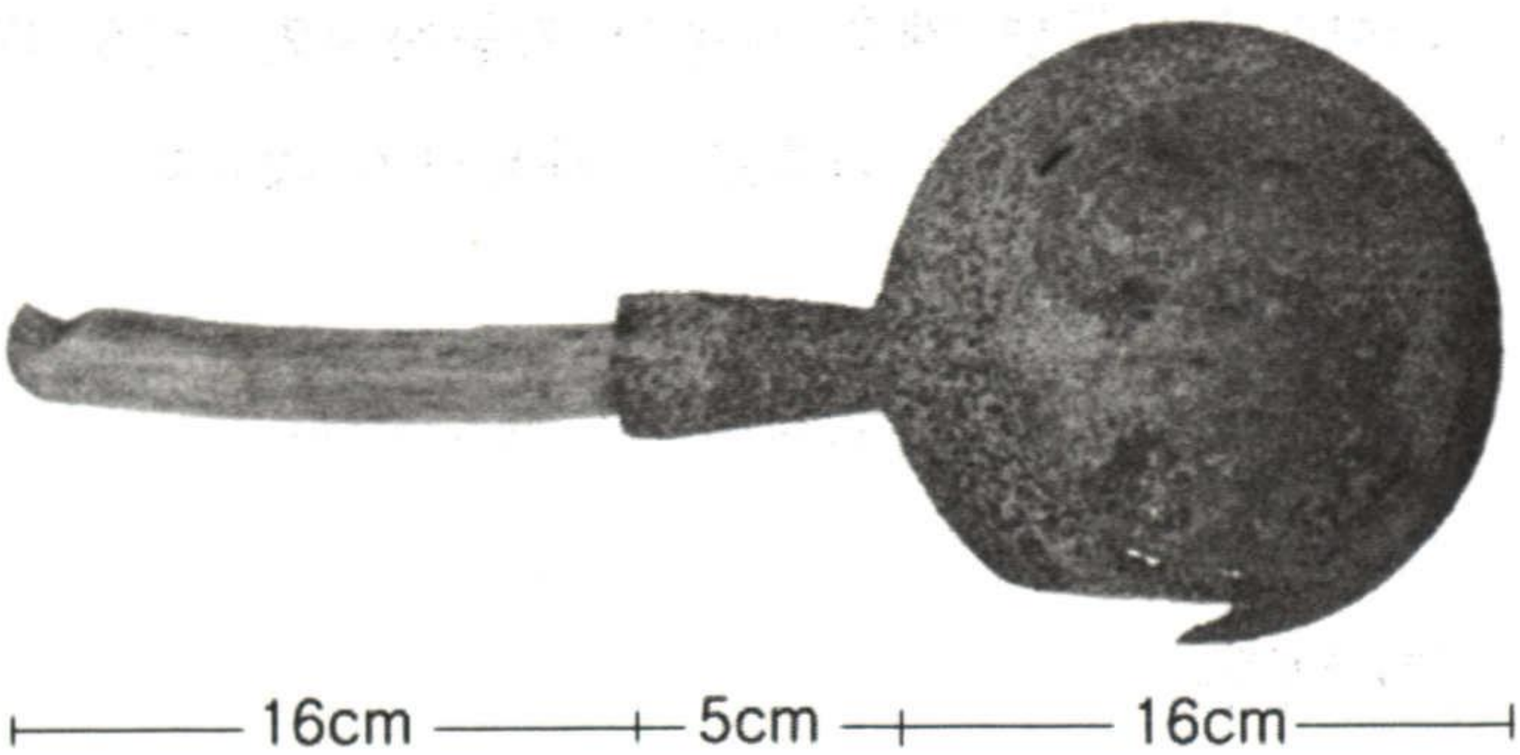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6) 다리미

○ 명칭

다리미라고 한다.



다리미

○ 구조

16cm의 박달나무 자루에 쇠로 된 16cm의 다리미판이 달려 있다. 마치 프라이팬의 모습과 흡사하다.

○ 용도

다리미판 위에 숯을 올려두고 빨래를 다듬을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100여 년 전에 소장자의 조부가 정산시장에서 구입

한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20여 년 전까지 사용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자루만 갈아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식 다리미가 나온 1980년대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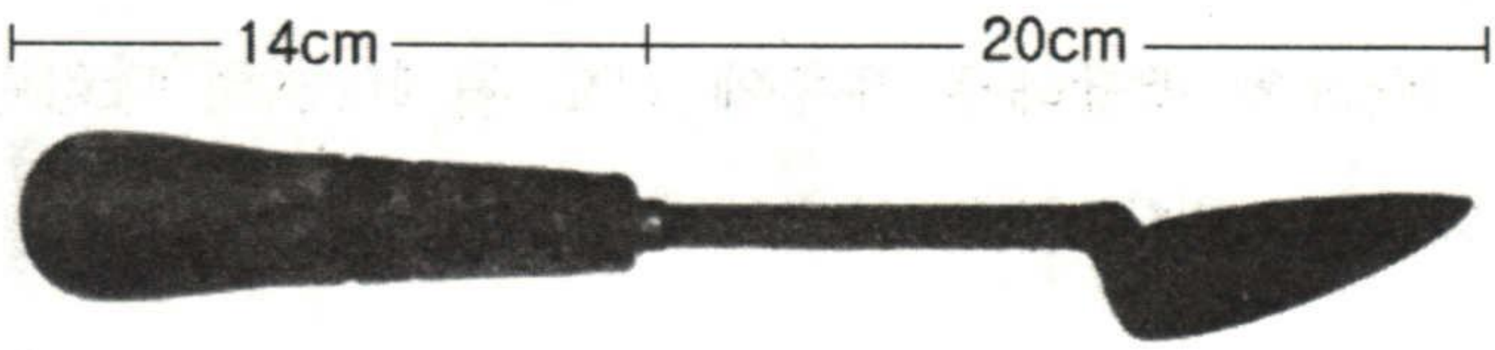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7) 인두

○ 명칭

인두라고 한다.



인 두

○ 구조

14cm의 박달나무 자루에 쇠로 된 20cm의 인두판이 달려있다.

○ 용도

인두를 불에 달구어 바지저고리를 다듬을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100여 년 전에 소장자의 조부가 정산시장에서 구입한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20여 년 전까지 사용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자루만 갈아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식 다리미가 나온 1980년대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소장자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

2) 양잠 도구

(1) 뽕바구니

뽕잎을 따서 넣는 바구니로 대나무나 싸리를 이용해 속이 깊숙하고 둥근 모양이다. 뽕잎은 아침 이슬을 맞은 것을 피해 할머니나 아이들, 또는 누에를 맡아서

기르는 사람이 따는데, 이 때 손으로 따거나 뽕칼을 이용한다.

(2) 뽕칼

뽕잎을 딸 때 사용하는 것으로 두 번째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워서 사용한다.

(3) 뉘장

누에장 또는 잠란지(蠶卵紙)라고 하며 글씨가 없는 백지나 창호지, 한지에 누에의 알을 붙이게 한 종이이다.

(4) 깃비

뉘장에 있는 누에가 나오려고 할 때 뉘장에서 누에 채반으로 옮기는데, 그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닭이나 꿩의 날개털을 두세 개 실로 묶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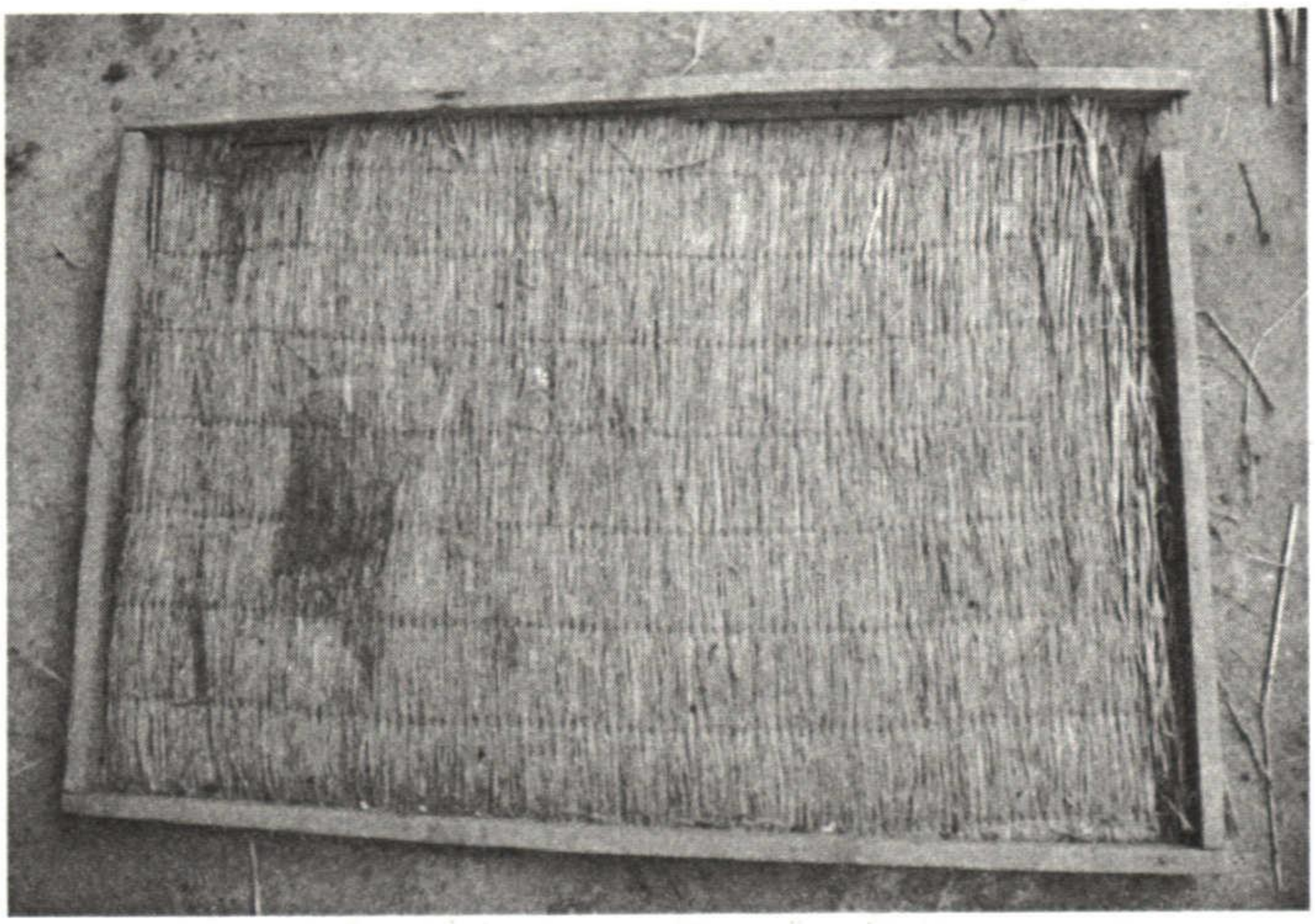
(5) 잠박대

잠틀이라고도 부르며 누에를 키우기 위한 틀이다. 직사각형으로 틀을 만들고 대각선으로 나무를 대 가

운데가 꺼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잠석을 올린다. 잠석은 짚이나 싸리나무, 대나무 등을 얇게 잘라서 만든 자리로 누에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짠다.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고추 등을 말릴 때 사용하기도 한다.

○ 명칭

'잠박'이라고 한다.



잠박대

○ 구조

미루나무로 짠 직사각형의 틀로, 바닥에는 X자형의 나무를 대어 잠석을 깔았을 때 꺼지지 않도록 한다.

틀의 길이는 94cm×62cm이다. 잠박대에 깔린 잠석은 볏짚으로 짠 것으로 7줄의 나일론끈으로 전체를 고정시켜 두었다. 전체 길이는 91cm×59cm이다.

○ 용도

구기자나 누에고치를 말리거나 누에를 치는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35년 전에 집에서 제작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35년 전에 제작하여 25년 전까지 사용한 것이다. 잠박대는 이음새 부분만 못을 박아 관리해주고, 잠석은 볏짚으로 짠 것이므로 1~2년만 사용하면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씩 새로 짜서 갈아준다.

○ 소장자

- 운곡면 위라리, 최송환(64세, 남), 2006. 7. 6.

6. 어로용구

1) 민물어로 도구

(1) 그물

① 그물

○ 명칭

그물이라 한다.

○ 구조

117cm의 소나무자루에 철사를 덧대어 둥근 원형태의 그물아가리를 만들었다. 아가리에는 나일론사로 엮은 그물이 달려 있다. 아가리의 지름은 48cm, 그물의 깊이는 38cm이다.

○ 용도

7월경 논에서 송사리를 잡을 때나 마을 근처 왕진강의 메기, 붕어를 잡을 때에 사용했다.

○ 제작 및 구입관계

40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20년 전까지 사용했었던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특별한 수선 없이 20년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② 두대반대그물

○ 명칭

'두대반대그물'이라 한다.

○ 구조

대나무로 된 두 개의 그물대 사이에 나일론사로 엮어 만든 그물을 매달았다. 그물대의 길이는 134cm이며, 그물의 길이는 가로 88cm, 세로 101cm이다.

○ 용도

여름에 논이나 웅덩이에 살고 있는 송사리를 잡는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20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10년 전까지 사용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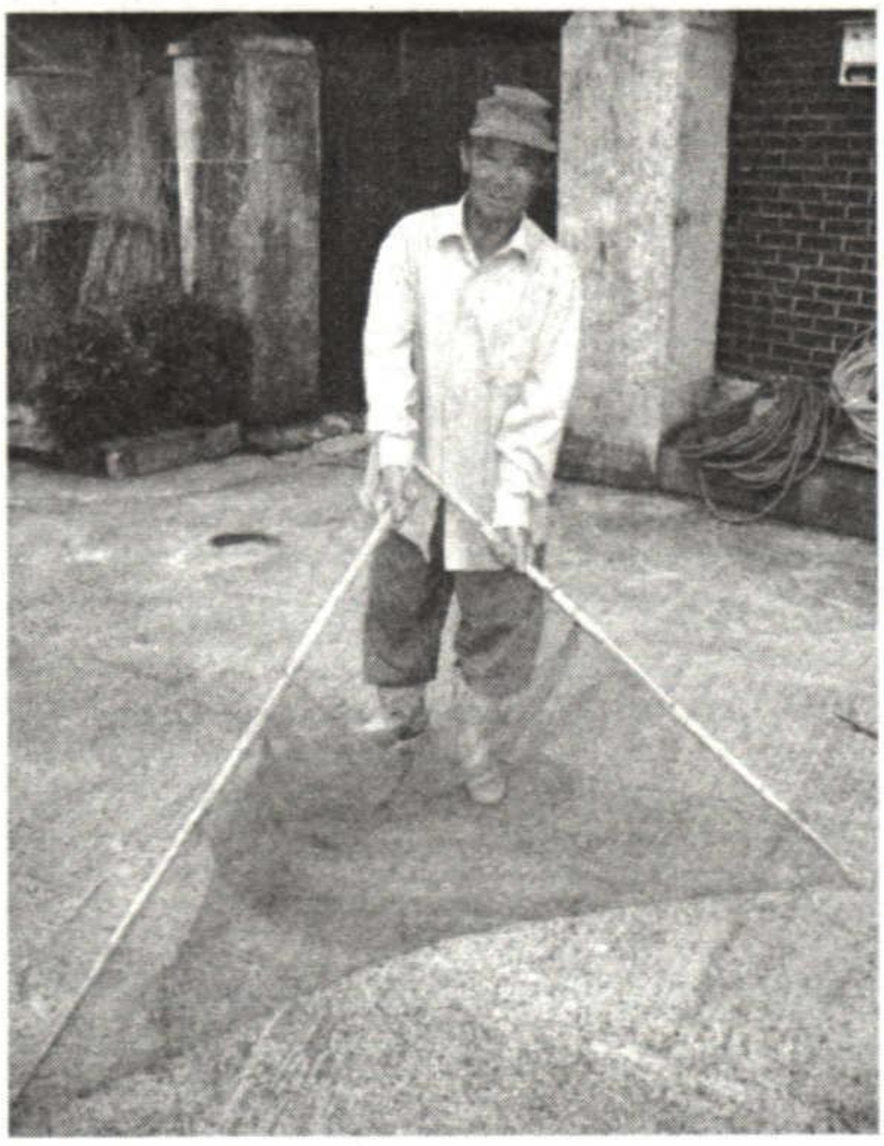
○ 수명 및 수선

2~3년에 한 번 그물만 교체해주면 20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소장자

- 운곡면 위라리, 김종갑(남, 71세), 2006. 7. 6.

③ 족대



족 대

○ 명칭

'족대'라고 한다.

○ 구조

대나무로 된 족대 손잡이에 나일론사로 엮은 그물이 부착되어 있다. 족대 손잡이의 길이는 121cm이며, 그물의 가로 길이

는 손잡이 부분 쪽이 100cm, 바닥에 닿는 부분이 130cm로 각각 다르다. 이것은 고기를 잡을 때 위쪽 부분을 조여 주고 아랫부분은 펼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마을에서 나타나는 족대 역시 대나무와 나일론사 그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족대 손잡이 부분이 바닥에 닿는 부분보다 길이가 짧다.

○ 용도

개울가에서 붕어, 메기, 중태기, 미꾸라지를 잡을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직접 제작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금도 고기잡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0~30년 정도 지난 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 수명 및 수선

그물 손질만 잘 하면 20~30년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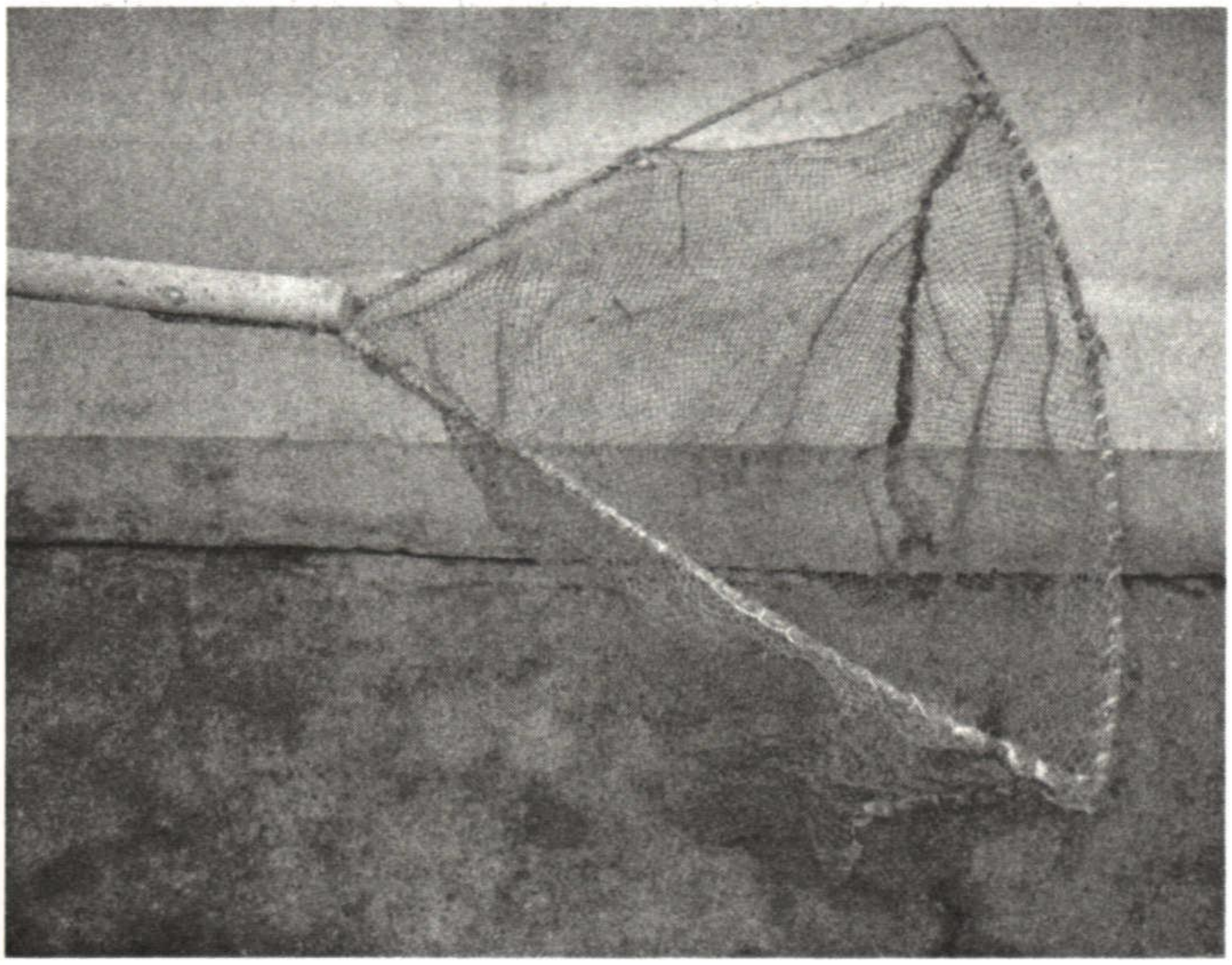
○ 소장자

- 남양면 온암리, 김의욱(남, 66세), 2006. 7. 7.
- 청양읍 정좌1리, 정현구(남, 74세), 2006. 7. 7.

④ 뜰반지

○ 명칭

'뜰반지'라고 한다.



뜰반지

○ 구조

소나무 자루에 삼각모양의 철사대를 덧대어 만든 것으로, 철사대에는 나일론사 그물이 달려있다. 전체

길이 89cm 중 자루의 길이는 44cm이며, 그물의 세로폭과 가로폭은 각각 45cm, 60cm이다.

○ 용도

논이나 개울의 미꾸라지를 잡을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30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해 온 것으로 20년 전까지 사용하던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그물 손질만 주기적으로 해주면 20~30년은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소장자

- 청양읍 정좌1리, 이봉운(남, 69세), 2006. 7. 7.

⑤ 기타 그물

목면 화양리에 거주하는 복상교씨의 제보에 의하면 1970년대 초반까지 이 지역에서는 민물어로도구인 '논우리그물', '메기그물'을 사용했었다고 한다. 이 그물들은 흐르는 냇물을 가로막아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었

는데, 냇물에 발을 쳐두고 물고기가 내려올 수 있는 통로를 약 15cm정도 남긴 후에 그 통로에 그물을 대고 있으면 그 안으로 고기가 잡혀 들어온다고 한다.

○ 소장자

- 목면 화양2리, 복상교(남, 66세), 2006. 7. 8.

(2) 통발

○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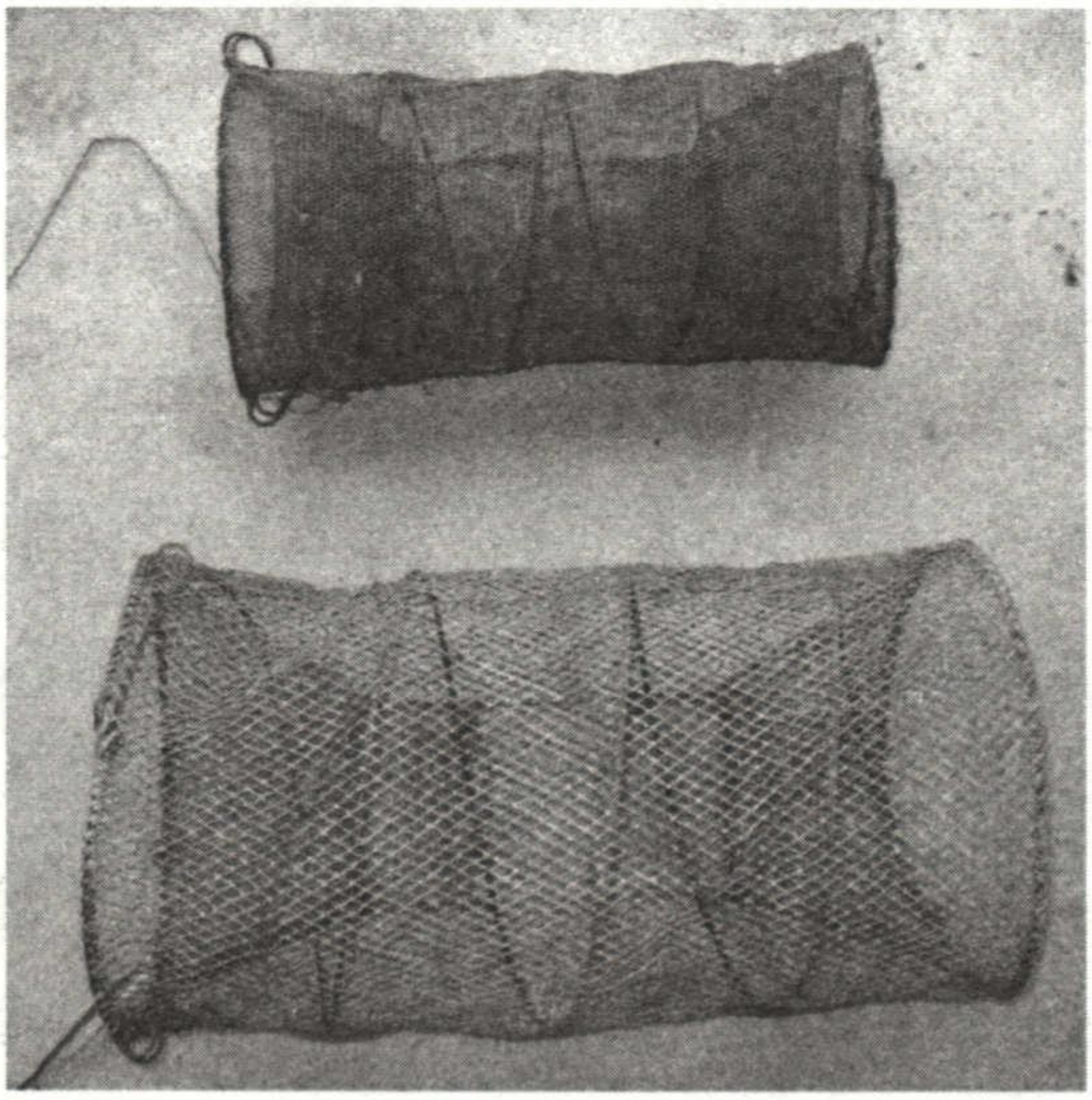
'통발'이라고 한다.

○ 구조

청양읍 정좌 1리의 통발은, 철사로 된 통발의 골대가 맨 위부터 바닥까지 둥근 원모양으로 내려오면서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통발의 그물은 모두 나일론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겉그물 속 중앙에는 지름이 9cm~14cm되는 속그물이 달려 있어 물고기가 일단 안으로 진입하면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있다. 통발의 높이는 각각 46cm, 58cm, 겉그물의 지름은 25cm, 34cm이다.

현존하지 않지만 목면 화양 2리에서 역시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통발을 사용했었다고 한다. 통발의 몸통은 대나무 또는 싸리나무로 만들고 그 물은 칡나무넝쿨을 이용하여 엮는다.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상류 쪽의 주둥이는 묶어두고 하류 쪽의 주둥이는 크게 벌려두었으며, 통발내부에 두 개의 속그물을 달아두었다. 주둥이의 직경은 30cm이며, 통발의 길이는 1cm이다.



통 발

○ 용도

정좌1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장마철에 비와 와

서 물이 불어나면 개울가의 한쪽에 통발을 설치해두는데 주로 메기와 붕어를 잡는데 사용하였다. 화양2리의 경우 강가의 도랑이나 웅덩이에 설치해두는데, 강가의 하류 쪽으로 주둥이를 향하고 그 안에 미끼로 돼지창자를 썰어 넣어둔 후 ~5일간을 방치해 두면 메기, 붕어, 빠가사리, 새우 등이 잡힌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정좌1리에서 조사된 통발은 30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며, 화양2리에서 제보한 통발은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수명 및 수선

철사와 나일론그물로 이루어진 통발은 그물 손질만 1~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주면 10~20년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무와 넝쿨로 만든 통발은 부식과 손상이 쉬워 2년 정도 사용하면 다시 제작하여 교체해주어야 한다.

○ 소장자

- 청양읍 정좌1리, 정현구(남, 74세), 2006. 7. 7.
- 목면 화양2리, 이영래(남, 55세), 2006. 7. 8.

(3) 가리

○ 명칭

'가리'고 한다.

○ 구조

현존하지 않지만 제보자 이영래 씨에 따르면 화양2리에는 가리라는 민물어로도구가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스케치를 살펴보면, 가리의 몸통은 마치 고깔모자의 윗부분을 도려낸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몸통은 대나무를 잘라 엮어 만들었으며 몸통 끝의 가장자리는 닥태나무를 이용하여 엮었다고 한다. 가리의 높이는 약 1m이며, 양쪽 원통형의 가장자리의 지름은 상하 각각 30cm, 50cm이다.

○ 용도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장마철이 끼는 6월~8월 사이에 주로 사용한다. 물이 허리춤까지 오는 강가에서 물풀이 많아 그물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 사용한다. 장마로 인해 강가가 흙탕물이 되어 잘 보이지 않을 때, 강물 속의 아무 곳이나 가리로 몇 번 내리찍으면 물고기가 잡히는데, 대나무의

진동 소리를 통해 물고기가 잡힌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밤중에 얕은 냇가에서 한손에는 횃불[1]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가리를 들고 물고기를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홰름" 또는 "홰오락질"이라고 한다. 이 때는 가리를 가지고 강물 속을 휘젓고 다니는데, 잡은 물고기는 구럭 또는 꼴망태에 담아 돌아왔다고 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대나무, 닥태나무 등 도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해와 집에서 직접 제작한다.

○ 제보자

- 목면 화양2리, 이영래(남, 55세), 2006. 7. 8.

(4) 작살

○ 명칭

'작살'이라고 한다.

○ 구조

현존하지 않지만 이영래 씨의 제보에 따르면 화양

---

1) 이영래 씨의 제보에 의하면 소나무 송진 기름을 모아 망태에 담아 그것에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었다고 한다.

2리에서는 작살이라는 어로도구를 사용했다고 한다. 스케치를 통해 그 형태를 살펴보면, 오동나무로 만든 작살자루에 철로 된 작살 칼을 끼워둔 형태로, 칼의 끝부분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자루, 칼, 갈고리의 길이는 각각 60cm, 70cm, 5cm이다.

○ 용도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사용하던 것으로 11월부터 3월 사이에 물고기를 잡는다. 강가와 바닷물이 만나 펄을 이루는 곳에서 사용하는데, 강가의 모래 속을 작살로 훑으면 칼끝의 갈고리에 뱀장어가 걸린다. 이 때 작살로 뱀장어를 잡는 행위를 '갈퀴질한다'라고 한다. "작살 맞은 뱀장어처럼 도망간다"라는 말은 바로 이 어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날만 시장에서 구입하여 모든 제작을 집에서 직접 한다.

○ 제보자

- 목면 화양2리, 이영래(남, 55세), 2006. 7. 8.

(5) 게막

○ 명칭

'게막' 또는 '그위막'이라고 한다.

○ 용도 및 사용법

현존하지는 않지만 제보자 이영래 씨에 의하면 화양 2리에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86년대 제방 설립 때까지 게막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먼저 얕은 냇물의 양 가장자리에 대각선으로 대나무 막을 치고 그 위에 흙으로 쌓아 물줄기의 흐름을 막는다. 이 때 냇물을 모두 막는 것이 아니라 냇물 가장자리에 30cm 정도의 물이 지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어 둔다. 통로 앞에는 하얀 깨진 그릇 조각을 여러 개 깔아두는데 그 이유는 게가 눈에 띄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그릇을 깔아둔 아래쪽으로 다시 대나무 막을 30cm 길이로 만든다. 막이 완성되면 그 앞에 천막을 치고 3~4명이 대기하면서 게가 올라오기를 기다린다. 잡힌 게는 즉석에서 구워 나누어 먹는다.

○ 제보자

- 목면 화양2리, 이영래(남, 55세), 2006. 7. 8.

7. 공구

1) 톱

좁고 긴 쇠판에 날을 일정한 간격으로 내고 손잡이에 끼워 나무 등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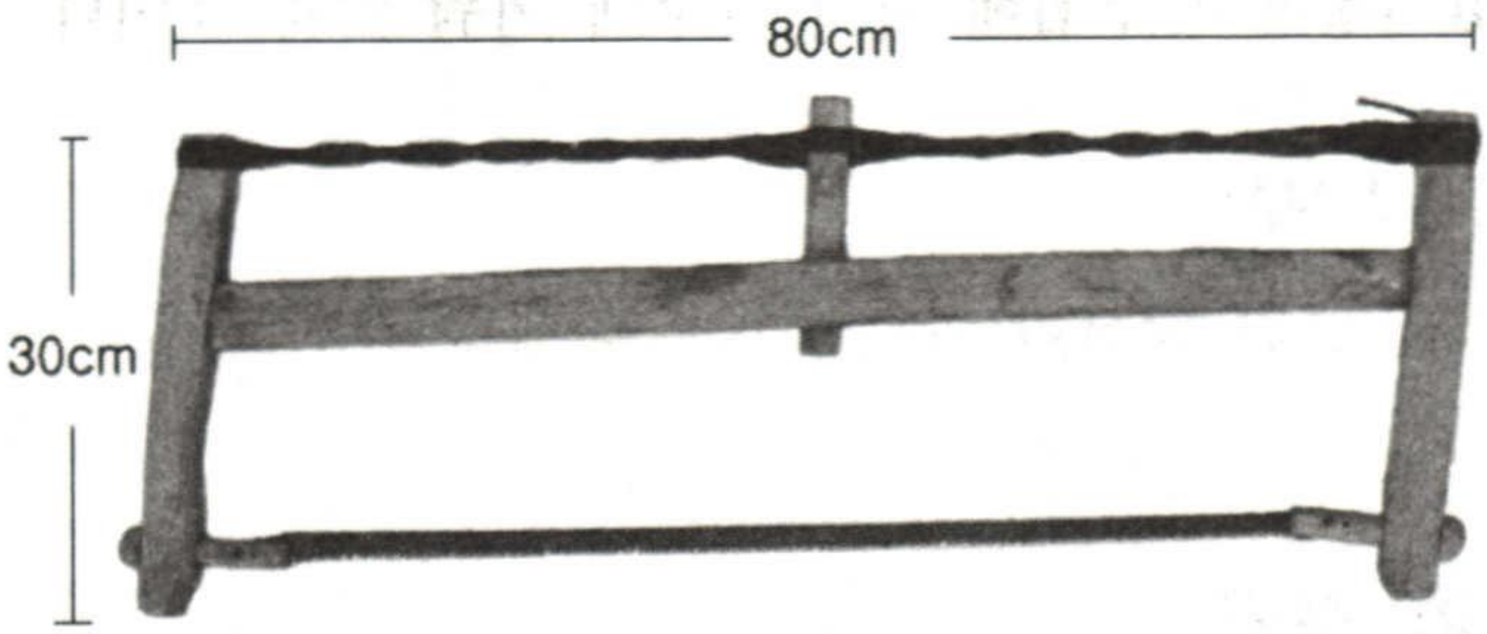
사용방식에 따라 톱, 귀도, 맞거리톱이 있다.

톱

○ 구조

톱은 소나무자루에 한쪽만 톱날이 달린 칼이 달려 있는 형태로, 톱날질의 방식에 따라 톱날의 모양이 다

르다. 먼저 톱날의 높이가 고르지 않고 들락날락하는 것은 톱을 당겨 나무를 자를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며, 톱날의 높이가 고른 것은 톱을 밀고 당길 때 모두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것이다. 톱 전체의 길이는 각각 70cm, 65cm이며 무게는 300g으로 동일하다.



맞거리톱

맞거리톱은 가로로 긴 H자 형태의 참나무 자루를 골대로 하여 위에는 고무줄이, 아래에는 톱날이 달려 있다. 고무줄은 손잡이가 휘거나 부러지는 것을 방지코자 매어둔 것으로, 자루 중간에 덧대어 둔 나무막대와 연결되어 있다. 두 사람이 양 손잡이를 잡고 톱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톱날의 양쪽이 모두 갈려있고 날모양이 고르다. 톱자루와 손잡이의 길이는 각각 80cm, 30cm이며, 톱날의 길이는 61cm이다.

○ 용도

혼자서 자르기 힘든 큰 나무이거나 또는 작업량이 많을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약 40년 전에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톱날만 청양시장에서 구입해 와서 자루에 끼워 맞춘 것이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2) 자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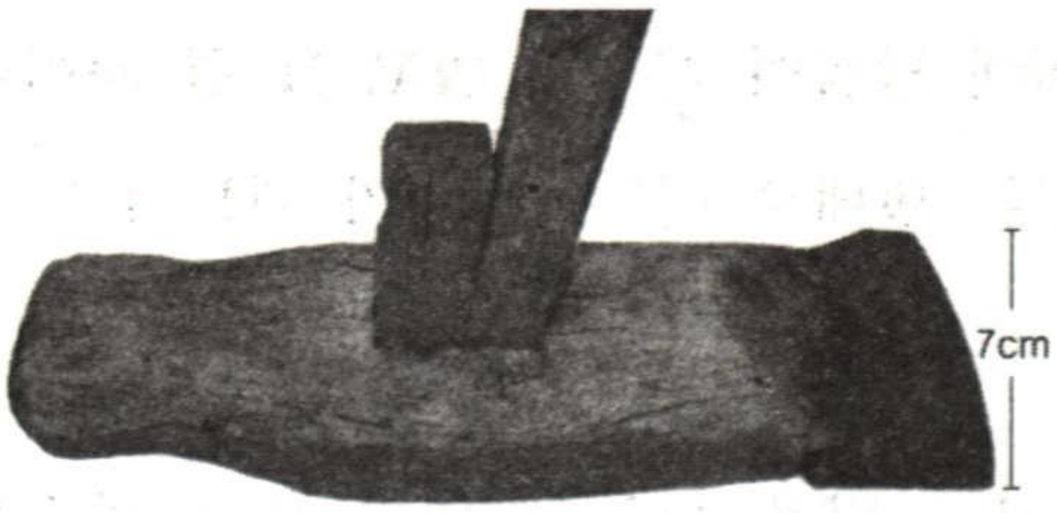
목재를 찍어서 깎고 가공하는 도구이다. 도끼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도끼가 날과 자루가 평행하고 있으나 자귀의 날은 자루와 직각 방향이다. 자귀날은 자루에 날을 직접 박는 것이 아니라 나무토막에 날을 막아서 이 나무토막 중간에 자루를 끼운다. 이 때 자루가 빠지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둔다.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자귀가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귀는 도끼와 같이 큰 힘으로 내리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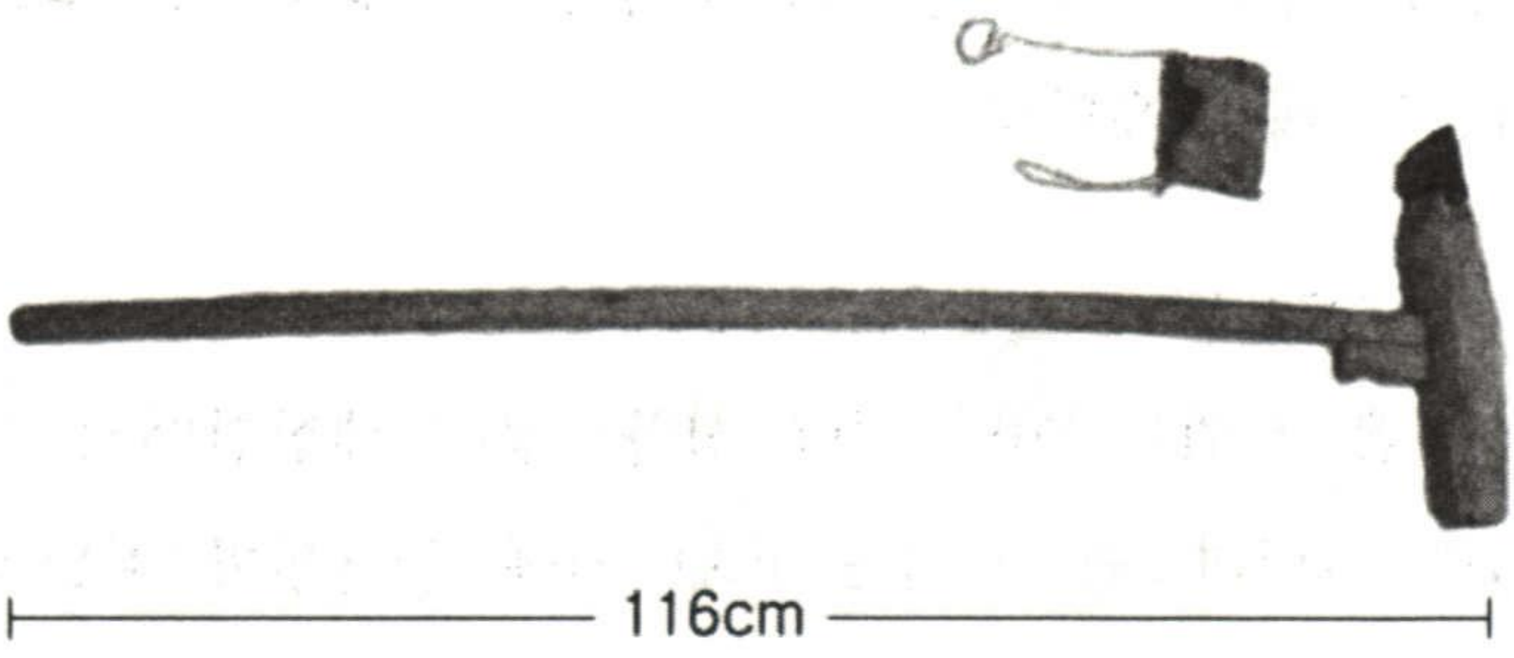
아니라 목재를 깎고 다듬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 명칭

도구의 크기에 따라 작은 자귀, 큰자귀로 부른다.



자귀날



큰자귀와 자귀집

○ 구조

자귀의 형태를 살펴보면 손잡이에 쇠뭉치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망치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쇠뭉치의 한쪽부분이 나무의 면을 다듬기 적절하도록 넓적하고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자귀는 자루와 날의 길이가 각각 28.5cm, 11cm이며, 큰 자귀는 116cm, 7cm이다. 큰 자귀의 날 길이가 짧은 것은, 자루와 날이 바로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루위에 날틀이 끼워져 있고 그 틀 사이에 자귀날이 박혀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 용도

작은 나무는 작고 얇은 나무 막대의 면을 다듬을 때, 큰 자귀의 경우는 기둥과 같은 큰 통나무를 깎고 다듬는 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작은 자귀는 20년 전에 청양시장의 대장간에서 구입한 것이며, 큰 자귀는 40년 전에 상나무와 쇠날을 이용하여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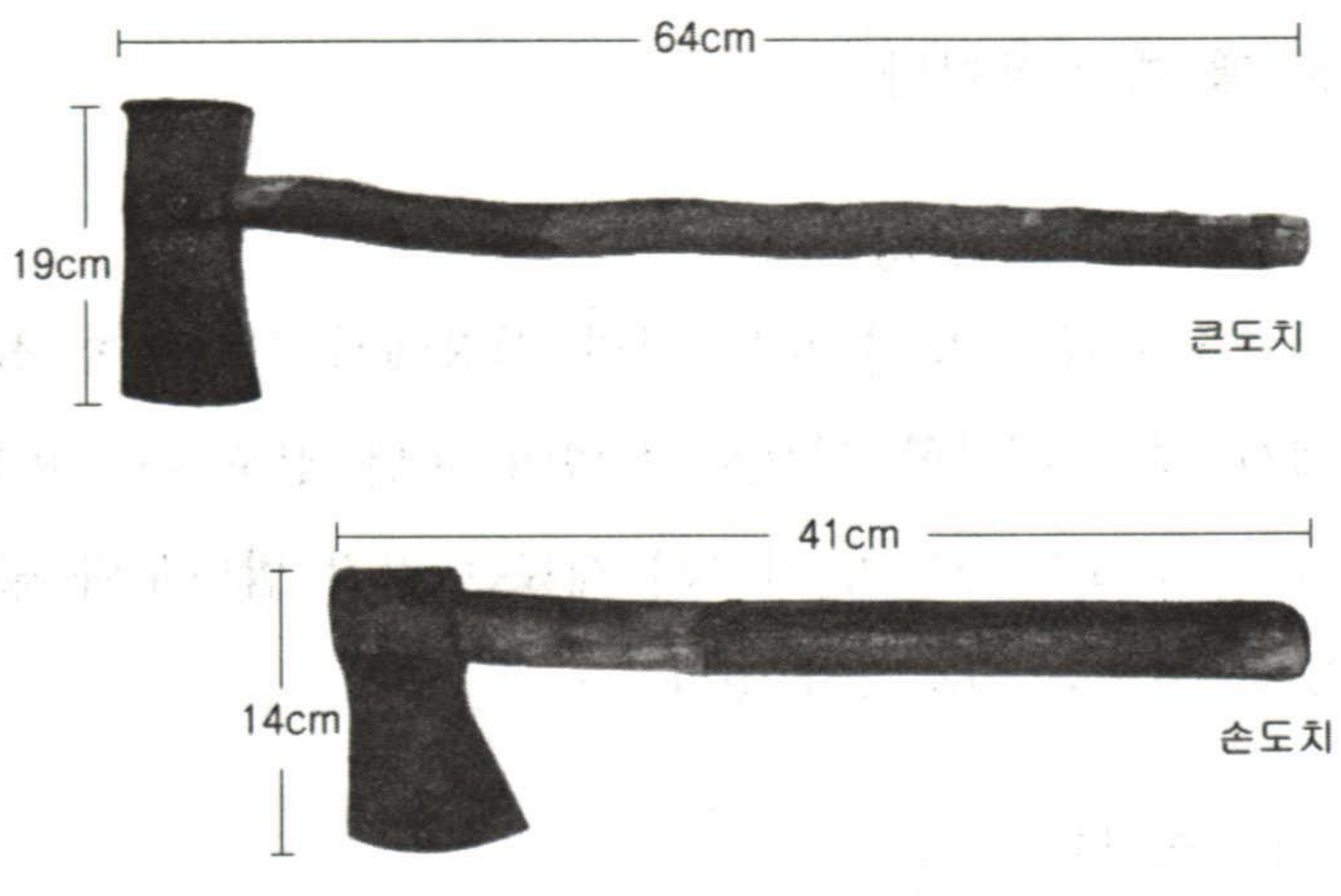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3) 도치

○ 명칭

도구의 크기에 따라 손도치, 큰도치라고 한다.



큰도치와 손도치

○ 구조

도치의 전반적인 형태는 나무자루에 도치날이 달려 있다. 손도치의 경우 나무를 자르는 날면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넓어지는 반면에, 큰도치의 경우는 자루 쪽과 치는 쪽의 날길이 차이가 적다. 손도치 자루의 길이는 41cm이며 날면의 길이는 각각 8cm, 5cm, 날등의 길이는 14cm이다. 큰 도치자루의 길이는 64cm이

며, 날면의 길이는 각각 6.5cm, 7cm, 날등의 길이는 19cm이다.

○ 용도

손도치는 작은 나뭇단을 팰 때, 큰도치는 큰 장작을 팰 때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손도치와 큰도치 모두 날만 시장에서 구입하여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수명이 40년 정도 된 것이다. 손도치와 큰도치 자루의 재료는 각각 밤나무와 물뿌레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4) 대패

목재의 면을 매끈하게 하거나 표면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깎아내는 도구이다. 나무로 만든 육면체의 대팻집에 바닥은 일직선으로 구멍을 내고, 위쪽은 비스듬히 깎아서 날을 끼운다. 날을 끼우는 각도나 대팻집

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대패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대패를 평대패라고 한다. 장대패는 대팻집을 길게 해서 막대패로 밀었을 때 생기는 굴곡을 고르는데 사용한다. 막대패는 목재의 표면을 대강 다듬는 것으로 대팻밥이 잘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크게 만든다. 곧날대패는 날을 대팻집과 직각으로 연결한 것이고, 뒤접대패는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파낸다. 둥근대패는 목재면을 둥글게 깎아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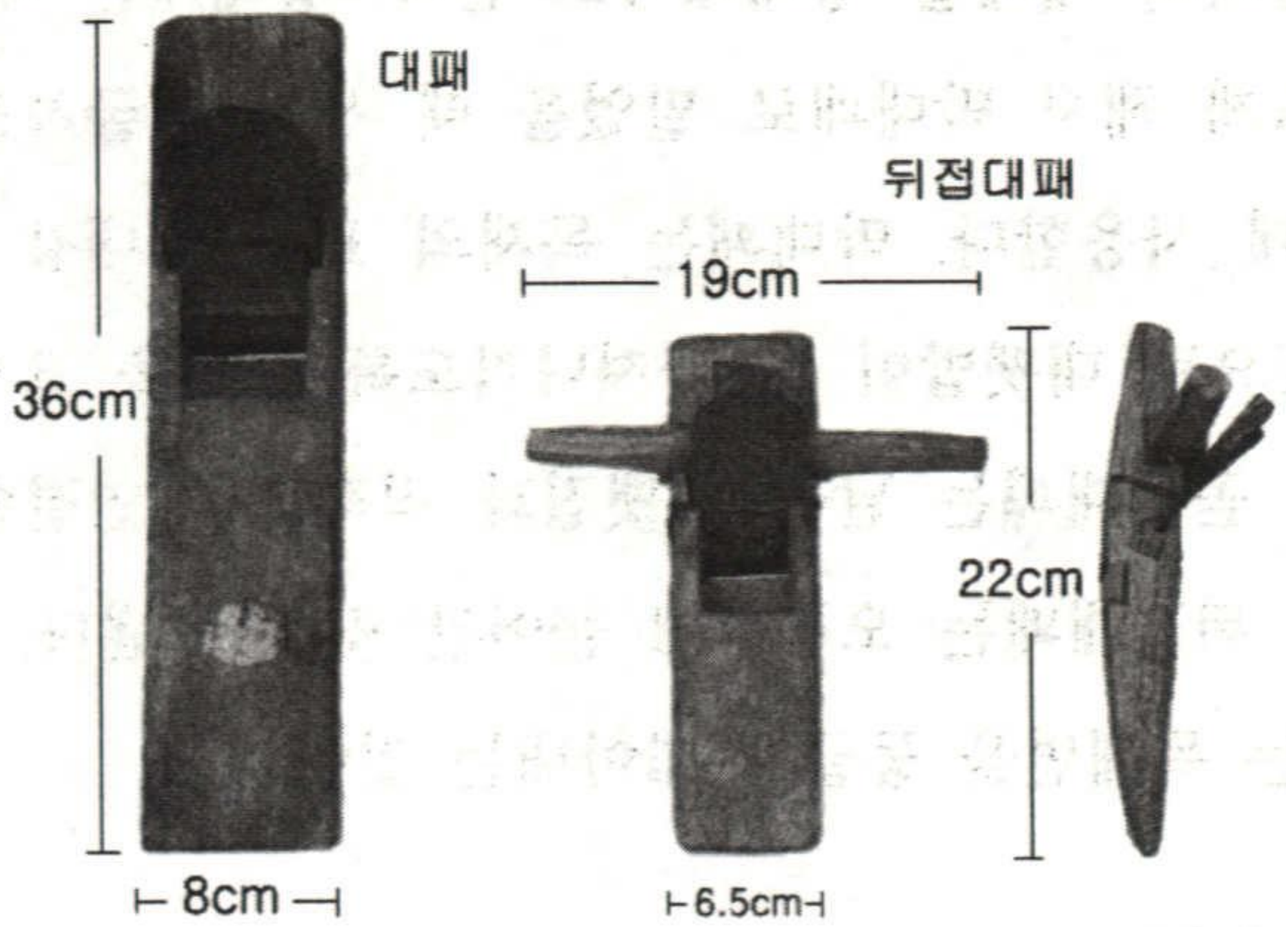
○ 명칭

대패라고 한다.

○ 구조 및 용도

대패의 구조는 그 용도와 사용법에 따라 다르다. 잡아당겨 사용하는 대패는 평평한 형태의 나무집 중앙에 철사로 고정해 둔 대패날이 비스듬히 달려있다. 밀어 사용하는 대패의 경우는 나무집 앞부분이 위쪽으로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대패날의 뒤쪽에 별도로 손잡이가 달려있다. 전자의 나무집 치수는 36cm×8cm이며 대패날의 치수는 13cm×7cm이다. 후자의 나무집 치수는 22cm×6.5cm이며 대패날과 손잡

이의 치수는 각각 9cm×5cm, 19cm이다.



대패와 뒤접대패

○ 제작 및 구입관계

대패날만 시장에서 구입해 와서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약 30년 정도 된 것이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5) 먹통

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선을 긋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 명칭

먹통이라 한다.

먹 통

○ 구조

한쪽에는 나무에 구멍을 파서 먹물을 묻힌 솜을 넣어 두었고, 다른 한쪽은 먹줄을 감을 수 있도록 타래를 끼워두었다. 타래에 감겨진 실이 솜을 통과하면서 먹이 묻는 원리이다. 또한 먹칼이 함께 딸려 있는데 이것은 직선이나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장치한 것으로 글씨 등을 쓰거나 먹줄을 풀 때 먹이 잘 묻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 용도

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선을 표시하거나 글씨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먼저 먹칼로 먹솜을 누르면서 타

래에 감겨진 줄을 푼다. 이 때 반대쪽에는 뾰족한 나무 조각이 연결되어 있어 실을 고정시킬 수 있다. 실을 고정한 다음에는 먹통을 고정하고 줄을 튕기면 자재에 선이 생긴다.

○ 제작 및 구입관계

20년 전에 집에서 소나무를 깎아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6) 자새

실 따위를 감았다가 풀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로 새끼를 꼴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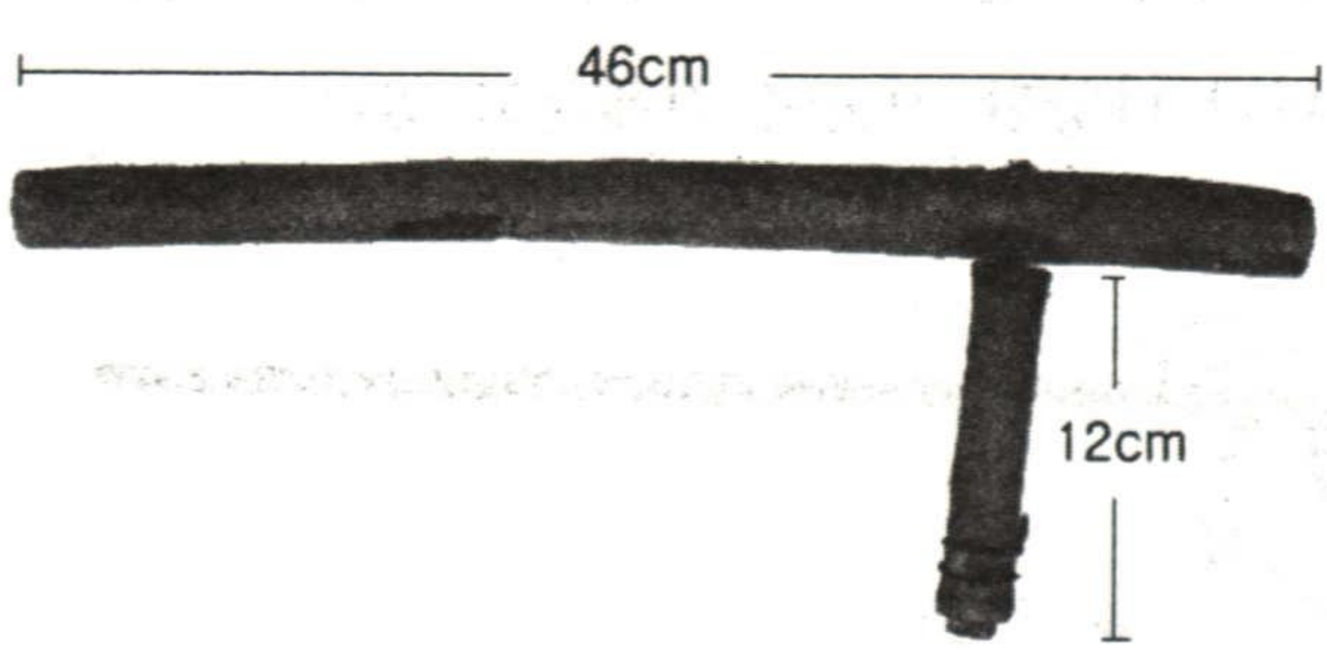
○ 명칭

자새라고 한다.

○ 구조

소나무 자루에 다시 대나무 껍질을 덧대어 손잡이를 만들고, 손잡이 끝부분에는 자세대라 불리는 긴 나

무막대가 달려있다. 손잡이와 자세대의 길이는 각각 12cm, 46cm이다.



자 새

○ 용도

끈을 꼴 때 사용한다. 자세대의 끝에 끈을 묶고 돌리면 자동적으로 끈이 꼬일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다.

○ 제작 및 구입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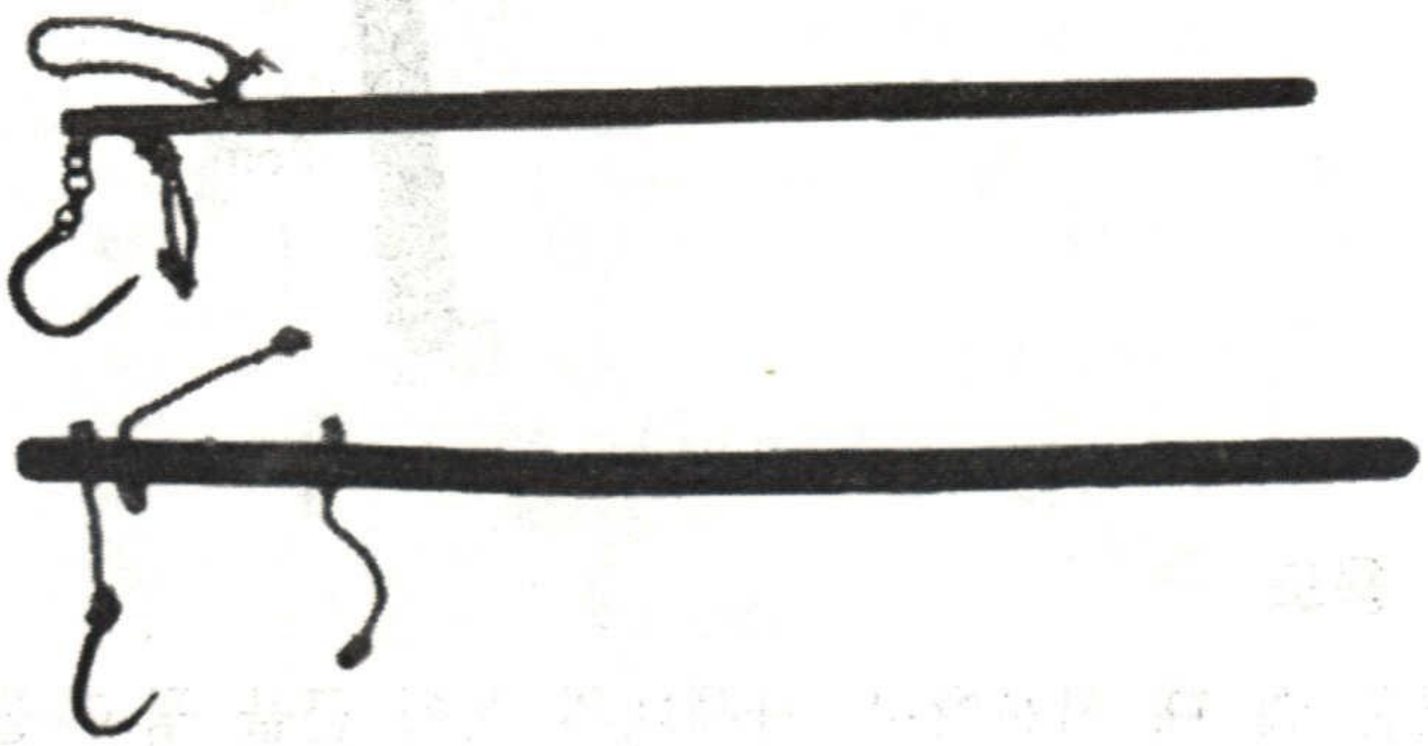
50년 전에 소나무, 대나무의 재료를 구하여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7) 저울

물체의 무게를 다는데 사용하는 기구로 청동기 시대에 이미 저울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저울이 전해지고 있다.



저 울

○ 명칭

저울이라 한다.

○ 구조

63cm의 소나무 자루에 쇠고리가 달린 실끈 하나와 쇠고리가 없는 실끈 두개가 묶여 있다. 실끈의 길이는 11cm이며, 본래 실끈의 끝에는 하얀 돌쩌귀가 달려있어 추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 용도

무게를 재는데 사용한다.

○ 제작 및 구입관계

약 100년 전에 소장자의 증조부가 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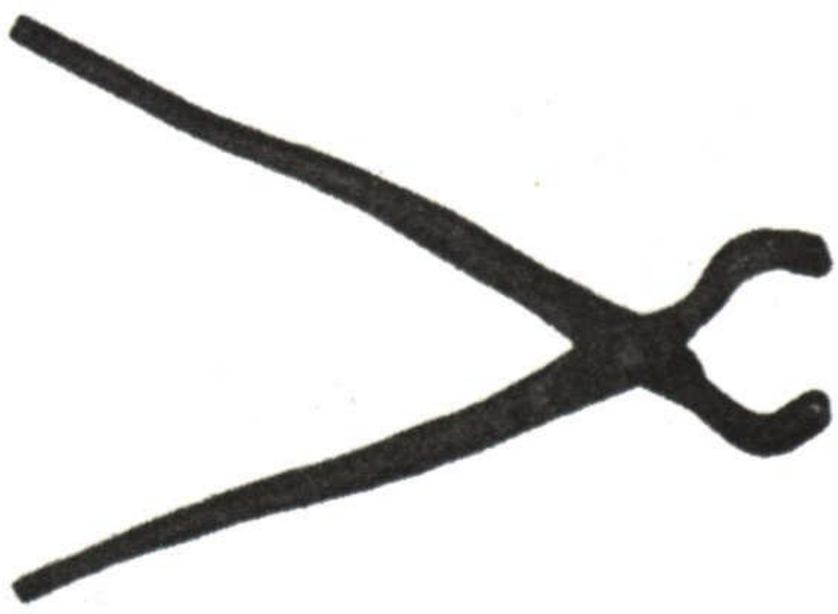
○ 소장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8) 집게

○ 명칭

집게라고 불린다.



집 게

○ 구조

32cm의 두 쇠막대가 가위처럼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물건을 집는 쇠부분이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

○용도

뜨거운 쇠를 집어 나르거나 망치로 내리칠 때 사용한다.

○제작 및 구입관계

50년 전에 청양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수명 및 수선

특별한 수선이 필요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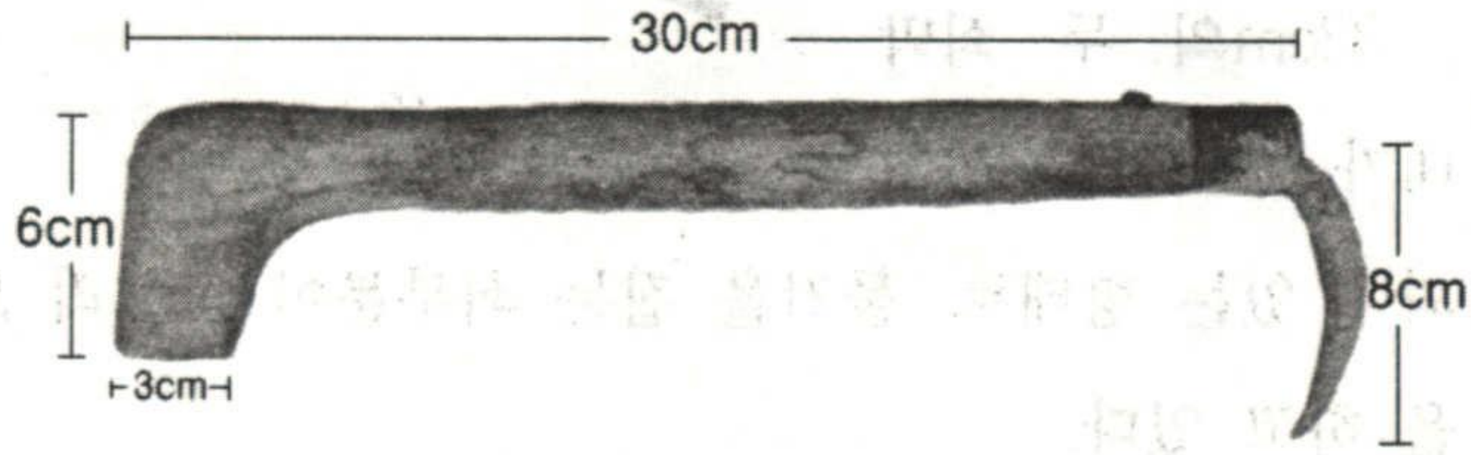
○제보자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9) 깔고리

○ 명칭

깔고리라고 불린다.



깔고리

○구조

나무로 만든 자루와 쇠로 된 갈고리로 구성되어 있

다. 자루는 밑바닥이 넓고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손이 미끄러져서 손잡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끝을 넓게 만든 것이다. 자루 끝에는 갈고리형태의 쇠날이 부착되어 있다. 자루밑바닥의 치수는 6cm×2cm이며, 자루의 길이는 30cm이다. 날은 8cm이다.

○용도

쌀가마니의 끝을 잽싸게 채서 등에 얹을 때 사용한다.

○제작 및 구입관계

20년 전에 청양시장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이다.

○수명 및 수선

특별한 수선이 필요없이 10~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보자

- 청양읍 정좌 1리 이갑술(남, 73세), 2006. 7. 6.

◈ 청양의 물질문화 전체 제보자

- 남양면 매곡리, 한계숙(여, 76세), 2006. 7. 7,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남양면 온암리, 김의욱(남, 66세), 2006. 7. 7,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목면 화양2리, 복상교(남, 66세), 2006. 7. 8,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목면 화양2리, 이영래(남, 55세), 2006. 7. 8,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운곡면 위라리, 김종갑(남, 71세), 2006. 7. 6,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운곡면 위라리, 복진용(남, 78세), 2006. 7. 6,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운곡면 위라리, 최송환(남, 64세), 2006. 7. 6,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6. 7. 3~2006. 7. 4,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청남면 중산리, 우규식(남, 88세), 2006. 7. 5,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청양읍 읍내리, 김종선(남, 74세), 2006. 7. 7,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청양읍 정좌1리, 이갑술(남, 73세), 2006.7. 7,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청양읍 정좌1리, 이봉운(남, 69세), 2006. 7. 7,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청양읍 정좌1리, 정현구(남, 74세), 2006. 7. 7, 임장혁·김진영·강석훈·김병묵 조사.

■ 편자 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한국세시풍속연구』외 다수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저서『양주별산대놀이』외 다수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저서『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외 다수

청양의 물질문화

인 쇄 : 2006년 10월 25일
발 행 : 2006년 10월 30일
발행처 : 靑陽文化院(전화: 041-943-4774)
발행처 : 정 재 권(전화: 041-943-8889)
인쇄처 : 대명제책사(전화: 02-924-5049)

※ 이 책은 군비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